지리산 차밭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행생
빅맨평생통장
• 어려서 오르면 목돈급리로 내집매는 행정급리로!
• 교육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영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1월 2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고귀한 옥은 땅속에서 나고 청정한 계(戒)는 선행에서 나온다. 〈열반경〉

법회 안내

불광사 (02)359-5367
신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거사법회 셋째 주 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전9시
학생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열불사 (02)938-9385
신중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19일(음)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광주 민덕사 (062)652-4920
연등법회 매월1~3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청년학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중 · 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9시

대구 은적사 (053)653-1572
거사불법회 매월 1 · 3주 수 오후7시30분
청년학법회 매주 월 오후7시
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안동 유일사(0571)858-0198
정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이리 관음사 (0653)54-1578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합창부법회 매주 수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제주 죽림정사(064)56-134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주부경전읽기법회 매주 화 오후2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금주 20면 발행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日스님 정유재란 참전일기 공개

日軍만행 한탄·수행자 번뇌 적혀…임란연구 사료적 가치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400년만에 번역

"후세에 당할 고통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짓고 있는 죄과야 말로 결국은 지옥행의 열쇠가 된다"(1597년 11월 13일)

4백년전 정유재란 당시 군의관으로 종군했던 일본인 스님이 쓴 난중일기의 일부이다.

거듭되는 일본의 과거사 망언으로 한·일 양국이 관계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수행자의 시각에서 침략전쟁의 참사를 기록한 〈조선종군일기〉가 최근 한글로 번역 공개돼 산 귀감이 되고 있다.

〈조선종군일기〉는 정유재란 당시 일본 안양사 주지인 경념(慶念)스님이 전쟁터인 조선에 90일간 참전하면서 쓴 목격기다.

이 일기는 70년대초 일본 〈조선학회〉 35집에 나이또교수(오까야마대 명예교수)에 의해 처음 공개됐던 것을 이번에 동국대 부설 일본학연구소(소장 신용태)가 지체 학술자인 〈일본학〉 제14호에 번역 전재함으로써 국내에 처음 알려지게 됐다.

〈조선종군일기〉는 경념스님이 정유재란 당시 구주성 성주로 부터 조선동행을 권유받아 경상도 하동 근처에 처음 상륙한 1597년 6월 24일부터 남원 전주 진천 상주등을 거쳐 부산에서 그항인 구저(日杵)로 퇴각하는 1598년 2월 2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종군을 통해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약탈·굶주림·죽음 등을 불심의 원력으로 다스린 경념스님의 수행모습이 잘 나타나있다. 그리고 지리산에 이르러 화염에 싸인 남원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전쟁터에서 저질러지는 일본군의 만행을 깊이 한탄하면서도 자신을 꾸짖는 모습등 수행자의 심경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또한 "승리의 가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결허한 자세를 추스리고 퇴각에 이르러 부처님의 가피에 힘입어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며 크게 기뻐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점차적으로 승화시켜가는 인간적 고뇌가 상세히 나타난다.

경념스님의 일기를 번역한 신용태교수는 "〈조선종군일기〉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적대적 관계를 탈피해 불자로서 동병상련을 느끼고 전쟁터에서 체험한 분노를 불교의 정서로 승화시키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신용태교수는 또 〈조선종군일기〉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진솔하게 기록한, 극히 드문 자료로 임진왜란 연구에도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기자〉



오중국 장쩌민주석(사진 중앙)이 지난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불국사 부주지 성타스님의 환영속에 불국사를 참배, 경내를 둘아보고 있다.

中 장쩌민주석 불국사 참배

월주스님 대장경 영인본 48권 답례

한국을 방문중인 중국의 장쩌민주석이 지난 16일 오전9시 40분 경주 불국사(주지 설조)를 참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불국사 부주지 성타스님이 맞이한 불국사에서 江주석은 합장한 손으로 인사하면서 "단풍이 무척 아름답다"는 말로 방문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월주스님이 "중국불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보존하여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하자 江주석은 "중국 상해에 있는 명양(明陽)스님과는 자주 만나 의견을 교환한다"고 답하며 "명양스님은 늘 불교의 자비정신으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월주스님은 江주석에게 고려대장경 영인본(복사판) 48권을 증정했고 江주석은 대응전을 비롯 경내를 둘러보았다.

한편 월주스님과 장쩌민주석은 이미 지난 5월 24일 북경에서 개최됐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에서 1시간여 동안 환담을 나눈바 있어 이번 만남이 두번째이다. 〈경주=이윤호 기자〉

"성보도난 징계 全無"

호법분과위 감사서 밝혀

도난당한 송광사 16국사진영(보물1043호)의 행방이 아직도 묘연한 가운데 성보도난에 관한 징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보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는 종정 감사를 보고하며 "올해 성보도난이 총 22건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회부한 건이 없었고 성보도난 대부분의 건을 처리보류 하는 등 성보도난건 처리가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승려법 제48조 11호에 의하면 종무원으로서 귀중품을 도난당한 자는 공권정지 5년이하 3년이상에 처할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조계종 원로의원 서운스님 열반

조계종 전 총무원장이자 명예 원로회의 의원인 이목당 서운(二木堂 瑞雲)스님이 지난 15일 새벽 1시 직지사 서별당에서 세수 92세 법랍 45년을 일기로 열반했다. (관련기사 19면)

스님은 62년 조계종 비상종단에 총무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는등 종단중책을 맡았으며 82년 원로회의 의원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이제 몸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차가운 달빛산이 진리의 몸이로다"는 임종게를 남겼다.

스님의 영결식은 19일 직지사 만덕전 다비장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종도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봉행됐다.

목어

염라대왕앞에 한 비구니스님이 옷을 입지 않은 채 나왔다. 염라대왕은 어리둥절하여 그 사연을 물었다.

"소승 게으른 탓으로 몸 가릴 옷 한벌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을러서… 아무래도 무슨 사연이 있는게로구나" 염라대왕은 사람의 한평생을 환히 볼 수 있는 거울(明鏡臺) 앞에 스님을 서게 했다.

이때 거울속에서는 세찬 눈보라가 일었고, 비구니스님은 떨고 있는 거지 여인에게 승복을 벗어 주었다. 이 광경을 본 염라대왕은 껄껄 웃으며 스님을 극락으로 인도했다.

염라대왕은 노하여 명을 내렸다.

살아서 보는 명경대

며칠후 고창땅 이름난 부자가 염라대왕앞에 끌려왔다. 그는 자신의 선행을 장황히 늘어 놓았다. 염라대왕은 그 부자를 명경대에 세웠다. 순간 겁인들이 굳게 닫힌 부자집 대문을 마구 두들기며 "이자의 등짝에 지옥행 도장을 찍어라"

요즘 국민의 시선을 끌고 있는 TV드라마 '제4공화국'과 '코리아 게이트' 화면이 명경대를 연상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15년전 이나라 역사를 바꾼 주역들과 그 주변 인물들은 화면속의 자신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느낄까.

살아서 보는 명경대. 그당시 목에 힘주던 인물이 오늘 고개숙인 채 구속되고 '쓰레기 같은 놈들'을 외치다 떨어진 별이 영웅대접 받을 줄 뉘 알았으랴. 명경대 필름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세월의 고속화로 인해 아마 오늘의 정치상황은 15년보다 더 빨리 명경대에 비춰질지도 모른다. 역사와 인과기 무서운 줄 알고, 살아서 보는 명경대가 두렵거든 바르게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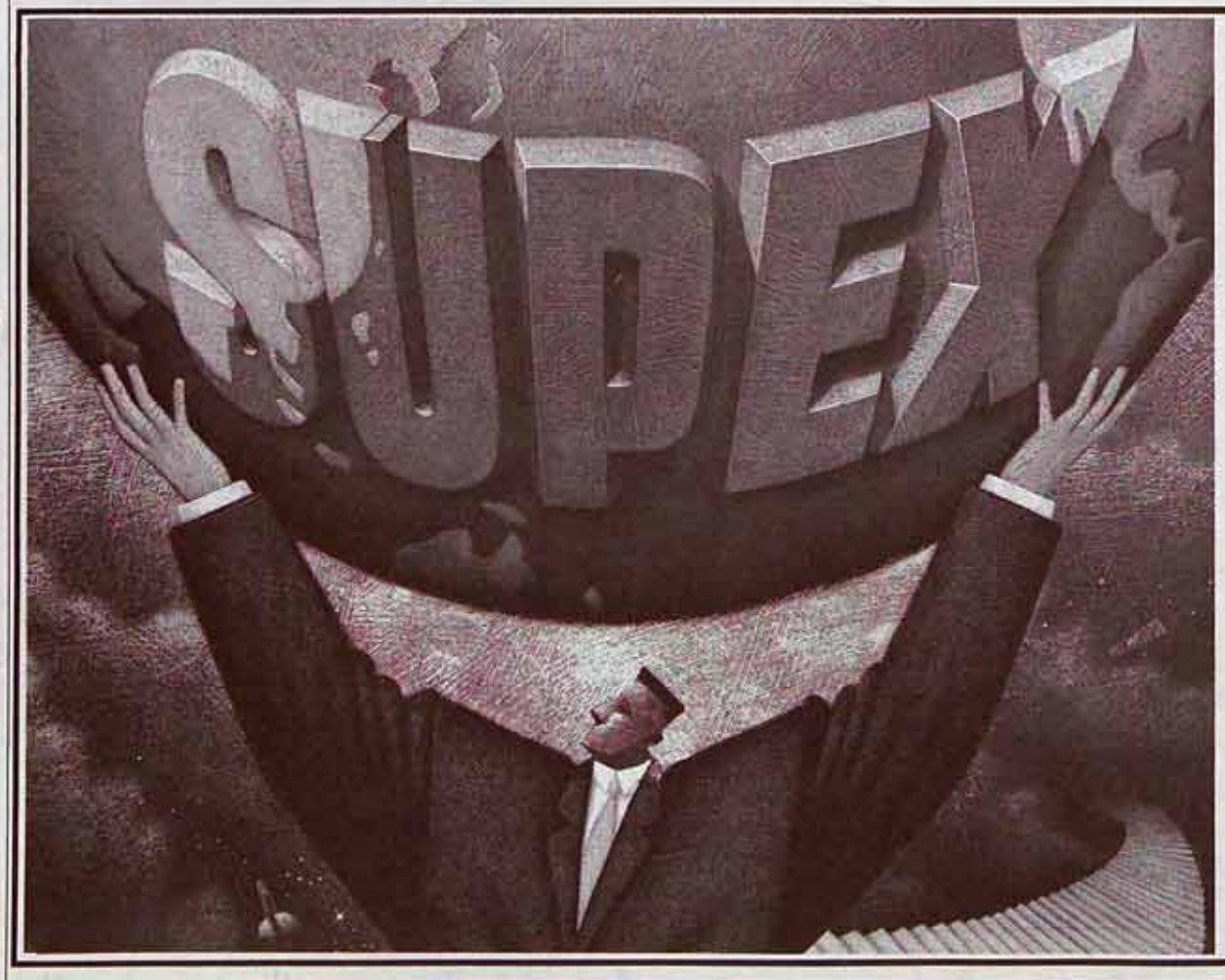
신행수기 공모 25일 마감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이야기들을 불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행수기 공모는 이웃과 함께 피안의 길을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실리게 되는 신행담 공모에 적극 동참바랍니다.

△ 공모내용 : 생활속 수행이야기 · 부처님 가르침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등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접수마감 : 95년 11월 25일
△ 접 수 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 화 : 722-4162 팩스 : 737-0698
△ 참가대상 : 불자면 누구나 동참 가능
△ 당선작발표 : 현대불교 96년 신년호 지면 당선작은 본지에 연재
△ 시상내용
· 유마상 :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메달)
· 종단협의회장상 :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메달)
· 본사 사장상 : 상장, 상금
· 특별상 : 상장, 상품
· 응모자전원 :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열린마당 조계종 개혁집행부 1년 2면
'진짜 보통사람' 조환진 거사 19면



SUPEX SUPER EXCELLENT

선경의
세계화전략은
SUPEX추구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세계가 보호막 없는 단일 시장으로 바뀌고
세계 각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합니다.
선경은 이러한 시대를 앞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수펙스를 추구해왔습니다.

수펙스(SUPER EXCELLENT 수준)추구 —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선경의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

사 설

불자들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출범에 즈음하여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앙신도회 결성 준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었다. 지난해 상무대 부정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조기현 전 신도회장이 구속됨으로써 전국신도회는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고 조직이 와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회장의 비자금 127억원 의혹사건은 그당시 정치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기도 하였다. 마침내 불교계가 부패한 정치권력과 밀착되었던 관계를 끊고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개혁불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드라마같은 노태우씨의 부정축재사건을 보면서 상무대 비자금사건의 실체를 이심전심으로 어렴풋이나마 새삼 알게 되었다.

이제 조계종은 개혁종단이 출범하여 개혁의지를 확인하고 개혁의 물꼬를 텄다. 새로 정비된 종헌종법에 의거 개혁종단이 출범한 지 한해를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종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원장을 비롯하여 종단의 지도자들이 불교의 자주화·민주화를 내걸고 착실히 개혁불사를 추진함으로써 불교계의 잘못된 관행과 폐습을 청산하고 제도를 고치는데 힘써 온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종무행정 곳곳에 개혁과 변화의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신도회는 구성과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게 겪고있다.

조계종 개혁이 있기 이전까지는 신도회 책임을 맡았던 일부 몰지각한 불교인들로 인해 불교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신도회가 어용·부정부패 이권거래의 폐습을 청산하고 제도를 구비하며 인적·물적구조를 혁신하는 데는 자연히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조계종 개혁종단에 부응하는 새 중앙신도회의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출범준비에 들어갔음을 환영하면서 앞으로의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 몇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첫째는 새 중앙신도회는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고 자주적이어야 한다. 과거의 신도회가 조직에 있어서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대외적으로는 부패한 군사정권에 밀착되어 각종 이권거래에 개입하고 타락하여 대다수의 불교신도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상무대 비리사건과 같은, 크고 작은 권불유착사건으로 불교가 자주성을 잃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경험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본사에서 교계의 관심과 참여속에 펼친 '우리는 불자가 정' 스티커보급운동도 이렇게 실추된 불자들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에서 시작하였다.

이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 사회를 제도할 수 있는 신도회의 조직과 활동을 기대한다.

둘째, 대중적인 기반을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각계 각층의 재가불자를 대변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일부 야심에 찬 정치지망생이나 경제인들의 출세주의적 사고에 의해 파행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대중적인 기반을 상실했던 과거의 폐습·관행을 탈피 청산해야 한다. 조직에 있어서 인적·물적구조를 혁신하고, 개혁의지를 가진 양심적인 불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물론 대중적인 자세로 화합과 자비의 정신을 잊지말아야 한다.

셋째, 부처님의 연기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현대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불교의 생명력을 알려야 한다.

대승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불교의 제 모습을 찾고 이땅의 역사가 사회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진운에 맞춰 등불이 되고 불국정토를 앞당기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중앙신도회로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

현대만평 박구원



어두운 곳이 많은 이때에…

열린마당

조계종 개혁 집행부 1년

역경·포교·도제양성 3대사업 기반 조성
구습남아 일반신도 '개혁 공감대' 못이뤄

행정기능 활성화돼야

▲영배스님 〈조계종 종회의원〉=교육원과 포교원이 각각 별원화된 집행부의 출발은 역경 포교 도제양성이라는 종단의 3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와 종단운영의 민주화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개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헌 종법대로만 수행해 나간다면 종단개혁불사는 별 무리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 집행부 스님들의 의식이 아직도 구습에 젖어 있음을 본다. 제도개혁에 어울리는 행정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끈질긴 의지로 무엇보다도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충분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욕심을 다 놓아야 한다"

▲원명스님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장〉=잘해 보려는 용기와 의욕을 일단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아직은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여겨진다. 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무엇보다도 스님네들이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럴려면 우선 마음의 욕심을 다 놓아야 한다. 옛날에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축생을 보고 "발(發) 보리심하여라"고 말하자 축생이 "너는?"하면서 응답했다는 우스개 얘기가 전해 내려온다. 종단집행부가 깊이 새겨볼 만한 얘기라 여겨진다.

비구니 동참에도 관심을

▲법성스님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개혁불사를 잇는 개혁종단의 1년은 어려운 살림살이였다. 다만 처음과 달리 비구니들에게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는 비구니들도 자비와 섭수로 포용해 진정한 종단화합과 발전에 동참시켰으면 한다.

신도회구성 자율적으로

▲이문옥 〈전국불교운동연합 공동의장〉=현 개혁종단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온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불교를 희망했다. 신도회 구성문제만 해도 그렇다. 총무원의 지나친 간섭으로 출범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재가불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자율적 활동을 저해시키고 신도회를 총무원의 영향력하에 두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변해야 사부대중이 화합할 수 있고 그래야 불교가 발전한다.

군포교 지원·인력 확충

▲강남석 〈군승단장〉=우선 조계종 집행부가 구시대적 역사를 청산하고 1년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많은 불사를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교육원과 포교원 등의 별원화는 개혁종단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중의 하나다. 특히 포교원을 중심으로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군포교분야에 군승요원의 충원과 지원은 군포교를 담당하는 현역 법사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좋은 계기였다.

부조리 척결의지 필요

▲남지심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1년이란 짧은 시간이다. 긴 세월의 부조리를 무너뜨리고 불교의 새 방향을 정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기에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지난 1년 조계종 집행부의 행보에 대한 평가는 부정이든 긍정이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우리 모두가 새로운 불교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종단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얼마나 넓혀 놓았는가를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평가작업은 지금부터

▲이광 〈불교방송 포교제작국장〉=지난 1년간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의 행정적 질서와 정신적 질서를 바로 잡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다. 종무행정의 쇄신이나 종사자의 의식변화 등이 개혁종단의 이미지를 제고시켰다는 평도 가능할 듯하다. 정작 종단의 업적에 대한 평가 작업은 이제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 1년동안 시도해 놓은 많은 일들을 얼마나 일관성있게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 있어 종교가 기여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물음에 종교자체의 순수성이 발현된 행동으로 답해나가는 모습을 불자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

개혁성과에 반신반의

▲김재일 〈동산반야회장〉=조계종 개혁종단이 1년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교계에 끼친 영향은 없었다고 본다. 이는 종단 자체의 개혁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최근 개혁불사의 불길은 재가 신도쪽으로 번지고 있다. 중앙신도회의 결성준비가 그것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한국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비판 수용할 줄 알아야"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조계종 사태로 불리웠던 불교계의 개혁을 위한 전통이 승가와 재가를 망라한 사부대중의 혼연일치된 정진으로 개혁종단을 탄생케 했다. 그동안 전불교도의 지대한 관심속에 개혁종단은 집중화된 총무원 체제에서 교육원, 포교원 등 전문화된 3원 체제로의 조직전환을 이루어 종무를 실질, 전문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인력, 예산 부족 등으로 출범 당시의 개혁의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차제에 이의 보완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덧붙여 승속의 소중하기 그지없는 비판도 의연히 수용할 줄 아는 개혁종단이 되기를 기대한다.

재정 투명성 확보시급

▲곽상인 〈대불련 회장〉=지난시대 얼룩진 불교계를 단 1년에 바로잡는다는 것을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계속적인 개혁불사의 와중에서 지난 1년은 그 기대에 미치질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종단개혁불사는 사부대중 모두가 이루어낸 만큼 그 주체들이 개혁불사 완수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 내 재정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현재에 있어 종단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은 운영의 밀실화로 집약되고 이의 가장 큰 난점은 재정운영이 중심에 서 있다. 비구니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종단운영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반봉건성을 혁파하는 첩경일 것이다.



◇ 조계종 개혁종헌에 의해 출범한 개혁집행부가 1년을 맞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봉행된 월주총무원장의 취임식 법회장면.

개혁종단 무엇을 했나

3원체제 확립·인력 전문화·행정쇄신…인사 허점 '흠'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0월 경불련과 평불협의 대표 자리를 내 놓았다. 이것은 사소한 일 같지만 월주 총무원장의 향후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되고 있다. 경불련과 평불협은 월주 총무원장이 총무원 입성 전부터 대표를 맡고있던 단체이다. 스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회의 대표적 분야 즉 사회·경제정의와 남북교류라는 사업추구때문에 스님은 대표자리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

월주스님은 출범 초기엔 종단의 운영과 사회 일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욕이 컸을 것이다.

집행부 출범 1년동안 몇번의 시행착오는 이것때문으로 분석된다. 월주 총무원장은 너무 매스컴에 나타난다는 비판을 수용한 듯 하다.

11월25일로 조계종 개혁 집행부는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월주스님은 밖의 일을 접고 종단 기틀닦기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종단 1년을 지켜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선 교육원과 포교원의 독립 별원화는 종단의 3대 과제인 도제양성과 포교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했다는 점은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종단을 비롯 전국 본말사 주지들에 대한 연수와 각 단체들의 폭넓은 연수교육은 시대변화에 따른 의식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 종단 전반에 관한 세세한 자료의 확보, 인력의 전문화, 종무행정의 쇄신, 전산화의 추진도 1년동안의 간과할 수 없는 성과이다.

월주 총무원장은 올초 기자회견에서 종무행정 7대기조와 4대목표를 발표했다. 지난해 개혁불사를 계승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개혁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기조로 △제도개혁의 정착과 보완 △수도·교육·포교·역경사업의 적극적 추진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추진 △재정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은 상당부분이 성과를 유보한 채 해를 넘어가게 됐다. 법계법 승가고시법 총림설치법 법인관리법 의제법 등 미비된 법령의 제·개정도 산적해 있다. 종단 최대 역점사업으로 부각시켰던 사찰운영위원회 구성도 지지부진이다. 사설사암 및 법인체의 관장, 중앙승가대 이전문제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총무부장 기획실장 등 중요 소임자가 몇개월을 못 넘기고 교체되는 등 그동안 10여명의 소임자가 바뀌었는데 '인사가 만사'인 점은 종단도 마찬가지다.

개정된 종헌 종법으로 인해 현 총무원의 위상은 약해지고 반대로 종회의 권위가 강화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어쩔수 없는 과도기 현상이라 여겨진다. 종도들을 대표하는 입법기구로서의 종회의 견제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상호 협조한다면 종단화합과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것이 교계의 분석이다.

어떤 사안에 성명서만 내고 후속조처가 없다거나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하기에는 앞으로의 3년이 너무 짧을 것이다.

사찰재정의 공영화·투명화, 공정한 주지인사, 승풍확립, 후속법령의 정비, 신도회 조직 재정비 등 흔들림없는 지속적 개혁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가는 과제가 출범 한돌을 맞은 집행부에 남아있다.

이경숙 기자



부산불교실업인회 주최

불·교·발·전·대·강·연·회

신심이 무르익은 이 계절, 교계의 큰 스님과 석학을 모시고
〈불교발전대강연회〉를 갖습니다. 불심을 더욱 북돋을 이번 대강연회에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불기2539년 11월 24일(금) 오후2시
국제문화센터 대강당 (국제신문 4층)

초청연사



근 일 스님
- 부석사 주지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위원
- 대구 능인학원 이사



송석구 박사
- 동국대학교 총장, 철학박사
- 사단법인 율곡학회 대표위원
- 한국동양철학회장

■ 강연회 당일 불교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도 갖습니다.
- 중학생 13명(260만원) · 고등학생 7명(210만원)
- 대학생 2명(160만원) · 대학원생 2명(200만원)

후원 불교TV(주)·BBS·불교신문 및 교계언론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부산불교신도회 및 신행단체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부산·경남모임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釜山佛教實業人會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47-14 국제O/T 1805호 TEL.466-7174~5, FAX. 466-7176

회장 김정태
고문 강병춘 서중석
상임부회장 조백최 영봉 김용윤 준도찰원환
부회장 최 김
감사 정호철
감사 박수복
총무이사 박영근
재정이사 배영호
특별사업이사 김진석

정서불안·기억력 상실·폐암등 유발

부처님의 지구 사랑 — 전 재 성 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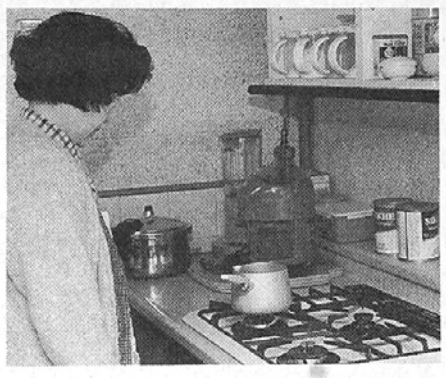
부처님 당시 출가라 하는 것은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의 출가였다. 출가한 사람은 주로 나무아래나 바위, 동굴에서 수행했고 우기에는 비를 피해 정사에 안주했다. 수행자들은 언제나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야외의 공기속에서 미세하게 호흡을 즐기며 깊은 선정에 들었다.

실내공기 오염

그러나 세속사회는 집을 중심으로 점차 밀폐화되는 주거공간을 발달시켜 왔다. 특히 산업사회 이후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실내공기 오염이라는 새로운 환경문제가 대두되었다. 오늘날 현대인은 하루 24시간중 80% 이상을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체에 미치는 실내공기의 오염이 대기오염보다 더 크다.

실내공기는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주방·난방 연료 및 인간의 활동에서 생겨나는 각종 공해물질로 오염되어 '빌딩증후군'이라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건축자재에서는 라돈, 포름알데히드, 석면과 같은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라돈은 방사능이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대리석, 벽돌, 모래, 진흙 등에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체에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나타난다. 서울시내의 라돈농도는 최저 1.5pCi/L에서 최고 9.9pCi/L로, 대체로 국제기준치 2.7pCi/L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름알데히드는 단열재나 가구의 칠, 접착제, 흡연 등을 통해서 발생되는데, 동물실험에는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눈, 코, 목에 자극증상을 나타내며 오랜동안 노출되었을 때 정서적 불안, 기억력 상실, 천식, 월경불순, 불임, 빈혈 등도 초래할 수 있다.



◇ 방안의 건축자재·난방연료·가전제품 등에서도 유해한 가스가 발생한다.

건축자재·가전품등서 질병원인 가스발생
서울의 먼지 환경기준치보다 2~3배 초과

석면은 석면타일, 석면슬레이트 등의 건축용 자재와 가정용품, 전기제품 등에 널리 쓰이는 것으로 은 유해한 가스가 발생한다. 최근 많이 사용하는 프로판가스나 도시가스가 연소될 때에는 석유류보다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은 적지만 이산화질소의 발생량이 많아질 수 있다.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짧은 시간 노출되어도 호흡이 빨라지고 폐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낮은 농도에서 장기간 접촉하면 만성 폐질환을 일으키며, 기관지염, 폐기능저하를 가져온다.

그밖에 과거에 연탄가스에서 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연탄 이외에도 각종 시설물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난방시설, 취사도구, 담배연기,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에서도 발생한다. 일산화탄소는 두통, 구역질, 현기증, 구토, 판단력 저하, 시각장애 등을 일으킨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저산소 등으로 뇌기능의 손상을 초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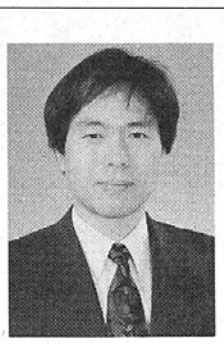
또한 실내공기 가운데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먼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호흡성분진은 폐포에까지 도달해서 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서울의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철역의 이러한 부유분진의 농도는 현재 환경기준치보다 2~3배 초과하고 있다. 특히 석탄갱도와 같은 작업장내에서는 석면폐증이나 규폐증 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교체하지 않으면 실내에 각종 미생물의 군집이 생겨나서 각종 세균과 곰팡이, 진드기 등의 서식처가 되며, 이들은 인간의 활동으로 부유미생물이 되어 호흡기에 침투함으로써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한국불교대 교수〉

시 론

비극의 또다른 윤회



한 형 조
〈정문연 교수·본지 논설위원〉

온 국민을 덮친 경악과 분노와 허탈이 사태를 융변하고 있는데 새삼 무슨 췌언을 농하랴. 국내의 언론들은 친절하게 그 격앙된 감정을 대리 배설해 주고 있고, 외국의 언론들까지 선진문턱의 비상임이사국에 어울리지 않는 국가적 수치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과문한지는 몰라도 전직 대통령이 사과를 위한 회견을 자청하고, 그 무대에서 눈물을 찍어낸 가련한 연출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듯하다. 조선민족은 역시 정서적이다. 성수대교와 삼풍에 격노하고 좌절하다가 어느새인 듯 까마득히 잊어먹는가 하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석고대죄의 눈물 앞에서는 동정의 기미를 어쩌지 못하는 민족이다.

그렇지만 그 구차한 모습이라니…. 나는 그가 해먹은 이른바 통치자금의 천문학적 액수보다 타임지에 실린 그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눈물을 죄송한듯 흠치고 있는 모습에 더 큰 민족적 수치와 분노를 느꼈다.

유세전에서 "나 보통사람이요" 하고 나설 때부터 나는 알아보았다. 그야말로 지극한 아부요 교활한 기만이 아닌가. 권력의 칼을 내리고 시정의 당신네들과 같이 놀아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은 그들이 권력을 잡은 과정을 돌이켜보건대 서천쇠가 웃을 노릇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았다.

보통사람이 못하는 일

완장을 차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 그 완장의 논리 앞에서 친구도 삼촌도 이웃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식민과 분단의 분열적 상황 하에서 처절하게 실감하고서도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은 권력의 속성과 생리를 잘 모르고 태고이래의 낙관을 안고 산다.

단언컨대 대통령은 보통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보통사람이어서도 아니된다. 최고권력을 위한 전쟁의 치열함과 파렴치함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바, 그 전쟁의 긴장과 삼엄함은 보통사람의 신경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고지 위의 권력은 또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자리이랴. 이 또한 보통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때로 국가적 요청 앞에 힘겨운 기획과 결단을 해야 하고 그에 걸맞는 권위와 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그 판단과 추진에 따르는 전면적 책임을 한몸에 져야 한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면장조차 그것이 권력이라면 그것은 보통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잊지말아야할 교훈

보통사람의 시대를 부르짖었던 6공은 출발부터 비전이 없었다. 비전이 없었으니 별다른 유위(有爲)가 있을 리 없다. 오죽하면 '물통'이라고 했을까. 식견과 경륜과 자기훈련을 결여한 보통 사람이 몰두할 가치는 세속적 가치밖에 없을 것은 당연지사.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대체 얼마나 끌어모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쓰고 남긴 것이 수천억이라니, 대체 이게….

그는 위대한 보통사람상이 아니라 용렬한 보통사람상을 이 역사 앞에 거울로 남겼다. 신화는 깨어지고 자존심은 상처받았다. 대통령을 제왕과 동일시하는 뿌리의 무의식이 청산되지 않은 한민족에게 그는 탈권위와 탈신화의 역사적 소임을 다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논자는 그것 또한 비극의 또 다른 윤회(輪廻)라고 생각한다.

비자금 소식에 불자들은 화를 내고 있는가 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사의 그렇고 그런 일이라고 담담하게 가부좌틀고 있는가. 화를 내서도 안되고 초연해서도 안된다. 사법계(事法界)의 중중무진(重重無盡) 속에서 누가 인연의 그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생사윤회(生死輪廻)는 개인의 종자(種子)와 현행(現行)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사회적 역사적 지평을 갖고 있는 것을, 생멸(生滅)을 떠난 진여(眞如)가 없다면 우리는 그 생멸의 모습을 보다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통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바, 전세의 숙업(宿業) 또한 무분별(無分別)의 소승적 초탈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승적 연기(緣起)의 지속적 정화를 통해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하여 이 분노와 좌절과 충격을 복응(服應)의 화두(話頭)로 오래도록 잊지 말자.

제2의 아우슈비츠인 다하우의 유태인 수용소에는 현대 철학자 산타야나의 다음과 같은 경구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들에게는 그 기억을 일깨워 주기 위해 같은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신행수첩

맑고 고운 향기를 청소년에
24일 호암아트홀 음악회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가 열린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회주 법정)'는 오는 24일 저녁 7시 호암아트홀에서 나눔의 기쁨을 위한 제2회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를 갖는다. 불자들의 따뜻한 가슴 한 자락, 정겹디 정겨운 손길을 이들 푸른 눈망울의 선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다.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티켓에는 불우청소년을 위한 장학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일구는 일에 불자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은 자비종도들의 당연한 의무임을 생각할 때 이 음악회는 더욱 아름다운 소리마당으로 다가올 것이다.

티켓예매는 '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02-741-4696~7)'나 책방여시아문(02-737-0695)에서 한다.



◇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포스터.

사찰예절의 모범 태국
교육방송 24일 방영

태국의 국교는 불교. 어디를 가든 탁발승을 볼 수 있고 예절에 항시 신경써야 한다.

태국에서는 승려에게 말을 걸거나 쳐다보거나 부딪치거나 하면 그것보다 더 큰 결례는 없다고 한다.

교육방송은 오는 24일(금) 밤 9시25분에서 35분까지 10분간 '지구촌 에티켓-태국의 불교사원'을 통해 단정하고 공손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사찰예절의 모범, 태국을 찾아간다.

사찰에 갈 때는 신성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이것만 지킨다면 국내나 태국에서 환영받는 참배자나 여행자가 될 것이다.

무사고 기원 염주달기
광주 선덕사 캠페인

버스나 택시를 타보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작은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마도 교통사고가 세계제일인만큼 가족과 주위사람들의 근심도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광주 선덕사는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립하고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염원에서 22일 오후2시 광천동 시외버스터미널과 택시승강장을 중심으로 '무사고 기원 염주 달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항상 과다한 운행을 해야 하는 영업용 택시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전운행을 기원하며 개별 택시마다 염주를 달아줄 예정이다.

모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과 괴로움을 나누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많은 불자들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정성스런 마음으로 무사고를 기원해 보는 것도 뜻깊은 신행생활이 될 듯하다. (062)263-4660

피안의 땅 철원을 찾아
불교신행硏, 문화기행

휴전선으로 하나의 군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민족분단의 현장이 되어 버린 슬픔의 땅 철원. 하지만 이곳에는 기도영험이 높기로 이름난 두 불상이 있어 이곳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있다. 불교신행연구원이 오는 26일 바로 이곳 도피안사의 비로자나부처님과 심원사의 지장보살을 찾아 문화기행을 떠난다.

잃어버렸던 불상이 현 도피안사 자리에서 발견돼 이곳이 '부처님께서 머무르실 피안의 땅'임을 깨달은 도선국사가 곧바로 절을 지어 봉안했다는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 보는 이의 고개를 숙이게 한다.

심원사 명주전에 모셔진 석대지장보살상 또한 지장신앙의 참의미를 통해 참된 삶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에 충분하다. (02)587-6613

자비사랑 담긴 하루찻집
17일부터 관음포교원등 4곳서 열어

따뜻한 차 한잔에 온정을 담아 돈독한 법우애를 꽃피우고 불법의 자재함을 느껴보자.

연말을 앞두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는 일일찻집이 교계 각 단체서 잇따라 열린다.

관음포교원이 개원 7주년을 맞아 17일 '정박아를 위한 일일찻집'을 열었고(863-9469), 대한불교부인회도 오는 24일 로마다방서 '무의탁 노인 및 양로원 방문 기금모금 일일찻집'을 연다(736-5035).

또 오는 12월 2일에는 개통 5주년을 맞은 자비의 전화가 불교114 시연회를 겸한 일일찻집을 녹수청산서 연다(737-7378).

생명공양실천본부도 12월2일 생명나눔 운동확산을 위한 일일찻집을 샘터다방서 연다(734-8050).

訃

大韓佛教 曹溪宗 元老會 議員
二木堂 瑞雲 大宗師 世緣已盡 乙亥年 11月 15日(陰 9月 23日)
午前 1時 於直指寺 西別堂 入寂 玆以告訃
大韓佛教 曹溪宗 元老會 議長 慧庵·上佐 世雄 合掌

告

瑞雲 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 委員會

증 명 월하, 서웅
장의위원장 혜암
부 위 원 장 승찬, 원담
위 원 월산, 관응, 고송, 서암, 승찬, 벽암, 비룡, 응담, 도천, 지종, 운경, 원담, 도원, 일타, 청하, 수산, 성수, 도견, 송담, 지유, 진제, 동고
봉행위원장 월주
봉 행 위 원 지관, 암도, 숭산, 초우, 혜정, 탄성, 월탄, 능가, 광덕, 고산, 법안, 보성, 도성, 덕명, 법홍, 지명, 철웅, 무진장, 월서, 도원, 혜성, 화엄, 정관, 법정, 정영, 월운, 학능, 종하, 현성, 벽파, 향운, 도문, 능혜, 종산, 이두, 진철, 동춘, 적명, 고우, 무비, 허연, 천운, 인환, 성운, 설정, 성타, 현근, 정현, 지홍, 현해, 무공, 설조, 지은, 도영, 지선, 종열, 현고, 중원, 혜산, 운경, 운포, 허주, 태정, 휴암, 홍교, 원명, 근일, 종원, 현호, 현관, 태허, 재곤, 성운, 자우, 종상, 삼지, 법장, 지원, 대우, 천제, 법조, 법성, 시인, 삼보, 명선, 지성, 법철, 현광, 자광, 정락, 종범, 송산, 정산, 월호, 혜산, 도각, 원산, 백운, 선래, 중래, 혜총, 태연, 태응, 혜춘, 상륜, 광우, 명성, 묘엄, 태경, 자민, 진관, 명문, 일초, 서돈각, 권익현, 박완일, 김태호, 황수영, 이기영, 최재구, 엄상호, 송석구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임직원 일동, 중앙종회의원 일동, 초·재심 호계위원 일동, 소청 심사위원 일동, 법규위원 일동, 선거 관리위원 일동, 중앙법인 관리위원 일동, 교육위원회 일동, 직능대표 선출위원 일동, 군종법사단 일동, 전국 포교사 일동, 전국신도회임직원 일동, 전국 향승 일동, 각 신행 단체장 일동, 전국 경승일동, 각종립학교 임직원 일동
집행위원장 녹원
도 감 법성
병 법 명진
의 전 법등, 영배, 법보, 현강, 수경, 원학, 선광, 지진, 진담, 덕조, 수진
지 빈 도진, 연수원장, 운문사 대중 10명
재 무 서강, 장명, 혜관, 도홍
홍 보 정휴, 향적, 이태행
섭 외 무관, 대혜
경 호 혜창, 홍관, 원공
다 비 장 등각
매 표 소 상현
시 자 정신, 청암사 대중
원 주 보륜
호 상 석주
문중대표 관응
산중대표 녹원
문도대표 세웅
은 제 자 세웅, 종래, 의룡, 상묵, 세연, 수동, 종선, 종법, 무선, 대선, 계성, 인상, 세법
법 제 자 금산, 세종, 송오, 수암
손 제 자 인호, 성대, 장윤, 종암, 덕천, 덕보, 청광, 석관, 학해, 묘인, 덕윤
증손제자 해광, 해경, 범우, 혜오

大韓佛教 曹溪宗
瑞雲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 委員會


◇정영스님


◇숭산스님


◇탄성스님

정영·숭산·탄성스님 원로의원 추천

조계종 119회 중앙종회

탄성스님(전 개혁회의 총무원장) 숭산스님(화계사 조실) 정영스님(마곡사 태화선원 조실)이 119회 조계종 정기 중앙종회에서 원로회의의원으로 추천됐다.

세 스님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정영 스님=71세, 42년 만공스님을 은사로 득도, 갑사 주지.

△숭산 스님=69세, 47년 마곡사에서 출가 일본·홍콩·미국·캐나다·폴란드등 세계 각국에 홍법원 및 선원 개설.

△탄성 스님=66세, 44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 법주사 주지, 조계종 중흥회의 상임위원장 역임.

교차로

부산실업인회 초청 법문



근일스님(부석사 주지)은 오는 24일 오후2시 부산실업인회 주최로 부산 국제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불교발전대강연회에 참석 법문한다.

고대문명발상지 돌아봐



현성스님(청교련 회장)은 지난달 26일~10일간의 일정으로 청담문도회 스님들과 함께 그리스, 스페인, 이집트등지의 고대 문명발상지를 둘러보고 돌아왔다.

종욱스님 열반 26주기 추모제



천운스님(대흥사 주지)은 지난 16일 대흥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암당 종욱대종사 열반 26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신한민보 창간기념 법문



법타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LA에서 재미교포들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한민보 창간 9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2일 LA한국회관에서 '불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해외동포언론의 사명'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정각사 후불탱화 점안식



광우스님(정각사 주지·전국비구니회장)은 지난 16일 정각사 대웅전 후불탱화 점안식을 가졌다.

탄생화 성도상 초전법륜상 열반상의 사성지를 담은 탱화로 국내에서는 처음 봉안한 표현양식이다.

은행나무 심기 행사

성덕스님(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장)은 오는 26일 경기도 파주 보광사에서 은행나무 식목행사를 거행한다.

관음사 주지 다시맡아

중원스님(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은 지난 11일 열린 관음사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주지에 재추천됐다.



佛 문화성행사 참석위해 출국



고은씨(시인·본지 논설고문)는 28일 프랑스 문화성 초청으로 출국. 12월 2일까지 프랑스에서 머물며 시낭송과 토론으로 진행되는 '아름다운 이방인' 행사에 한국문인 대표로 참석한다.

정각여성大 개교16돌 행사



안순진씨(정각여성대학 학장)은 지난 8일 양평 밤골농원에서 개교 16주년 기념법회 및 체육대회를 가졌다.



태고 보우국사 탄신 694주년 법요식

태고종(총무원장 서봉)은 지난 13일 오전11시 북한산 태고사에서 태고보우원증국사 탄신 694주년 다례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총무원장 서봉스님, 부원장 혜초스님, 태고사 주지 청암스님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전국 각 지방종무원 및 사암에서도 다례법요식을 봉행했다.



연꽃마을 마포경로의원 개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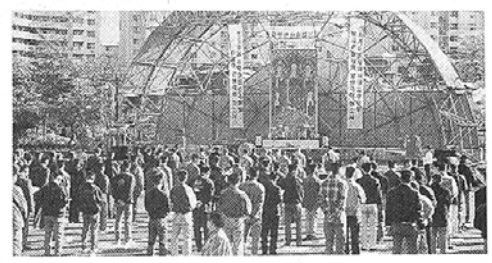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마포경로의원 개원식이 지난 10일 총무원장 월주스님,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 노승환 마포구청장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연꽃마을 마포경로의원은 1층 물리치료실, 2층 진료실, 3층 경로식당등 설치 지역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벌인다.



불전역해 10권 발간기념 법회

법성스님(대승원장, 조계종 교육원역경위원장)의 불전역해 10권 발간기념법회가 지난 11일 오후2시 총무원 1층 회관에서 거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석주(칠보사 조실)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종회의장) 원산(〃교육원장)스님등과 서돈각(불교진흥원 이사장) 이종찬·배기선의원(새정치 국민회의)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환경운동 호국영령천혼 대법회

환경운동 불교인 연합회(회장 김남일)는 지난 11일 오후2시 동대문구 전농3동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광복 50주년기념 호국영령천혼대법회를 봉행했다.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서봉스님을 비롯 양평불교사암연합회, 보병제57사단불교신도회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 순국선열 및 유주무주 고혼을 천도했다.

"절 아랫 마을부터 교화 해야죠"

해인사 선 서화전 기획 **무 착 스님**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지금 禪서화전이 한창이다.

지난 10월 4일부터 상설로 열리고 있는 同전시회는 지역포교 및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가야불교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기획된 것.

"먼곳에 있는 사람들은 교화하면서 절아랫마을 사람들을 교화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이 전시회를 주관한 무착스님(해인사 기획실장)은 사찰이 지역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인사 자체 예산으로는 5백여 사중식구 뒷바라지에도 힘든 실정이어서 본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다행히도 작품기증이 순조로워 지금까지 월하 종정스님, 석주스님, 일타스님, 수안스님, 중광스님등의 서화, 병풍, 도자기 5백여점이 접수됐다.

가야불교회관은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의 해인사 소유부지 6백평에 연건평 4백평의 4층규모로 세워지게 되며 법당, 문화공간, 공연장, 식당 등이 들어서게 된다.

무착스님은 오는 12월초 창립을 앞두고 있는 '21C 불교연합'의 사무총장도 맡고 있다. 〈윤〉

'미물도 소중' 불교사상 담아

SBS '선암사의 비밀' 제작 **윤 동 혁 PD**



우러진 자연은 또다른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라며 사찰환경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프로의 수확이라면 매일 선암사 혜천당앞에서 묘각스님이 놓고가는 사과를 청설모가 물어가는 장면인데, 아무것도 모른척 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스님과 어우러져 불교의 깊은 맛을 보여준 것.

윤PD는 불교적인 프로를 많이 제작했는데 MBC '인간시대'를 연출하며 어린 고아 5명과 함께 생활하는 '부안 할머니 스님' 희문스님 이야기 '고운 꿈 나빌레라' SBS 초파일특집 '소쩍새 마을' 등의 프로를 제작했다.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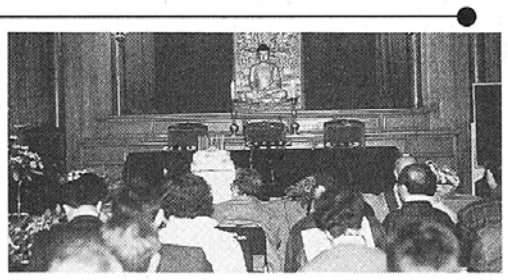
"자연적이고 불교적인 프로에 정이 많이 갑니다"

지난 15일 SBS 창사 5주년 특집으로 방영된 '선암사의 비밀'을 제작한 윤동혁PD(45세)는 하찮은 미물도 소중히 여기는 불교사상을 화면에 담으며 자신의 불심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한다.

지난 3월부터 70여일동안 이 프로를 촬영했다는 윤PD는 "사찰주변이 생태학의 보고라는 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생태학의 보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색창연한 사찰과 어우러진 자연은 또다른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라며 사찰환경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프로의 수확이라면 매일 선암사 혜천당앞에서 묘각스님이 놓고가는 사과를 청설모가 물어가는 장면인데, 아무것도 모른척 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스님과 어우러져 불교의 깊은 맛을 보여준 것.

윤PD는 불교적인 프로를 많이 제작했는데 MBC '인간시대'를 연출하며 어린 고아 5명과 함께 생활하는 '부안 할머니 스님' 희문스님 이야기 '고운 꿈 나빌레라' SBS 초파일특집 '소쩍새 마을' 등의 프로를 제작했다. 〈원〉



동산반야회 창립 13주년 기념법회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지난 11일 창립13주년을 맞아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타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엄상호(건영그룹회장) 한상범(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장)등과 회원 7백여명이 동참했다.

1부에 이어 2부 행사에서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종석스님(승가대교수)이 '반야사상'에 관한 강연을 펼쳤다.

한편 同회는 지난 16일 종로구 견지동 13번지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하고 법당인 '동산법당'을 마련했다.

●조계종신도회 창립준비위장 한 상 범교수●



"새롭게 탄생하는 중앙신도회는 개혁종단에 걸맞게 자주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 결성식에서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상범교수(동국대)는 "신도회의 공백이 무려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도회 결성이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중앙신도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심 우선한 신도회 창출에 최선

"내년 2월까지 출범… 더이상 늦출수 없어"

한위원장은 "준비위원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신도회 탄생에 한시적으로 산파역을 수행할 것이다"며 "모두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일을 하고 소임을 마치면 평신도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일정으로 "총무원, 포교원, 준비위원단 연석모임에 이어 지역순회를 통해 전국연락망을 구성하고 기존단체(교구, 직능단체)의 등록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위원장은 차기 회장의 자격에 관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 재력보다 신심을 우선한 청렴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엽〉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목련상 최 종 순 보살



"지금처럼 윤리도덕이 올곧게 서지 못한 시대에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 인내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만큼 아이들의 뒷받침이 교육을 등한시 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9일 95전국여성자원봉사자대회에서 어린이수칙 제작 배포 및 소녀가장돕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최종순(63, 부산 초음어린이집 원장)씨는 무엇보다 어린이의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씨가 제정한 어린이수칙 12가지는 '부모님 말씀 잘듣기', '질서 잘 지키기', '고운말 쓰기', '물건 아껴쓰기'등 어떻게 보면 새로울 것도 없는 진부한 것들 뿐이다. 그러나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처럼 어릴 때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최씨의 소신이다.

어린이 수칙 배포·소녀가장 도와

"올바른 생활습관 어릴때부터 가르쳐야"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그만두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뛰어들면서 봉사활동을 본격 시작하게 됐다는 최씨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지금에도 우리주위에는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말한다.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듯이 그들에게도 애정을 기울였으면 합니다"며 개인적으로는 삼광사에 다니는 독실한 불자인 최씨는 이번 수상이 부처님의 공덕이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산=박병근 기자

지장왕 보살 김교각 스님 탄생 1300주년 기념

중국 구화산 방장 인덕 큰스님 초청 대법회

초청 환영회 및 출판기념회



귀의 삼보하옵고

중국 구화산을 세계적 성지로 만든 신라국 왕자 김교각 스님 탄신 1,3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추모 사업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저희들은 내년 불탄일을 전후하여 구화산 김지장 보살 관계 유물 전시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김교각 스님 일대기 「**대륙의 신라왕자**」「그림으로 보는 **지장왕 보살 김교각**」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덕 큰스님(구화산 자원사 방장)을 비롯하여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환영회를 겸한 출판 기념회를 갖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문화예술 교류 협회장 조 영 록
발행인 무 구

환영회 및 출판기념회

■일 시:1995년 11월 21일(화) 오후 5시
■장 소: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 ■문의처:우리출판사 313-5047

수효사에서는 지난날 중국문화혁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九華山 지장도량을 굳건히 지켜오신
仁德 방장 큰스님을 모시고 감로법문을 청합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친견공덕 이루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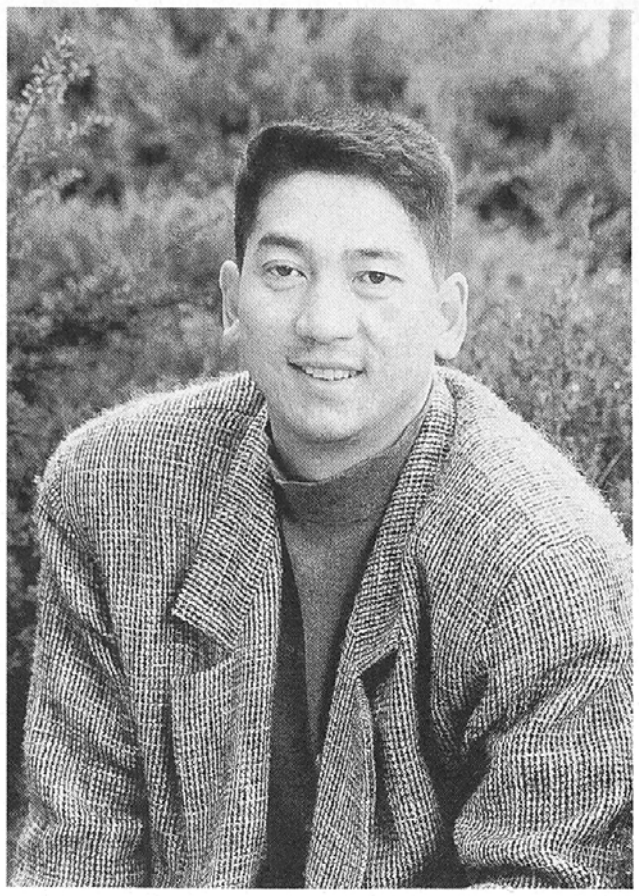
마산 수효법당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	☎ (0551) 47-7382
백 천 사	11월 24일 오전 11시	☎ (0346) 64-6433
서울 수효사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	☎ 313-5047, 3037
부산 수효사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 (051) 501-3756
부산국제신문사	11월 28일 오후 2시	☎ (051) 501-3756

대한불교 조계종 수 효 회
대표문의전화 (02) 313-5336, 5337

"기록 집착 놓을때 無心타법"

산문밖의 禪

프로야구 OB선수 **김 형 석** 씨



마음 흩어지면 슬럼프 '쉼없는 연습으로 극복'
선수단 '도반의식' 갖고 한마음… 올 우승차지

경기도 이천의 OB베어스 야구장을 달리는 '큰꼼' 김형석씨의 눈빛과 얼굴은 유난히 빛나고 있다.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김형석씨는 누가봐도 야구를 하기위해 태어난 사람같다.

"작년 OB구단 선수들의 '팀이탈사태'로 팬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이젠 더이상 어떠한 것에 집착하여 연연할 일도 조급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야구에만 정진할 생각입니다."

김동화박사의 손주

프로야구 12년째인 김형석씨는 OB야구단에서 3,4,5번의 타석을 차지하고 있는 팀의 간판답게 프로야구 최고 출장기록(622번)과 최다 안타기록(5년연속 120안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흐트러짐없이 뛰는 선수이다.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제힘의 원동력은 할아버지입니다."

김형석씨의 할아버지는 불교학자 뇌허 김동화박사이다. 막내여서인지 특히 조부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는 그는 국민학교 3학년때 시작한 야구선수의 길도 바로 조부의 반대로 어려움이 컸다.

"조금하다 그만두리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학교에 갔다오면 영어나 한문을 가르쳐 주셨지요."

할아버지는 야구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만 보신채 돌아가셨지만 그가 야구로 빛을 보게된 것은 중앙대 4년 재학시절 국가대표에 발탁되면서부터다. 그는 LA올림픽에도 참가했다. "첫 타석에 들어서는데 할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그때를 회고한다. 그래선지 시즌중에도 항상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 의지를 다진다고 한다. 독실한 불자답게 원만한 가정과 자상한 인품으로 프로선수들 중에서도 '우등생'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다.

"야구는 참선처럼 정신이 맑고 고요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곧 슬럼프에 빠지니까요."

그는 항상 노력하는 선수이다. 정규시즌이 끝나 휴식기간과 연말연시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에도 그는 새벽일찍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고 묵묵히 배트를 휘두른다. 정기시즌중이나 외국전지훈련중에도 밤이되면 운동장 구석에서 혼자 3백번의 스윙을 하는 것은 그의 빼놓을 수 없는 프로 근성을 보여준다.

"저만큼 훈련 안하는 선수도 있나요"라고 반문하지만 그는 배트를 휘두르며 편안한 마음의 경지로 들어가 야구를 한다. 그래서 그의 타법은 일명 '무심타법'으로 통한다.

그는 지난해 선수단 이탈사태로 연속경기 출장기록과 시즌 최다 안타기록을 한꺼번에 잃었다. 이로써 한국의 '루게리그(미국최다 출전선수)'란 칭호도 이젠 더이상 그의 몫이 아니게 됐다.

정작 그러한 기록은 그의 정진을 막는 마였다. 몸이 피로해도 연속출장 기록때문에 쉴 수가 없었고 팀을 위해 희생타작전을 써야할 때도 머릿속에 맴도는 안타숫자에 집착해야 했다. 동료들 보기도 민망했다.

"모두 버려야지. 집착을 끊어야지 하면서도 끄달리는 욕망은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번민하면 번민할수록 빨려드는 자신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OB의 고비였던 팀 이탈사태 와중에서 '기록을 이어가야 한다'는 선·후배 동료들의 아낌없는 충고가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기록이 뭐 대수냐'며 선수단 집단이탈에 타자최고 선배로 투수최고참 박철순선수와 뜻을 함께 했었다. 그러한 선택은 자신만 생각하며 독살이로 살아온 날에 대한 뉘우침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가르침의 실천을 보인 것이기도 했다.

연봉협상에도 먼저 사인을 한 백지 위임장을 구단에 내밀었다. 물론 프로야구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을 잡고 '나'를 이기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뒤 선수들의 마음을 바로잡는데도 솔선수범했다.

연속 출장기록 보유

"OB는 특별나게 잘하는 타자라든가 투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우승까지 하게된 것은 마음이 하나됐기 때문입니다."

선배와 후배라는 개념을 떠나 항상 서로 고민과 기쁨을 나누며 도반처럼 생활하여 화합을 중시했다는 점이 우승을 낚아챈 비결이라는 것이다.

승부의 세계는 참 묘하다. 흔히 강하면 이긴다고 하지만 자꾸 지면 상대방에 '호구'가 되어 순식간에 팀이 허물어지는 냉엄한 세계이다.

"골찌 OB라는 칭호를 받으면서도 전지훈련가서 훈련모습의 스케치보다는 어떤 정신자세로 훈련하는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33세. 외국에서는 한참 뛸 나이지만 국내 프로계에서는 적지않는 나이이다. 그래서 원로취급을 받기도 한다.

"이제는 기록이나 타이틀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화두를 꽉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마음 새뜻으로 시작하는 김형석은 어떤 모습으로 운동장에 설까. 그는 두 주먹을 불끈쥐고 젊은 선수들이 달리고 있는 야구장으로 성급히 들어가서는 운동장을 한바퀴 뛩 돌았다.

김원우 기자



삽화 · 이기선

"공덕 못쌓고 재물만 쌓다니"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⑤1

대우(大愚)

나는 당신의 법명을 모르니 태우거사(泰愚居士)라 부르겠소. 당신이 통치자의 자리에 오를 때 참으로 기뻤소. 왜냐하면 육조 혜능스님과 같은 성씨를 가졌고 환경이 육조와 걸맞은 것이 몇가지 있었기 때문이었소.

노행자(盧行者)가 어렸을 때 나무장사를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던 것이 어쩌면 태우거사와 흡사한 생활이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노행자와 당신이 등치되는 마음으로 대하였소. 먼 거리에 있으면서 참으로 즐거운 나날이었소. 노행자는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라는 금강경 게송에서 마음이 광명처럼 밝아졌고 깨침의 여래가 충만하였소. 이처럼 태우거사도 갓바위 아래서 얼마나 치성과 기도를 올렸소. 그 공덕이 하늘에 닿고 하늘에 넘쳐 위대한 영광을 수용하게 되지 아니하였소. 수용은 큰 공덕이 화현한 것이라 그 공덕을 바르게 회향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요. 정말 아둔한 일이요. 무지한 행화가 아닌지요. 우리 한번 불자의 가슴으로 돌아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자사 위거와 육조의 문답을 살펴서 당신과 비교하려 하니 용서하시요.

자사 위거는 공경하게 머리 숙여 절하고 말하였다.

"큰스님의 설법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 여쭙고자 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문이 있으면 물으라. 어찌 머뭇거릴 필요가 있느냐?"

자사가 물었다.

"큰스님의 법은 인도에서 오신 증국의 초조 보리달마의 가르침이 근본이 아닙니까?"

"제자는 보리달마께서 양무제와 대화하실 때 무제가 묻기를, '나는 평생 절을 짓고 보시를 하고 공양을 베풀었는데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자 보리달마께서 대답하시기를, '무공덕(無功德)'이라 하셨것이 공(功)이요, 바른 마음이 덕(德)이다.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밖으로 공경을 실천한다. 만약 너희가 모든 사람을 밝혀 주지만 자아(自我)를 끊지 못하면 자신의 공덕은 없다. 자신의 본성이 잘못되면 법신의 공덕은 없다. 계속되는 생각 속에 덕행이 있고 바른 마음이 있다면, 공덕은 가벼이 여겨지지 않고 수행은 항상 공경받는다. 스스로 수행함이 공이요, 마음으로 실천함이 덕이다. 공덕은 마음에서 나오며, 복과 공덕은 다르다. 무제가 바른 이치를 몰랐던 것이지 보리달마가 틀린 것이 아니다."

자사가 절하고 물었다.

"제자는 어떤 스님들과 신도들이 아미타불을 의며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자의 의심을 풀어 주십시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자사여, 설명할테니 잘 들으라. 세존께서 사위성에서 서방세계를 설하심은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법이었으며, 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극락세계는 멀지 않다'고 하셨다. 미혹된 사람은 부처님을 의지하여 다른 세계에 태어나려 하고, 깨달은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불국토도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다.

"盧거사! 노행자를 돌아 보시오"

위의 글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불교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요. 내가 당신을 노행자의 성품으로 혜능대사의 깨침으로 생각하였던 것이 정말 어리석었소. 당신은 정말 태우거사(泰愚居士)가 아닌가요. 부끄럽소. 정말 참괴하시오.

자사가 절하고 물었다.

"제자는 보리달마께서 양무제와 대화하실 때 무제가 묻기를, '나는 평생 절을 짓고 보시를 하고 공양을 베풀었는데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자 보리달마께서 대답하시기를, '무공덕(無功德)'이라 하셨것이 공(功)이요, 바른 마음이 덕(德)이다.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밖으로 공경을 실천한다. 만약 너희가 모든 사람을 밝혀 주지만 자아(自我)를 끊지 못하면 자신의 공덕은 없다. 자신의 본성이 잘못되면 법신의 공덕은 없다. 계속되는 생각 속에 덕행이 있고 바른 마음이 있다면, 공덕은 가벼이 여겨지지 않고 수행은 항상 공경받는다. 스스로 수행함이 공이요, 마음으로 실천함이 덕이다. 공덕은 마음에서 나오며, 복과 공덕은 다르다. 무제가 바른 이치를 몰랐던 것이지 보리달마가 틀린 것이 아니다."

자사가 절하고 물었다.

"제자는 어떤 스님들과 신도들이 아미타불을 의며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자의 의심을 풀어 주십시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자사여, 설명할테니 잘 들으라. 세존께서 사위성에서 서방세계를 설하심은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법이었으며, 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극락세계는 멀지 않다'고 하셨다. 미혹된 사람은 부처님을 의지하여 다른 세계에 태어나려 하고, 깨달은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불국토도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다.

위의 글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불교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요. 내가 당신을 노행자의 성품으로 혜능대사의 깨침으로 생각하였던 것이 정말 어리석었소. 당신은 정말 태우거사(泰愚居士)가 아닌가요. 부끄럽소. 정말 참괴하시오.

의술의 神, 仁山 김일훈 선생이 남긴 건강장수법. 난치병·불치병 휘어잡는 책

화제의 新刊

김윤세의 신토불이건강

日刊스포츠 인기리 연재분 마침내 출간

신토불이건강의 비조 仁山 김일훈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던져준 의인이 있었다. 신의(神醫)仁山 김일훈(1909~1992). 선생은 생전에 그의 인술로 죽음의 구덕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불리어졌다. 타고난 의학적 천재성으로 어린 시절부터 믿기지 않을 구료의 신화를 남겼던 인산 선생은 일찍이 「신약(神藥)」이라는 불멸의 대저술을 통해 현대병과의 싸움을 선포하였다. 이 책이 출간되자 선생이 기거하던 삼봉산 초막에는 죽음의 그림자를 딛 이들이 수도없이 몰려들어 마치 난치병 환자들의 종착역을 방불케 했고, 이때 병을 고친 이들의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제 선생은 가고 없지만 그가 남긴 의론은 난치병 불치병 정복의 한줄기 빛이 되고 있다. 「김윤세의 신토불이건강」은 선생의 차남이 그의 의론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인산 김일훈(1909~1992)

16세때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투신, 모화산부대원으로 항일전투에 참가했다. 일제에 쫓겨 20여년 동안 백두산, 묘향산 등지를 전전하며 자연물의 약리작용을 깨치고 병명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 신의로 이름을 떨쳤다. 타계할 때까지 돈 받지 않고 병자를 치료하였으며, 숱한 암 백혈병 환자를 살려내 의학계를 놀라게 했다. 「救世神方」, 「우주와 神奧」, 「神奧」, 「神藥本草」 등 대저술을 통해 심오한 의학적 경지를 펼쳤다.



「김윤세의 신토불이건강」에 나온 14가지 건강요법

사문◇ 신토불이건강이란 무엇인가
사문◇ 인산 김일훈 선생은 어떤 분인가
1. 원기회복 암치료 神方 마늘요법
2. 갖은 중독 풀어주는 명태요법
3. 화독(火毒) 다스리는 오이요법
4. 당뇨병 다스리는 쥐눈이콩요법
5. 폐를 다쳤을 때 홍화씨요법
6. 간질환 다스리는 다슬기요법
7. 호흡기병 神方 호두기름요법
8. 폐 기관지병 치료하는 토종무요법
9. 냉병 다스리는 생강감초탕요법
10. 체내 독성 해독하는 돼지요법
11. 난치병 치료 神方 유황오리요법
12. 자연치유력 높이는 신약김치요법
13. 난치병 최후의 처방 인산쑥뜸요법
14. 갖은 질병 예방 치료하는 죽염요법



필자 김윤세

공해독으로부터 내몸 지키는 책

인산 김일훈 선생의 처님으로, 선생으로부터 의론을 전수받아 그 맥을 잇고 있다. 토종식품회사인 인산기를 설립하여 선생의 발명품인 죽염을 비롯, 각종 토종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민의약」「시시춘추」등의 건강잡지를 발행하였으며 지금은 월간 「신토불이건강」의 발행인으로 있다. 「동시열전」, 「병 주는 법 약주는 법」, 「신의 김일훈」, 「죽염요법」 등의 책을 집필하였다. '신토불이건강법'의 보급을 위해 인산의학재단 설립을 준비중이다.

날이 갈수록 천태만상의 병마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데도 사람들은 의료기관에만 몸을 내맡긴 채 건강에 관한 의무를 포기하고 있다. 의료사업이 때로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건강을 무조건 돈으로만 때우려는 이 답답한 세상에 속시원한 처방을 제시한 책.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다. 병이 있으면 그 약도 주변에 반드시 있다. 병은 자연의 힘을 빌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우리 한국인의 체질에 걸맞는 토종 동식물의 약성을 이용하여 난치병이고 불치병이고 정복하는 것이 신토불이건강학이다."
-저자의 서문 중에서-

필자 김윤세선생은 월간「신토불이 건강」도 발행합니다. 정기구독 하시면 언제든지 건강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호 주요기사
- 당뇨는 몸에 청로온가
- 관절염의 치료법
- 쑥뜸이야기



구독연회비:3만원
736-3171

김윤세의 신토불이건강 / 김윤세 지음 / 신국판 264면 / 광제원 퍼냄 / 값 6,000원

출판기념 건강 강연회
"불치병은 없다"

이 책의 저자 김윤세 선생님을 모시고 난치병 불치병을 몰아내고 건강장수하는 방법을 듣습니다. 강연 중 독자님들의 건강상담도 받습니다.
일시/95. 11. 21(화) 오후 7시~9시 · 장소/한국일보대강당 · 문의/736-3171(전화로 참가신청 하십시오) ●참가비는 없습니다.


◇이기영원장


◇하라미 노루교수


◇송찬룡교수


◇강영계교수

"일체중생의 자유 원효의 道"

한국불교硏 '고전에 나타난 도' 학술회의

노·장에선 살아있는 생명의 자리 의미

물질문명의 풍요속에서 정신적 지표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동서양의 고전에 나타난 도(道)는 어떤 의미를 제시하고 있을까.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기영)은 지난 18일 타워호텔에서 '고전에 나타난 도의 의미'를 주제로 95 국제불교학술회의를 가졌다.

이날 이기영박사는 '원효의 저술에 나타난 도의 의미'란 발표문을 통해 "원효의 도는 중생의 마음의 길이요 일심(一心)의 길"이라며 "중생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가고, 다시 그 마음으로 마음의 길을 노니는 대자유의 삶이 원효의 도"라고 말했다. 이박사는 또 "과정과 방편으로서의 도, 근원과 목표로서의 도는 중생이 사는 곳(處處)과 중생과 더불어 하는 일(事事) 모두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라마끼 노리또시(荒牧 典俊) 경도대교수는 '북위의 충신 고윤(高允)의 불교사상에 대하여'란 논문에서 고윤(390~487)이 남긴 문학작품 〈녹원부(鹿苑賦)〉 등의 자료를 통해 중국고대불교에 있어서의 도와 법(法)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조명했다. 아라마끼교수에 따르면 "운강(雲岡)석굴의 조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던 고윤의 불교사상은 △대승경전의 독송 △성실론(成實論)에 근거한 지관행(止觀行)의 실천 △노사나불, 천불을 관하는 관불삼매(觀佛三昧) 수행 등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의 도'를 발표한 송항룡 성균관대교수는 "노·장의 도는 살아있는 생명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살아서 존재하는 자연'(지금 있는 그대로의 세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라 미노루(原實) 동경대교수와 강영계 건국대교수는 '인도고전에 있어서의 리타(Rta)와 다르마' '희랍고전과 성서에 있어서의 로고스(Logos)'를 각각 발표했다.

전통·현대교과 조화
지도·평가 체계 일원화 "급한 불"

佛發研 세미나 '21세기 승가교육제도의 개혁방향'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선교육후득도(先敎育後得度)제도를 중심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승가교육제도의 개혁방향을 논의한 학술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사진〉

지난 13일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월탄)이 소피텔앰버서더호텔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승가교육제도의 개혁방향'을 주제로 연 이번 학술세미나는 현 승가교육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제도개혁 방안, 21세기 한국사회에 있어서 교역자(敎役者)의 역할 등을 조명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은 "승려가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불교문화를 창조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승가교육제도가 법계(法階)제도와 연관을 지어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를 위해 "일정한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게 하고, 법계를 받지 않은 승려에게는 모든 종무직에 종사할 수 없는 제도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 △행자교육과정을 대학교육수준으로 향상시켜 승가대학 4년 졸업시에 사미·사미니계를 줄 것과 △지방승가대학(강원)을 전문화시켜 강원을 졸업해야만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동국대는 전문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토론에 나선 법산스님(동국대교수)은 조계종 법계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사찰의 인력난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홍선스님(중앙승가대교수)은 승가교육의 이상과 현실사이의 갈등을 분석하면서 승가교육의 구체적 방안으로 통일교육제를 제시했다. 이 통일교육제는 행자로 출가 입산하여 구족계를 받을 때까지의 전과정을 일관된 교육기간으로 하고 교육내용·지도·감독·평가를 조계종 교육원의 교육정책의 시행 관리 아래 둔다는 것이다. 즉 사미, 사집(四集)과정(대중시봉과 큰방생활 등 전통교육은 필수), 율원, 기초선원, 중앙승가대학의 모든 교육과정과 미래승가상의 충족조건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과목도 포함해 전과정을 과목화하고 과목이수를 학점화하여 교육원에서 일괄 관리·통제한다는 제도이다.

현해스님 대학수준 행자교육·법계제도 연계돼야

홍선스님 전과정 교육원서 관리 '통일교육제' 제시

이에앞서 윤원철 서울대교수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교역자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교역자의 양성과정에서 전통적인 구도(求道)교육에 덧붙여 현대적 교과과정이 포함된 교육의 시행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법산스님 혜총스님(동국대 석림동문회장) 박선영교수(동국대) 류승무교수(중앙승가대) 등이 나서 전통교육과 시대상황에 맞는 교양교육의 조화를 통한 승가교육제도의 개혁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재경 기자

성문사등 한국최초 절터 위치 추정


◇이불란사 절터로 추정되는 만주 집안의 石柱건물지. 당간지주로 추정되는 석주가 보인다.

문명대교수 논문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인 고구려의 성문사(省門寺)와 이불란사(伊佛蘭寺)의 위치를 추정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논문은 고구려·발해학술연구위원회(회장 문명대)가 창립기념으로 지난 18일 타워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고구려 문화학술대회'에서 문명대 동국대교수가 발표한 '고구려 초창 불교사원과 불교미술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그것.

문교수는 〈삼국유사〉 〈해동고승전〉 〈삼국사기〉 등의 사료검토와 국내성 동문 밖 5백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대자(東臺子)건물지와 석주(石柱)건물지(集安 남쪽 5백미터 지점) 등의 답사를 통해 이 두곳이 성문사와 이불란사의 절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교수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동대자건물지의 불상석대좌(石臺座)로 추정되는 석좌(石座)와 목탑 찰주석당간(刹柱石幢干), 연화문수막새와 당초문·귀면문수막새 △석주건물지의 당간지주로 추정되는 석주 등을 들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수용된 때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이지만 절이 처음으로 세워진 것은 이보다 3년후인 소수림왕 5년(375)의 일이었다. 처음 세워진 사찰은 성문사와 이불란사였고 순도(順道)와 아도(阿道)스님이 각각 주석했다고 문헌은 전하고 있지만 이 두 절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문교수는 "장천(長川) 1호벽화 가운데 불예배도(佛禮拜圖)와 기타 불보살, 천인상들의 벽화는 당시 불교미술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뿐 아니라 사원의 불교벽화 연구에 절대적인 기준작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구려·발해유적을 집중 발굴·보존 연구하게 될 고구려·발해학술연구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창립된 고구려·발해사관련 순수민간학술단체이다.

제사때 절을 몇번해야 하는지

문 그동안 유교식 제사를 모시다가 불교식으로 바꾸었는데 절을 할 때마다 몇번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세번도 했다가 때로는 두번 반도 했다가 그러는데 일배만 해도 되는 것인지요.

〈임찬우·서울 용산구 갈월동〉

답 마음이 중요하지 이 몸 움직거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몸은 마음을 따르는 것인데 바쁘면 바쁜 사정에 따라서, 시간여유가 있다싶으면 여유있게 하면 됩니다.

일배만해도 그 일배가 삼배, 사배가 될 수도 있고 1천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삼천배를 올리는 마음으로 일배를 했다면 그 일배가 삼천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숭배할 신처럼 느껴져

문 찬불가를 부르다보면 부처님을 숭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마치 다른 종교에서 신을 생각하듯이 부처님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바깥 형상으로 찾아서는 안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잘못된 느낌이 아닌지요.

〈이청시·포천군 일동면〉

답 다섯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해야 정상적인 손이지요? 본래 부처로 태어났는데 어찌 부처 생각이 안나겠습니까.

조성해 놓은 형상을 부처라고 보지 마시고… 그 옛날 그 시절에 난 분도 바로 지금의 여러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바로 여러분이 부처이고 중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처생각이 안나겠습니까. 수시로 부처생각도 나고 조상생각도 나고 아버지생각, 아내생각, 자식생각도 나고 친구생각도 나고…그렇게 때때로 바뀌면서 생각나는 겁요. 그렇다고 부처생각 나는 것과 하찮은 생각 나는 게 따로따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다 한군데서, 부처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개의치 마세요.

자성부처를 때때로 잊을 때가 있어요

문 평소에 일을 할 때에도 늘 '이렇게 하는게 자성부처의 나툼이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잊어버리고 그냥 일에만 파묻힙니다. 근기가 낮아서 그런 것일까요.

〈우제경·충북 진천군 이월면〉

답 늘 그렇게 관하다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공부가 끊겼다고 생각치마세요.

그냥 시공을 주름잡고 보면 아침에 했다가 저녁나절에 다시 생각이 났다해도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냐? 그런거 없습니다. 발을 뗀 자리와 발을 놓는 자리가 둘이 아니니 마음의 축지법이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능히 익어서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덜 익어서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아주 농익어서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 나면 이 또한 자성부처가 하는 일이지 하다가도 생각이 안 나서 잊고지냈다고 '아하 내가 그만 끊어 먹었구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끊어지는게 아닙니다. 삼천년 전과 오늘이 둘이 아닙니다. 이 말뜻이 뭔지 잘 살펴보세요. 그동안 수차례나 설명아닌 설명을 했더랬습니다.

마음으로 미국·흑성도 본다는데

문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마음으로는 미국도 가볼수 있고 다른 흑성도 가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직장이나 제 친구집 같은 곳은 이미 알고 기억하니까 그것을 되돌려 보는 것일텐데 정말로 앉아서 미국도 흑성도 눈으로 보듯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김주봉·서울 서초구 방배동〉

답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념하시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마음공부를 해라, 그래서 내 마음의 선장과 현재의 나가 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보는 사이없이 볼 수 있고 듣는 사이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상대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알아야 형형색색 모든 종류와 같이 응할 수 있습니다.

일체는 공체요 공심이요 공생이요 함께 돌아가고 있으니 반야줄을 잡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절로 알게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나온 구멍을 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야줄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안다해도 50%, 반쪽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외계의 앞선 과학문명(?) 활용하려면

문 어느 책을 보니까 지금 우주엔 우리 지구보다 과학문명이 훨씬 앞선 혹성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의 기술을 지구에서 끌어다 쓸 수는 없는지요.

〈전봉철·서울 강남구 논현동〉

답 마음으로 자재로이 운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이 문명세계는 정신계를 소홀히 하고 물질계로만 치달으니까 복잡다단하기만 할뿐 도리를 알아서 세련되게 꾸려가지를 못합니다.

실은 문명세계란 다른게 아니라 정신적인 면이 계발된 세계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이 문명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정신분야에 더 발전이 있어야 과학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과학자들 중에 심안이 조금 열려서, 그건 왜냐하면 전생에 배운게 앙금처럼 남아있어 눈이 조금 틘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의 과학문명을 이끌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희망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국씨전영양소
전국 광역시단위 총판 및 시도지역 대리점 모집

확실한 성공 사업의 지름길로 초대합니다

■유통업자 ■기존 다이어트 아이템 취급자 ■사업체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분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는 분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자하여 만든 제품.

부산경남총판
(051) 818-0337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영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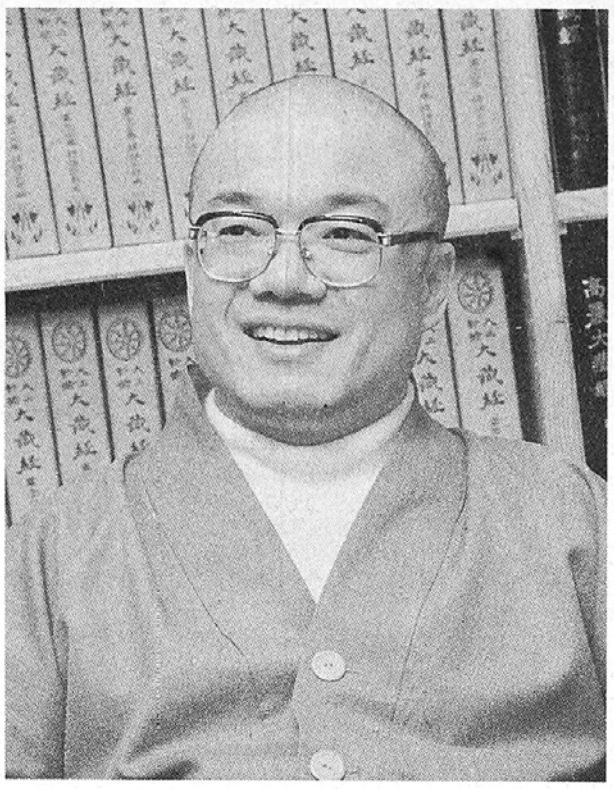
정 우 무 역
전화:(02) 929-02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

"절은 수행·사회복지 공간돼야"

동양최대 능인사회복지관 세운 지 광 스님

수 요 인터뷰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이 동양최대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했다.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모습을 드러낸 능인복지관은 규모나 시설면에서 복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세계적 수준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에 불교계가 뒤지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능인복지관은 불교복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불사를 마치고 24일 열리는 개관식 준비에 여념이 없는 능인선원 원장 지광스님을 능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났다.

시대따라 불교역할 변화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을 축하합니다. 4년전 불교뿐 아니라 사회복지계의 주목속에 첫삽을 뜬후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감회가 어떤지요.

▲수행자에게 마(魔)는 수행을 도와주는 훌륭한 도반입니다.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있어 수많은 사회적 제도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7만명의 능인불자들은 수행의 마음으로 한발한발 지나왔습니다. 되돌아 보니 한치도 흐트러짐없이 정진해온 능인불자들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능인선원은 신도가 늘면서 새로운 집을 필요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도들이 원하는 것은 격을 갖춘 사찰이었을 텐데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절은 이고득락(離苦得樂)하는 공간입니다. 절에가면 마음이 편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환희의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현대에는 절에도 서비스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절 자체가 모두 봉사하는 공간이 되었을 때 불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사찰등 각종 종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이 거대한데 비해 사용하는 시간은 일요일등 특정일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입니다. 귀중한 땅과 건물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능인선원은 종교계의 본격적인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수행과 사회복지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복지관을 마련했습니다.

-능인복지관은 지상 3층 지하 5층 연건평 3천6백평에 이르는 초대형 건물입니다. 복지관의 시설 또한 최신형으로 복지사업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능인선원이 출범된지 8년이란 짧은 시간에 이러한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땅에 불심이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불심을 일깨우기 위한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인류가 낳은 최고의 수행자이면서 위대한 교사이지 않습니까. 능인선원은 4개월 과정의 능인불교학교를 운영했고 불자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소양과 기초지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신심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능인복지관 건립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9월에 개학한 20기 능인불교학교에는 무려 3천명의 학인이 입학했습니다. 그동안 졸업한 학인이 3만여명입니다. 이들이 부처님과 하나되는 기도를 하는데 어찌 복지관 건립불사가 원만회향되지 않겠습니까.

7만 능인가족 보리심 '원만회향' 원동력

교양대 소양교육도 큰힘… '1사찰 1복지시설운동' 확산필요

-사회는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정신적 방황과 소외된 그늘이 늘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종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계는 그동안 사회복지에 소홀했던것이 사실입니다. 불교계가 펼쳐야 할 사회복지 가운데 능인복지관이 펼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은 외부의 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지원으로 운영만 맡으면 창의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불교계가 펼치는 사회복지는 철저하게 사찰의 수입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불교계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불교사회복지입니다. 따라서 1사찰 1복지시설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라 하면 모두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질 높은 문화복지 수요가 대단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도심원으로 개발돼 중산층이 밀집돼 있는 강남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부의 편재로 인한 그릇된 소비풍조의 만연과 윤리의식, 생활자세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능인복지관은 강남지역 주민들의 정신계도에 힘을 기울여 고소득층의 사회복지 및 문화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부대중이 모두 포교사

-스님은 한국불교계에서 포교의 신기원을 이룩한 독보적 존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1980년 소위 언론통폐합 당시 해직기자로 뜻한바 있어 출가한 이후 누구보다 먼저 도심포교를 펼쳐왔는데 능인선원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선방에서 화두에 들다가 도심속에서도 선공부를 할수있다는 확신으로 86년 서울 서초동 상가에 작은 방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능인선원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산중에만 있다보니 대중들과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8개월간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아 신문을 살필이 뒤졌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니 부처님말씀을 전하는 방편이 보였던것입니다.

-당시만해도 도심속에서 포교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모험에 가까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곳곳에서 포교당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직접 대중포교에 뛰어드는 스님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심포교를 시작하는 포교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닙니다. 철저한 수행자가 곧 훌륭한 포교사입니다. 또한 포교는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루어 집니다. 혼자 잘났다고 나서면 따르는 이가 없습니다. 사부대중이 혼연일치가 되었을때 부처님법은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능인복지관은 신도들이 재정 조직 관리등 일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하고 있어 오히려 신도들에 비해 제가 편합니다.

-능인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이 살아있기에 능인복지관의 앞날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는 승려가 된 것을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것이 제가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교육이 있기에 오늘의 능인복지관이 건립되었듯이 앞으로도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종주국으로서 부족함없는 불교교육자 배출을 위해 대학교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이내에 설립할 것 입니다. 또한 영상사업을 발전시켜 포교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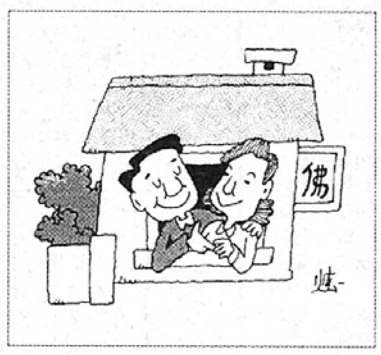
나의 수행일기

하재웅 〈대구교사불자회장〉·下



"사리사욕 버리겠다" 항상 서원

기독교 신자였던 아내 개종 '나란히 백팔참회'



언젠가 '승만경' 강의를 듣다가 그때까지 자리(自利)에만 급급하던 생활을 참회하게 되었다. 그 후로는 나 개인만의 이익이나 영달을 위한 일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우선 학년초 교내인사 때나 학교간 전보 인사 때에 소위 경합이 심한 학년이나 학교는 희망하지 않았다. 주위에서는 가끔 '등신'같은 짓만 한다고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등신'을 바보 천치 정도로 알고 하는 말이지만, 나는 속으로 '참으로 내가 등신불(等身佛)만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또 보살의 바라밀행 강의를 듣고 '내게 보시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無財七施가 있음을 알고 당장 실행하기로 했다. 따뜻한 눈길, 밝은 미소, 부드러운 말, 넉넉한 마음으로 주위를 대하니 거기가 바로 극락이 되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기막힌 진실을 체험하게 됐다. 주위의 사람들과 가르치는 아이들이 차차 부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니 어찌 잘나고 앞선 이만 눈에 뜨이겠는가?

면 빠지지 않던 아내가 몇주일째 말없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었다. 궁금히 여겨 불어 보았더니 개종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아내는 그동안 맡아오던 집사 직분도 사임하고 개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갑자기 아내가 큰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을 느끼며 역시 나보다 큰 그릇이었구나 생각하니 고맙고 반갑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내의 두 손을 잡았다. 이렇게 하여 우리집 종교는 불교로 통합을 보게 되었고 오늘도 나란히 108참회를 계속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변화는 우리 가정에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많이 변했다. 10여년 전만해도 자신이 불자임을 밝히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너도나도 자랑삼아 불자임을 표를 내고 있다. 일대 불교 붐이 일고 있는 듯 하다. 여기에 편승하여 불교관련 호신용 장신구 들이 그 종류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고, 서점마다 불교관련 서적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는 경쟁하듯 대형불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리의 승용차에는 염주가 두세개씩 주렁주렁 걸리고, '불자의 집' 스티커가 불티난다고 한다. 참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현상들 뒤에 또 다른 집단이기주의의 독소가 싹트지나 않을까? 또 우리 불자들의 신행이 지나치게 의식화로 흐르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은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삼세의 일체불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이 '일체유심조'임을 알아야 한다) 씹고 씹고 또 씹으며 되새겨 볼 말씀이다.

나는 오늘도 少欲知足을 신조로 모든 중생이 함께 보리심을 발하기를 서원하면서 아이들에게 인과법을 심어 '네 덕이요, 내 탓입니다'를 함께 실천하려고 애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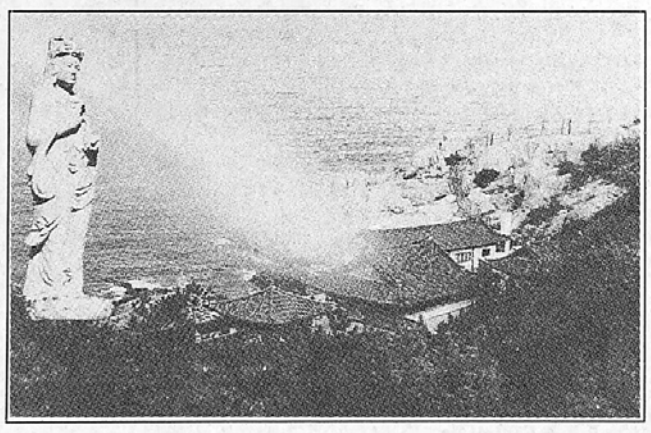
'출세하고 성공한 삶'보다는 '행복한 살림살이'를 위하여 우리모두 일상생활이 곧 기도가 되고 가정과 직장이 곧 기도처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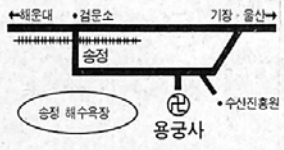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에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 용궁사에서는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물 예약 준비해드림
해운대-용궁사 10분 거리



海東龍宮寺 기도영험도량

용궁사 오시는 길 해운대 달맞이길 → 송정 해수욕장 → 용궁사 (051)722-7744, ① 722-7755

水子靈 천도를 위한

백일기도 (죄업소멸 복덕증장) 봉행

떠도는 어린 넋들을 위하여
수자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수자 영가의 천도를 기원해온 대원사에서는
수자영가의 천도 및 염불행자들의 염불정진을 위한 제5차 백일 미타기도를 봉행합니다.

수자령이란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수자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부터 벗어나며
셋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며
넷째, 불보살의 큰 서원에 의탁하여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 삶의 고통과 죄업에 몸부림치는 이웃들의 다정한 벗이 되어 보살의 삶을 실천하고자 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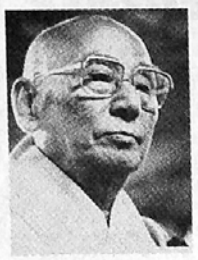
수자영가의 천도를 발원하고 봉행되는 100일 미타기도에 여러분들의 진지한 동참을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① 낙태의 죄업과 구원을 설한 장수멸죄경 ② 기도용 지장보살 사진 ③ 사경과 사불을 위한 반야심경과 지장보살 체본 ④ 백일기도를 위한 일일수행법과 수자영가축원문을 우송해 드립니다.

■ 일 시: 1995년 12월 7일(입재) ~ 1996년 3월 4일(회향)
■ 동참회비: 기도금(3만원) 영가위패 1인당(5천원)
■ 온 라 인: 조흥은행 322-06-008780(석현장)
■ 연 락 처: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 546-840) 전화 (0694) 52-1755 팩스 (0694) 53-0009

지장보궁 염불선 도량 대원사
주지 釋玄藏 합장

'도가 본시 없는데…'

서암스님 회고록 발간



"오로지 내가 승려대회를 금지시켰다는 이유로 '종정 불신임'을 결의하고 말았다.… 일반사회에서나 종교 집단에서나 묵은 힘과 새로운 힘이 부딪칠 때는 정상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된다. …

종정불신임 당시 심정 불교미래상등 밝혀

이래서는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사표를 냈다."

지난해 4월 조계종사태 와중에서 추대 140일만에 종정직을 떠났던 서암스님이 당시의 상황과 심정을 밝힌 회고록〈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겠나〉(도서출판 둥지)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정직을 떠나면서 거제도로 잠적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시비의 마당을 떠나버렸는데도 여러 곳에서 나를 고리로 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같은 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잠적'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암스님의 육성을 작가인 이청씨가 내용별로 단락을 나눠 재구성한 형식의 이 회고록에서 서암스님은 출가인연에서 일본유학, 봉암사선원 개원과 수행 등의 과정을 회고하고 있다. 또 일제하에서 해방, 한국전쟁, 정화, 10·27법난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현장과 한국불교를 의연히 지켜온 선승들의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도 소개했다.

"후생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끈덕지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성화를 이기기 어려웠기 때문"에 책으로 엮었다고 출간이유를 밝힌 서암스님은 현재 삼각산 중흥사를 재건, 대중선원으로 개원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불교, 日고대문화 원류"

홍윤기씨 '한국인이 만든…' 타무라씨 '한국과의…' 동시 출간

"식민시대에 일본이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는 일본 총무청장관 에토의 망언과 해임파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고대문화가 한국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됐다는 내용을 문헌과 유물·유적을 통해 밝힌 두 권의 책이 동시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국보는 나라(奈良)를 중심으로 하는 법륭사 동대사 정창원(正倉院)에 몰려 있다. 한국인이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근대·고대사 문헌에 근거하여 한일고대사를 분석한 홍윤기교수(일본 전수대학 개원역구원)의 최근의 저서 〈한국인이 만든 일본국보〉(문학세계사)의 결론이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일본의 원로불교사학자 타무라 엔쵸(田村圓澄·큐슈대 명예교수)는 〈한국과의 만남〉(민족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스카·하쿠호·나라 불교는 고대 한국불교의 은혜로 형성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실의 발굴이야말로 고대 일본불교사의 당면 임무의 하나가 아닐까." "한국을 먼 나라로 있게 한 것은 근대 일본이 저지른 바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가. 한국을 다시금 '가까운 나라'로 하기 위한 일본인들의 노력은 역사를 바로 보고 그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만이 결실을 볼 수 있다."

〈한국인이 만든 일본국보〉는 홍윤기씨가 일본 사학자들의 논문과 저서들, 고대의 기록과 서적들을 찾아내어 은폐되었던 한일고대사의 사실들을 낱낱히 밝혀 한국문화의 일본 유입과정과 그 실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홍씨는 이를 위해 일본 고서점의 서가를 일일이 뒤지다시피한 힘겨운 과정을 거쳤다.

이 책은 한일고대사를 다룬 지금까지의 책들과는 달리 일본의 권위있는 고대사연구서 및 불교학자 고고학자 미술사가등의 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한다.

특히 일본국보 제1호인 보관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관련, "서울의 덕수궁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전신)에





일본국보 대부분 한국인 솜씨 에토망언속 '문화유입과정' 관심

는 이것(일본국보 1호)과 매우 흡사한 금동미륵상이 있는데, 한국에서 건너온 불상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고 쓴 미술사학자 미즈노 세이치(水野淸一)의 저서 〈법륭사〉를 인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륭사의 금당벽화와 석가여래삼존상, 중궁사의 만다라수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화재가 한국인의 솜씨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한국과의 만남〉에서 타무라교수는 일본의 불교수용과 고대문화의 융성은 한국인에 의해서 였음을 밝힘은 물론 '신공황후의 신라 정벌은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든가 '임진왜란 때의 왜군의 만행'을 임진·정유왜란에 참가했던 일본 승려의〈종군일기〉를 인용해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그는 또 일본불교사의 고전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책들이 "정작 일본에 불교를 전한 한반도에는 무관심하고, 따라서 한국·일본불교 교섭사의 영역은 논의되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일본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한·중·일 3국 관련 내용의 공동연구도 제안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정성운 기자

'승가교육' 제1집 발간

조계종 교육원, 현황점검 발전방향 모색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한 〈승가교육〉이 발행됐다. (조계종 교육원 펴냄).

년간지로 발행될 〈승가교육〉 제1집에는 특집으로 그동안 교육원이 '승가교육의 체계화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의 발제문을 실었다. △승가기본교육의 체계화(법성) △지방 승가대학 교육제도 발전방향과 과제(무관) △조계종단 승가교육의 당면과제(현응) △행자교육의 내용과 개선방안(성우) △특수학교 개설과 관리운영(법산)

또 △지방승가대 역사와 현황 △종단교육기관 현황 △사미·사집과 고서목록 △타종교계 성직자 양성과 재교육 현황 △정부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교육개혁위원회) △현대사회와 세속화 과정(오경환·가톨릭신학대 교수)도 함께 수록했다.

새로나온 책……



▲어둠에서 밝음으로(불교전산연구원 엮음)=부처님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담긴 아함부경전 가운데서 재가불자를 위한 가르침만을 가려뽑아 엮었다.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폐숙바라문에게 12가지 비유로써 사견을 버리게 하는 내용의 폐숙경 등 41경을 소개했다.
〈파계사, 법보시〉



▲죽비의 소리(여연 외 지음)=월간 〈해인〉지에 지난 90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렸던 같은 제목의 글을 모은 칼럼집. 〈해인〉지의 편집위원을 지낸 여연 도각 일관 현응스님 등 열두 스님이 필자로 참여했다. 〈가리온, 5천8백원〉



▲제공스님(이필연 지음)=살아있는 부처라는 별명을 갖고 신출귀몰한 신통력으로 힘없는 자를 도와준중국 남송시기의 전설적인 인물 제공스님의 삶을 그린 장편소설. 전3권
〈진흙소, 각권 6천8백원〉



▲백팔번뇌(심칠성 지음)=저자가 23년 동안 전국의 108사찰을 참배, 답사하며 느낀 정회를 표현한 시조집. 우리나라 명산과 사암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사찰마다의 특성과 교훈을 간략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부다가야, 3천5백원〉

▲속리산(글·박원식 사진·김상훈)='세속을 여읜 산'이라는 뜻을 지닌 속리산의 역사 생김새 명승지 및 법주사의 팔상전 대웅보전등 주요 유물·유적과 문화재를 소개. 기존의 관광안내서와는 달리 역사적·인문학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원사, 3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사찰의 벽화이야기	권 영 한	전원문화사
3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겠나	서 암	둥 지
4	소설 등신불	석 용 산	문학수첩
5	티벳사자의 서	파드마삼바바	정신세계사
6	대지관조선법	김 무 득	운 주 사
7	윤회의 법칙	김 성 규	큰 산
8	방한암 선사	김 호 성	민 족 사
9	선의 세계	고 형 곤	운 주 사
10	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	김형우 외	사찰문화연구원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100선

광덕 '보현행원품 강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이다. 꿈에 어머니는 평소대로 침대 위에 누우셨다가 조금 떠오르더니, 공중에 누운 채로 조였던 나사못을 풀듯 몸이 느슨하게 풀려나가는 형상을 보이셨다. 깜짝 놀라 깨는 순간에 운명하셨다는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는 평소에 사대(四大)가 흩어지는데 내 것이랄 실체가 어디 있는가를 참구하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만고의 진리인 공(空)의 도리를 낱낱이 현현해 보이시고, 딸만 있는 집 맏딸인 내게 아버지와 남은 인연들을 부촉하시고 법답게 열반에 드셨다고 믿는다.

주위에서는 어머니를 관세음보살이라고들 했다. 가진 것이 있으면 그저 나누려고 애쓰신 그 덕화가 늘 주위를 훈훈하게 했던 것이다.

그 무렵, 나의 정신적 스승이시며 언제나 환희로운 불법의 바다로 인도해주시는 불광사 법주이신 광덕스님께서 손수 집필하신 〈보현행원품 강의〉를 보내주셨다.

보현행원품은 화엄경 80권 밖의 별행본으로 화엄경 법문의 총결이라 할 수 있는 화엄사상의 진면목이 아니던가. 더구나 보현행원품은 광대한 공덕을 성취할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경전이 아닌가.

"그때에 보현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수승하신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모든 보살과 선재동자에게 말씀하셨다.…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열가지 넓고 큰 행원을 닦아야 하나니."

보현행원품의 열가지 행원은 어머니가 내게 평생의 삶으로 가르쳐준 것에 다름 아니었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禮敬諸佛), 칭찬여래(稱讚如來), 광수공양(廣修供養), 참회업장(懺悔業障),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요(隨喜功德), 청전법륜(請轉法輪), 청불주세(請佛住世), 상수불학(常隨佛學), 항순중생(恒順衆生), 열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普皆廻向)하는 것이니라."

주고 또 주고 마지막에는 사대까지도 아낌과 미련없이 버리는 도리, 그때마다 주는 마음, 버리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은 우리의 의식세계인 마음자리를 더욱 넓혀가며 자재롭게 해준다. 오히려 크게 얻는 도리, 불사의 진정한 '회향의 도리'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윤 용 숙
〈여성문제연구회장〉

열가지 행원 회향도리 일깨워 뜻 새길수록 마음자리 넓어져

대대로 불자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인생을 고뇌하지도 않고 종교적 갈등도 없이 처음부터 부처님의 인연바다에서 살게 하신 수승한 복덕을 생각하면 오매불망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의 정법을 호지하고 보현행자로서 보살의 길을 가는 '회향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나의 삶이 조금의 복덕이라도 된다면 그것은 모두 어머니가 내게 베푼 덕화이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보현행원품의 가르침인 열가지 행원이다.

보현행원품은 나의 노래요 길이다. 보현보살의 덕화가 온누리에 보현의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맺어 진정 이 땅이 바로 불국토이길 두손 모아 합장한다.

불을가득, 법향가득

항상 길 떠나는 마음,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하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싣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질관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문화계소식

'절제된 욕망' 수묵으로 표현

송수남 大作展 … 28일까지 공평아트센터

'무딘 쟁기로 일궈나가는 밭갈이 같이 덤덤하면서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기 확인'

미술평론가 오수광씨는 친구인 화가 송수남씨의 작품을 이렇게 평하고 있다. 수묵화의 길을 고집스레 걷고 있는 송수남씨가 지난 15일~28일까지의 일정으로 공평아트센터에서 대작들을 내놓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묵화의 기본은 주제와 간결이 주는 미학에서 시작된다"는 송씨는 이번 전시에서도 어김없이 절제된 욕망들을 수묵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또 최근 화보집 〈한국화의 길〉과 에세이집 〈고향에 두고 온 자연〉을 펴내기도 했다.

동방불교대 졸업작품전

동방불교대학 불교미술과 졸업생들의 졸업작품전이 20일~26일까지 서초동 다보성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작품전에는 전통불화와 창작불화로 나뉘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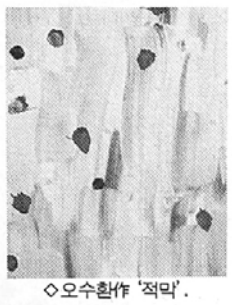


◇송수남作 '붓의 놀림'.

무의식의 침묵 화폭에 담아

오수환씨 개인전 … 25일까지 가나화랑

자신의 그림세계를 무의식과 침묵으로 보여주는 오수환씨(서울여대교수)가 14번째 개인전을 서울 관훈동 가나화랑에서 갖고 있다(11~25일). 아크릴, 유채 등으로 캔버스 가득 적막한 마음을 담은 '적막' 시리즈들이 주를 이룬 이 전시회에서 관람자들은 무의식 속에서 분출된 역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역동성은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무(無)의 세계로 통하고 있다. 특히 '공(空)의 정신적 현실'로 해석되는 '곡신(谷神)' 시리즈는 형태의 거부가 다다르는 침묵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수환作 '적막'.

강행복씨 禪판화 '日나들이'

禪의 정신을 판화로 표현해 온 강행복씨가 지난 13일~22일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스페이스갤러리에서 갖고 있다.

강씨는 초대전 형식의 이번 전시에서 'Gate Gate Paragate' 등 선불교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작품들을 내놓아 일본 화단과 관람객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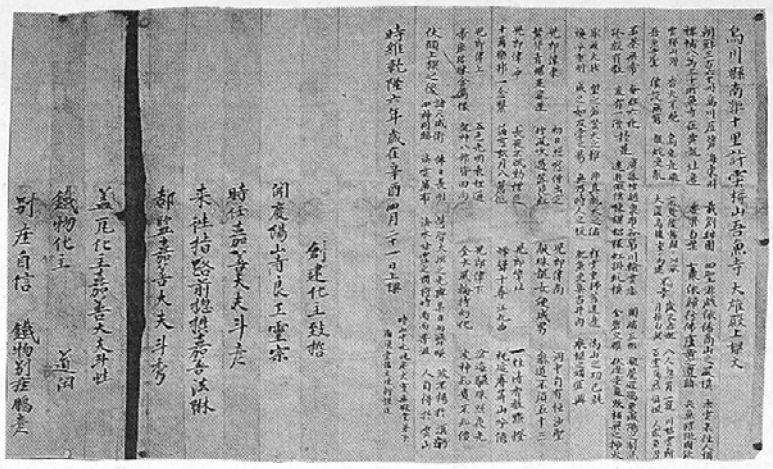
'우리얼 밝히는…' 사진공개강좌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의 뿌리와 실체를 연구하고 사진영상으로 기록하는 사진동호회 '우리 얼 밝히는 사람들'이 첫 공개강좌를 마련한다.

복지회관 기금마련 20~26일 서예전

부산 불교복지회관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서예전이 20일부터 26일까지 부산건축사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석주스님(칠보사 조실)의 서예품을 비롯 중진작가 40여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오어사 대웅전 대들보 위에서 발견된 18세기 중엽의 상량문.

"18C중엽 전국사찰수 8만3천"

오어사 대웅전 보수과정 상량문 발견…사찰·고을 수 밝혀

신라고찰 오어사(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의 현존 대웅전이 2백54년 전인 영조17년(1741년)에 중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포항시가 대웅전 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9일 대들보 위의 상량문을 발견함으로 알려졌다. 이 상량문은 효헌스님이 작성한 것으로 중건 당시 전국에는 3백60곳의 고을이 있으며 사찰수는 8만3천여 이른다고 적혀있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웅전을 중건하고 상량문을 쓴 효헌스님은 무화당스님의 제자로 당호가 효계당이라 표기돼 있다. 전지크기의 이 상량문에서는 또 이 절의 창건 당시(신라 진평왕때) 이름이 '항사사(恒沙寺)'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어사란 이름이 붙여진 연유에 대한 설화도 기록돼 있다.

영조 17년에 중건된 이 대웅전은 5년전인 영조 12년에 불에 탔다는 기록이 '임란때도 무사했다'는 글귀와 함께 적혀 있다. 또 '4성(四聖)이 머물렀던 곳'이란 표현은 자장·원효·혜공·의상이 이 절과 인연이 있었다는 현전 사적들을 뒷받침 하기도 한다.

원효대사의 삿갓이 소장돼 있는 오어사는 앞의 저수지와 홍계폭포, 기암절벽 등 풍경이 빼어난 곳이기도 하다. 상량문이 발견된 대웅전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88호로 지정돼 있다.

포항시는 발견된 상량문의 원본은 오어사에 보관케 했으며 복사해 경북도청에 보고한 후 판독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이 상량문의 판독을 불교계나 사학계 학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한학을 잘하는 공무원중의 한 사람에게 맡겼다"고 밝히고 있어 판독의 정확성과 공신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임연태 기자

영산재 장엄무대 '볼 기회'

동희스님등 공연 … 12월 3일 국립극장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당시의 광경을 환희의 춤과 음악으로 상징화한 것이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50호) 의식이다.

'1일 권공 3일 영산'이라는 말로 이 의식의 방대한 규모를 표현하고 있듯 영산재는 소요시간이나 그 의미면에서 매우 큰 불교의 전통의식이다. 구음으로 전해 온 영산재의 소리들을 악보화 하려는 움직임이 젊은 전수자들에 의해 보이고 있으며 율동과 연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이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기류 속에서 영산재를 무대화한 영산대작법 공연이 다음달 3일 오후 4시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동희스님

당대의 어장 송암스님으로부터 40여년간 의식을 전수받은 동희스님이 영산재의 진수를 선보일 이 무대는 영산재범음연구회가 마련했다. 송암스님(중요인간문화재 50호) 구해스님(준인간문화재)이 특별출연하고 김영동(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이애주(서울대교수) 민연옥(상명여대교수)씨와 범음대학스님 6명이 찬조출연, 무대를 한층 장엄하게 된다.

동희스님은 이날 무대에서 영산재의 15가지 주요대목을 공연한다. 도량을 돌며 잠든 대자연을 일깨우는 도량석으로 시작 인성, 기경, 옹호게, 가영, 명바라, 복청게, 천수바라, 도량게, 헌좌게, 법고, 향화게, 향수나열, 사다라니, 축원화청 등이 그것.

해방둥이 동희스님이 광복 50주년을 맞아 펼치는 이 무대의 연출은 불교방송 박용기 위원이 맡았다.

종교간 '이해·화합의 場'

'95 종교인미술제, 내달 1일 예술의전당

제5회 대한민국 종교인 미술전이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종교간의 이해와 화합을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으로 구현시킨다는 취지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불교·천주교·개신교·원불교·천도교 작가들의 작품 70여점이 소개된다. 또 특별전 형태로 각 종교의 작고작가들의 유작도 전시한다.

특히 올해 종교인 미술전에서는 종교건축전이 함께 열리게 돼 각 종교의 건축 양식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미술전에 참여하는 불교측 작가는 회화부문의 송영방 전영화 이왈종 손연칠 오경환 장상의씨 등과 조각부문의 류종민 김영원 전수천 이상배 조승환 진철문씨 등이다.

이 행사는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고 95 대한민국 종교미술인전 추진위원회가 주최한다.

운주사 홍보 아이디어 다채

송원전문대 산업디자인연구소 세미나서

화순 운주사의 관광홍보 방안이 다채롭게 제시됐다.

광주 송원전문대 부설 산업디자인 연구소(소장 이윤수)의 개소기념 '운주사 관광개발을 위한 디자인 제안' 세미나가 지난 10일 무등산관광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윤수교수는 '운주사 관광홍보물 중 인쇄매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교수는 "운주사의 불상과 석탑 등을 소재로한 포스터·브로슈어, 관광등선별 의미가 부여된 리플릿, 입장티켓용 소형 캘린더 등 인쇄물을 제작하고 전국 관광업소나 공항 등에 배포할 외국인용 홍보물의 제작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운주사 관광민예품 개발에 관한 소고'를 발표한 손영일교수는 "나염을 이용한 소품디자인, 도자기를 이용한 장신구, 목재를 이용한 소품 등의 관광 민예품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심시심 〈37〉

백옥경보다 나은 금강산

金剛影入半空搖 (금강영입반공요) 금강산 그림자 반공에 솟아 흔들리니
遊客先愁滑石橋 (유객선수활석교) 나그네는 우선 미끄러운 돌다리 걱정
蕭寺飄香風折桂 (소사표향풍절계) 산사의 나부끼는 향기, 바람 월계수 꺾고
桃源種藥雨肥苗 (도원종약우비묘) 도원에 심은 약초, 비에 싹 살찌다
俯臨海底龍猜近 (부림해저룡시근) 바다 밑 굽어보면 용이 가까이 온다 시기하고,
高步峯頭月不遙 (고보봉두월불요) 걸어 오른 높은 봉우리 달이 멀지 않다
天上帝京雖白玉 (천상제경수백옥) 하늘나라 제석궁이 아무리 백옥이라도
玆山方彼未會饒 (자산방피미증요) 이 산과 비교하여 더 풍요롭지도 못하리

윗 시는 기암(奇巖)선사의 시이다. 대사의 행적에 대하여는 자세히 전하는 것이 없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대사의 문집인 기암집의 서문에 서산대사의 적통이라 함에서 청허당과의 사제관계이었음을 이해하게 할 뿐이다.

선사의 시는 백 여수가 전하고 있는데 운수의 행각에서 영물적 서경이 돋보인다.

위의 시도 금강산에 산다는 제목으로 쓰여진 시다. 금강산의 높고 아름다움을 간결하게 표현했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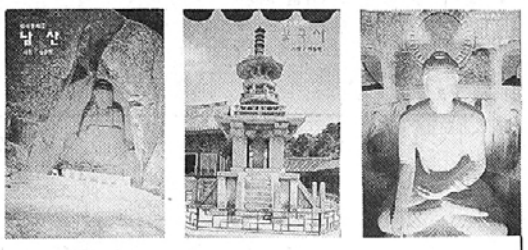
첫 구에서 반공으로 솟아든 산 그림자라 하였으니 그 림자의 본체인 산의 위용을 한층 더 높이 부각시켰다 하겠다. 이 모습을 바라며 오르는 나그네는 우선 오를 길이 걱정된다. 매끄러운 돌다리가 걱정된다. 반공의 높이와 돌다리의 하계로 상하의 대칭을 두면서, 절 허공의 바라봄의 높이는 이 매끄러운 돌다리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현실성을 조화롭게 구성하였다.

산사의 향불은 바람에 불려 위로만 올라 어쩌면 월궁에 있는 계수나무에서 꺾일 것이니,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희망의 구성이라면, 도원선경에 심어 둔 약초에는 비기 내려 살찌우니,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현실의 실체가 오히려 더 삶의 진리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다시 시선을 내려 바다 밑을 조감하노라면, 비밀이 누설될까 두려운 용이 세속의 시선을 시기하고, 다시 걸음을 옮겨 산마루에 오르면 달이 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잡히는 것은 아니다.

이 시는 이렇듯 산하 두 공간의 대립을 정치하게 맞세움으로 해서 금강산이 안고 있는 공간적 위치를 정확히 구성시켰다. 그러고는 이 절묘한 구성은 백옥경이 아무리 구슬 궁정이라 하더라도 이와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경주문화재 엽서 64매 제작

신라문화원, 안장헌씨 사진에 상세한 해설

경주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이 경주 일대의 문화재들을 담은 엽서 64매를 제작했다.

불국사, 시내, 남산, 석굴암, 안강지역 감포지역등 6분야로 나눠 제작한 경주문화재 엽서는 안장헌씨의 사진을 사용했다. 뒷면에는 각 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한글·영어·일어로 표기했다.

오는 24일 오후6시 신라문화원 전시실에서 엽서발간 기념회를 갖는다.

(0561)746-1950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밀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읽는다

B.밧따짜리야 지음
장익 옮김

밀교학 입문

밀교의 근원, 특히 인도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를 비교분석해 놓은 밀교학 입문서이다.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고대문화와 결부시켜 상세히 언급하고 특히 인도교와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해 놓은 원저작 이후 최근까지 30여 년의 연구성에 따른 학계의 다양한 학설을 께 실어 20세기 이후 밀교학 연구의 진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인도의 일상생활과 풍습 및 관습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이며 인간의 정신적 완성과 심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인 밀교,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과 인도의 고대문화, 그 정신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284면/ 값 6,000원

최신간 中論頌研究 ●김인덕 지음/ 양장/ 376면/ 값 12,000원

불광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3300 / 팩시밀리 420-3400

「붓다를 사랑한 가톨릭의사」의 파격적 「삶」사냥

임현담물교에세이 배움

구도자적 닥터에겐 세상의 모든것들 그것이 미니스커트였건, 붓다였건 모두가 스승이었다

불교 산문 미학의 극치!

- 매독, 지방간 등에 얽힌 진한 인간 이야기는 어느새 철학의 향기를 내품고 있었다...
- 원초적 욕설, 브리지트 바르도, 죽은 김일성 등의 질펀한 소재들은 이미 종교세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 손바닥 크기 작은 책에 다름아닌 우주가 담겨 있었다...

4·6판/252쪽/5,800원

조선·동아·한겨레 불교TV 등 유력 언론들은 이렇게 격찬했다

"가톨릭의사가 「삶과 죽음」의 화두로 불교성지 히말라야로 빨려 들어갔다"

불교서적 판매 집계 7·8월 1위 9월 2위

신국판/304쪽/6,000원

임현담구도에세이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

효형출판 TEL:756-0262, 874-0263 FAX:873-8716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36〉

亡名法師息心銘 (망명법사식심명) ②

關爾七竅 閉爾六情 莫縱於色 莫聽於聲
관이칠규 폐이육정 막규어색 막청어성
聞聲者聾 見色者盲
문성자롱 견색자맹
一文一藝 空中小納 一技一能 日下孤燈
일문일예 공중소납 일기일능 일하고등
英賢才藝 是爲愚弊
영현재예 시위우폐

너의 일곱구멍(얼굴의 눈·귀·코·입)을 막고 육정(안이비설신의)을 닫아서 색을 엿보지 말고 소리를 듣지말라.

소리를 듣는 자는 귀가먹고 색을 보는 자는 장님이되니(듣되 듣지 못하고 보되 보지 못함)

(뛰어난) 글재주와 기예는 바람에 날리는 작은 모기에 불과하고 기술과 재능은 태양아래 외로운 등불이라 영웅·현사·재주꾼은 다 어리석고 헛된 것이다.

捨其淳樸 耽溺淫靡 識馬易奔 心猿難制
사기순박 탐닉음려 식마이분 심원낙제
神馳勞役 形必損弊 邪徑終迷 慘途永泥
신기로역 형필손폐 사경종미 수도영니
英賢才能 是曰憯慘 淪胙澆巧 其德不弘
영현재능 시왈혼몽 오조선교 기덕불홍
名厚行薄 其高速崩 塗舒秀卷 其用不恒
명후행박 기고속붕 도서오권 기용불항

안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남을 억누르면 밖으로 원한과 미움만 짓는다.

혹 입으로 떠벌리고 혹 글을지어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를 종요롭게 하면 또한 매우 추한 일이다.

범부들은 이를 좋은 일이라 하나 성인들은 이를 허물이라 이른다.

칭찬받고 좋아하는 것은 잠시요 슬픔과 근심은 길다.

미혹에 빠지면 수도의 길 영원히 막혀

교만한 마음 품고 남 대하면 미움싹터

순박함(천진함의 뜻)을 버리고 여색과 겉볼 아름다움에 빠져들면 식마는 날뛰기 십상이고(의식이 말처럼 뜀) 마음 원숭이를 제어키(마음이 원숭이처럼 까불어 댐) 어렵다.

정신이 이렇듯 고달퍼지면 몸도 반드시 망가지나니 삿된 길은 끝내 미혹일 뿐이라 수도의 길은 영원히 막힌다.

영현재능이 다 어둡고 심난한 것이다. 이 더럽고 치졸한 짓을 부러워하고 자랑해 보았자 그 덕은 크지 못하다.

이름은 두터운데 행함이 엷으면 (덕이)높다고 해 보았자 잠시 잠깐에 무너진다.

일이 순조로울 때는 잠시 결치는 듯하다가도(뜻대로 되는듯 하다가) 쇠퇴할 때는 말아들여야(뜻대로 안됨) 하나니 그 공용이 항상 떳떳치 못하다.

遐影長迹 逾走逾劇 端坐樹陰 迹滅影沈
외영외역 유주유극 단좌수음 적멸영침
厭生患老 隨惡隨造 心想若滅 生死長絕
염생환노 수사수조 심상약멸 생사장절
不死不生 無相無名
불사불생 무상무명
一道虛寂 萬物齊平
일도허적 만물제평
何勝何劣 何重何輕
하승하열 하중하경
何貴何賤 何辱何榮
하귀하천 하욕하영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발자취가 두려워 아주 멀리 달아나면 달아날수록 더 좇아온다. 단정히 나무 그늘에 앉으면 (번뇌 망상의)자취도 그림자도 사라지리라.

생을 싫어하고 늙음을 걱정하여 생각따르고 지음을 따르나니 한 생각 사라지면 생사가 길이 끊어진다.

죽지도 나지도 않으며 모양도 이름도 없느니라.

한 도가(마음길이) 텅비고 고요하여 만물이 평등하면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으며 무엇이 무겁고 무엇이 가벼우며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하며 무엇이 욕되고 무엇이 영화로우랴.

內懷憍恣 外致怨憎
내회교벌 외치원증
惑談於口 或書於手 要人令譽 亦孔之醜
혹담어구 혹서어수 요인령예 역공지추
凡謂之吉 聖謂之咎
범위지길 성위지구
賞歎暫時 悲憂長久
상완잠시 비우장구

澄天慌淨 皦日惠明
징천괴정 교일참명
安夫坐嶺 固彼金城
안부대령 고피금성
敬賂賢哲 斯道利貞
경이현철 사도이정

맑은 하늘은 깨끗함을 부끄러워하고 밝은 해는 빛을 부끄러워 한다(맑은 하늘은 스스로 깨끗하다 뽐내지 않고 밝은 해는 스스로 밝다고 으시대지 않는다)

(고로 그 텅비고 고요하면) 편안하기가 무릇 태산준령같고 견고하기가 저 금성철벽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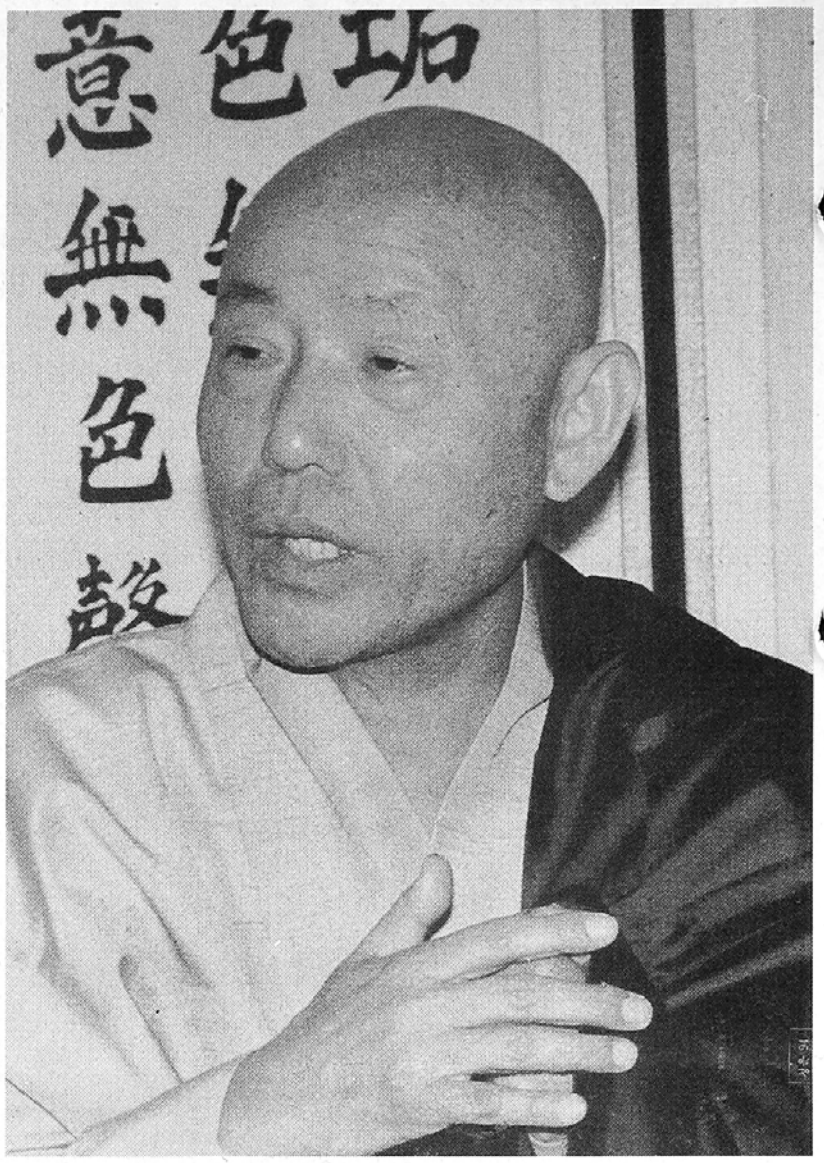
공경히(그대들) 어질고 슬기로운 이에게 붙이노니 이 도(불교)는 이롭고 바르니라. **龍眼**

★ 지상법석

"부처 이루는 다섯가지 길

모든 악을 짓지 말아라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 마음을 청정히 하여 깨달아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치심 이니라.

도문스님 〈대각사 조실〉



약력
- 1935년 전북 남원 生
- 62년 동산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 분황사 마곡사 백양사 내장사 대각사주지 역임
- 현재 인도성지를 비롯 불교성지 복원에 주력
- 저서로 〈불교인의 365일〉등 다수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불교입니다.

불교 오대수행은 불사 수행·주력 수행·간경 수행·염불 수행·참선 수행입니다.

첫째로 불사수행이란 성불인연(成佛因緣)을 짓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출가·재가를 막론하고 구경의 목표를 불사에 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연법이든 근본법이든 간에 소중한 것이 있다면 복덕·자비·지혜입니다.

불사는 복으로 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전(福田)에 대하여 설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복전은 경전(敬田) 은전(恩田) 비전(悲田)인 삼복전(三福田)이 있습니다.

경전불사 수행은 불·법·승 삼종삼보전에 귀의하여 공경·공양·예배·찬탄·참회·발원하는 것이 복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은전불사수행은 부모와 스승 어른과 국가와 중생의 은혜를 갚는 것이 곧 복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비전불사수행은 자비로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힘 닿는 범위내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어려운 모든 불행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동정해서 구제하여 주면 한량없는 복의 과보를 받으므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돋아나는데 비유하여 복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생과 사가 있구나
마음이 없으면 생·사도 없는 것이구나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지었음이니
나는 부처님의 노래 조사의 춤 추리라

둘째로 주력수행은 진언다라니의 작용인 것입니다. 진언은 진실한 말이고 다라니는 총지·능지·능차 인 바 선법(善法)을 모두 지녀서 흩어져 잃어버리지 않게 하므로 총지(總持) 능지(能持)라 하고 악법을 막아서 일어나지 않게 하므로 능차(能遮)라 하는 것입니다.

다라니 힘의 작용을 네가지로 나누어 말하니 법다라니 의다라니 주다라니인 다라니입니다. 법다라니(法陀羅尼)는 부처님의 교법을 듣고 잘 기억해 지니고 잊지 않음인 것입니다. 의(義)다라니는 모든 법의 한량없는 것을 모두 지녀서 잊지 않음인 것입니다. 주(呪)다라니는 선정(禪定)에 의하여 비밀어(祕密語)로써 부사의 신묘한 영험이 있음인 것입니다. 다음은 인(忍)다라니이니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달은 경지에 안주하여 있으면서 인지(忍持)하여 잃지 않음인 것입니다.

다라니는 한량이 없고 가이 없는 뜻을 지니고 있어 모든 악한 법을 버리고 한량없는 착한 법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통으로 다라니라 함은 두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혜 혹은 삼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잊지 않고 뜻을 분별하며 우주의 실상에 계합하여 수 많은 법문을 보존하여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문(梵文)을 번역하지 않고 음 그대로 염송하는 것입니다. 이를 번역하지 않는 이유는 원문에 전체 뜻이 한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과 비밀어라하여 다른 이에게 비밀히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다라니를 염송하는 이는 한량없는 말을 들어도 잊지 아니하며 끝없는 이치를 알아 학문의 해득을 돕고 모든 장애를 벗어나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등 많은 공덕이 있으므로 다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법문의 짧은 귀절을 진언 또는 주(呪)라 하고 긴 귀절로 된 것을 다라니 또는 대주(大呪)라 하는 것입니다.

진언밀교에서 가지기도(加持祈禱)하는 작법인 수법(修法)에는 식재(息災) 증익(增益) 경애(敬愛) 조복(調伏)의 4종류가 있습니다. 혹 구소(狗召)를 더하여 5종으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개인을 위하여 가지기도를 할때에 기도하는 경우에 따라 각 절대 신앙의 본존을 달리하며 단을 만들어 호마를 태우며 진언 다라니를 염송하고 손으로 결인(結印)을 하며 마음으로 그 본존의 성상(聖像)을 관상하는 주력수행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혜제일이신 문수사리보살의 눈이요
행원이 제일이신 보현보살의 발이라
사람이 오고 가면 그 인사가 분명하니
불법을 알고자하는가 선지식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셋째로 간경수행은 경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문을 소리없이 눈으로 보고

"극락세계" 꼭 가고자 원하는 분만 모십니다

자기가 걸치고 다니는 누더기 옷 속에 감추어진 값진 보물을 알지도 못한 채 계속 구걸하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로 내세워 가르치는 법화경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지금의 우리들을 직접 나무라고 계시는 듯한 교훈입니다.

뉴코아 백화점(고속터미널 앞) 지하 1층 한국 삼베 특설 코너에서 순수한 우리 한국 삼베로 **'극락왕생 옷'**(삼베 수의)을 만들어 인연을 맺어 드리고 있는 것은 이미 신문·방송을 통해 전국 어디에나 널리 알려졌습니다.

뉴코아 백화점에 오시면 언제든지 극락왕생 옷과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큰일을 당하고서야 병원으로 장의사로 허겁지겁 초상을 치루어내던 장의 문화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백화점의 용단에 감사 드립니다.

올 윤팔월에는 삼베 수의를 직접 마련하셨거나 아랫사람에게서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틀림 없이 사시는 동안 무병장수하실 것입니다.

특히 치매증(늙어서 발생하기 쉬운 노망기) 없이 밝게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는 윤팔월만 마련해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윤달이 들어 있는 해는 일년 중 어느 때라도 장만하시면 그 효험이 똑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에 묶여 있는 불교, 법당에 머물고 있는 불교, 종단에 매달려 있는 불교에서 홀쩍 벗어나 율사도·법사도·선사도 아닌 야승을 자처하며 제3장소인 백화점에서 대심 스님인 제가 직접 붓글씨로 가훈, 교훈, 사훈 등을 써 드리고 있는 일은 이미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극락왕생 옷과 인연을 맺으시는 분들께는 비석에 새길 글씨도 지어서 써 드리며 부처님 염불명호도 갖추어 써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사시다가 떠나실 때는 꼭 차려 입고 돌아가시던 수의의 삼베가 바로 누더기 속에 감추어진 값진 우리 민족의 보물이라면 얼핏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 삼베 국보삼 그룹**에서 석유보다도 지하자원 그 무엇보다도 더 값진 21세기 만능의 산업소재가 바로 **삼베**라는 것을 입증시켜냈습니다만 아직도 실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그토록 힘들여 개발해 온 기술을 오죽했으면 극락왕생 옷이라는 이름으로 삼베 수의를 제작했겠습니까? 극락 세계도 죽고 난 뒤라야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까닭인지 극락 세계 왕생의 길을 열어 드린다고 장담을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기가 걸치고 있는 누더기 옷 속에 감추어진 값진 보물을 모르는 채 구걸하고 사는 것을 삶의 방법으로 삼겠지만 그 값진 보물을 꺼내 손 안에 쥐었을 때부터는 전개되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극락 세계는 물질로써 최상의 장엄을 갖춘 안락의 세계입니다.

뉴코아 백화점 지하 1층으로 오셔서 **극락세계 왕생길을 예약하시고 누더기 옷 속의 보물을 각자 꺼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이미 수의를 마련하신 분들에게는 접수를 받아 극락왕생의 특별한 법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극락세계는 꼭 가고자 원하는 분에게만 왕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만 일 왕 생 발 원 법 회 회주 **대 심** 합장
한국 삼베 국보삼 그룹 회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0-2** 뉴코아백화점
대표 **(02) 530-5000** / 직통 **(02) 530-5050**

지상법석 ★

닦는 순간 환히 열리니…"

읽어 나아가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간경수행 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간경수행은 소리내어 경문을 읽는 풍경(諷經)과 독경(讀經)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독경 예배등을 부지런히 닦는 근행(勤行)까지 포함해서 간경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장·율장·논장인 삼장 십이분교(十二分敎)의 대장경 간경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입멸하신 뒤 그 교법이 흩어지지 않게하기 위하여 부처님 제자들이 저마다 들은 것을 외워 모으고 서로 검토 논의하여 잘못된 것은 교정하여 기억을 새롭게 하여서 교법을 편집한 불사를 결집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1결집은 석가여래부처님이 멸도하시던 해에 왕사성 나자기르 칠엽굴에서 마하 가섭존자를 상좌로 하여 5백비구가 모여 경장과 율장인 이장의 내용을 결집하였습니다. 이를 오백결집 또는 상좌결집이라고 하는데 이는 마갈타국 아사세대왕의 외호로 이룩된 것입니다. 이 결집에 참가하지 못한 비구들이 역시 아사세대왕의 외호에 의하여 따로 칠엽굴 밖에서 바사가존자를 중심으로 결집한 것을 굴외결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결집은 부처님 멸도하신 후 1백년경에 광엄성 비사리에서 야사비구의 발기로 장로 7백비구가 회합하고 계율에 관한 십사비법(十事非法)을 조사하여 바르게 하였습니다. 7백결집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제3결집은 부처님 멸도하신후 2백30여년 아쇼카대왕의 외호아래 제수비구가 상좌가 되어 1천명의 비구들이 화씨성 파타리자에 모여 경장·율장·논장인 삼장을 확정한 것입니다. 1천결집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1차 2차의 결집은 염송결집이고 이 3차의 결집이 문자결집의 시초가 된것입니다.

제4결집은 부처님이 멸도하신 6백년경에 대월지국의 가니색가 대왕의 외호아래 가습미라에서 5백명의 비구를 소집하여 협존자 세우존자를 상좌로 하여 그 때에 유행하던 경장·율장·논장인 삼장을 모아 놓고 주석을 붙이는 불사를 한 것입니다.

한문문화권에서 최초로 이룩된 대장경 조성불사는 중국 북송조의 태조대왕에 의해 시작하여 개보(開寶) 5년인 서기 972년에 태종 태평 흥국 개보(太宗太平興國開寶) 8년인 서기 983년에 완성했으니 북송관판대장경(北宋官版大藏經)입니다.

송조의 관판대장경 조성 소식을 들은 고려 조정에서는 제7대 목종대왕 7년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관본대장경을 구해 오고 고려에 있던 전 후이장(前後二藏)과 요나라 장본을 교합(校合)하여 새기고져 고려 제8대 현종대왕으로 부터 시작하여 덕종대왕 정종대왕 문종대왕 순종대왕 선종대왕의 6대에 이어 60여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의 경주는 물론이요 문종대왕의 왕자 의천대각국사의 지극한 정성으로 이 고려대장경 초판 불사가 완성되어 대구 부인사에 봉안 하였으니 고려대장경 초본 판각은 1076부 5048권이 있습니다.

이 때는 강대한 요제국 거란족의 위협이 격증하였으므로 고려국민의 한결같은 호국호법의 염원으로 대장경이 이룩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50여년쯤 경과하여 제23대 고종대왕때에 이르러 당시의 세계 최대 강국인 징기스칸의 원(元)나라 몽고족이 동서정벌의 엄청난 군사력으로 동유럽 아시아 대륙을 정복하고 그여세를 몰아서 고려에도 대거 침입하게되자 고종대왕 19년인 서기 1232년에 대구 부인사의 초조 대장경판을 불질러 태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몽고군의 40년 끈질긴 공세 앞에 불굴 불요의 무서운 저항을 지속하면서도 몽고군에 의해 소실된 고려대장경 재조성을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전시하의 고려 임시 수도였던 강화부성의 남쪽 8리 해안에 선원사를 이룩하고 그 선원사 경내에 간경도감을 설치한 다음 16년동안 호국 호법의 원력과 신심의 정성을 다 기울여 고려대장경 재조성의 대작불사를 이룩하였으니 호국 호법의 성보이며, 법보이자 고려 임시수도 강화 선원사에서 조선왕조 초기에 한양 서대문 밖 지천사에 이운되었다가 다시 합천 가야산 해인사에 이운 소장한 고려대장경은 전639함이고 1514부이며 6805권이 있습니다.

가야산 해인사의 고려 대장경 판식이 세월이 오래됨에 대부분의 경판 판각의 철장식이 떨어져 나갔었을 뿐 만 아니라 많은 자획이 마멸한 것을 본 석가여래부촉법 제68세 용성 진종조사께서는 43세시에 경판 보수불사의 원을 세우고 임(林)상궁에게 수판불사를 부탁하여 임상궁의 주선으로 2만량의 국고금이 영달되었고 제26대 고종황제는 불사의 원만한 성취를 위해 담당관 임(林)씨와 강대련화상을 파견 하였으며 김성업을 별감으로 해인사 사중에서 임명한 현장 감독은 경명, 영해 두분 스님이었습니다. 용성 진종조사는 근세의 역경의 초조가 되시었다. 조계종 종립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는 고려대장경을 모본으로 하여 역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성 진종조사의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지성화인 생활지침이 온누리에 퍼져 나아가 간경수행의 메아리가 울려야 하겠습니다.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멸함이 생사라 하는구나
일념이 곧 이 한량없는 겁이라
일념이 없으니 무량겁이 없도다
생각이 없고 말이 없음이 무학도라 하는구나

넷째로 염불수행은 대강 이러합니다. 염불은 대체로 십념(十念)과 사종염불(四種念佛)을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십념의 첫째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생각하는 염불과 둘째로 수행하는 법칙인 인연법 근본법 미묘법인 부처님의 교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염법입니다. 셋째는 부처님의 교법을 받들어 수행하고 교화하는 보살승 연각승 성문승인 스님네의 공덕을 생각하여 잊지 아니하는 염승(念僧)입니다. 넷째는 악을 그치고 선을 닦아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염계(念戒)이며 다섯째는 어리석은자에게 법을 보시하고 두려운자에게 무외보시하고 가난한자에게 재물보시하며 보시는 탐착하는 마음을 여의고 청정한 공덕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염시(念施)입니다.

여섯째는 하늘나라의 과보가 청정하여 일체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염천(念天)입니다. 일곱째는 내쉬고 들이쉬는 숨을 '나' '무' '불' 명호로 숨을 헤아리면서 그 장단을 알고 망상을 제거하는 데에만 생각을 두는 염출입식(念出入息)이며 여덟째는 고요히 수행처에서 온갖 번다한 인연을 멀리하고 불도를 닦는 것을 생각하는 염휴식(念休息)입니다.

아홉째는 이몸은 인연으로 화합하여 생긴것으로 진실하고 상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염신(念身)이며 우리네 인생은 꿈과 꼭두각시와 물거품과 그림자와 이슬과 번개와 아지랑이와 물속의 달그림자와 거울속의 영상과 같아서 언제 어디에서 어느 때에 죽음이 닥쳐올지 짐작할 수 없음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염사(念死)가 바로 십념의 대요인 것입니다.

4종염불의 첫째는 칭명(稱名) 염불이니 입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관상(觀像) 염불이니 부처님의 성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상(觀像)염불이니 자비 복덕 지혜가 구족하신 상호를 관상하는 것입니다. 실상(實想)명불이니 자신과 일체 만유의 진실한 자성인 법신을 관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부처님의 몸이요
산과 물은 조사의 마음이로다
산은 이 산이요 물은 이 물이로다
새는 산에서 울고기는 물에서 노는구나

다섯째로 참선수행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선(禪)은 생각하여 닦는 사유수(思惟修)이다. 고요히 생각하는 정려(精慮)입니다.

마음은 육단심 연려심 집기심 견실심이 있습니다. 육단심(肉團心)은 육체적 생각에서 우러나는 마음이고 연려심(緣慮心)은 보고 듣는데서 분별하여 내는 마음이며 집기심(集起心)은 굳어 버린 뜻과 물들어 버린 마음인데 망상을 내는 깊은 속 마음입니다. 견실심(堅實心)은 본심으로써 부처님의 성품과 같은 불성입니다. 참선수행은 부처님의 성품과 같은 불성 곧 견실심을 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이 서로 보지 아니하고
조사님과 조사님이 서로 전하지 아니하도다
부처님과 조사님의 혜명법은
곧 정한 바 법이 있음이 없느니라

나와 남을 함께 구하는 복밭 일구기 → 佛事수행
呪力수행 → 악법막아 착한 법지키는 진언 독송
지혜의 문자 읽을수록 눈이 열리니 → 看經수행
念佛수행 → 한 생각이 청정해야 법계도 맑아져
분별하는 마음 버리면 부처의 자리 → 參禪수행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47

양 형 진

무자성과 진화

'콩심은데 콩나고' 영원불멸 믿는 창조론
'모든것 변한다' 제행무상 진화론적 사고

인간은 대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내 앞에 놓여있는 책상을 보면서 이것은 누가 만들었는가 혹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그것이 인조물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알 수 있지만, 그러한 질문이 생명에 관한 것이 되면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인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왔겠지만, 생명의 근원에 관한 과학적인 설명을 얻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생명의 근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우선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인조물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생명을 만들어 냈다는 가설이 될 것이다. 이에 의하면 최초의 인간도 역시 우리와 같은 형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설화는 많은 경우 이러한 창조를 가능케 한 우주의 원리라든가 아니면 궁극의 인격체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상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이른바 진화론이라는 것이 대두되면서 그동안 창조론에 묶여 있던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인류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창조론과 진화론, 그것은 우선 생명의 근원에 관한 문제를 전혀 다른 입장에서 바라본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다. 만약 이 명제가 절대적으로 참이어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한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궁극적인 조상도 틀림없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한 인간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창조자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진화론은 이와는 반대되는 입장에 선다. 진화론은 우리의 먼 조상이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는 위의 우리 속담도 근사적으로만 참일 뿐 절대적으로 참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몇 천년 혹은 몇 만년이라는 시간의 영역에서 보면 위의 속담이 참일 수도 있지만, 보다 장구한 시간에서의 변화를 본다면 결코 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우리 주변에서 관찰되는 (콩 심은 데 콩이 난다는) 상황을 어디까지 참인 것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의 유한한 관찰 경험을 근거로 하여 얻은 명제를 (때로는 심지어 우주의 시작인 시점까지) 무한 확장하여 주장한 것이 창조론이라면, 이렇게 얻은 귀납적 명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볼 수 있다.

생명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대비시켜 보자. 내 앞에 수평하게 놓여 있는 책상 위에 물 한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물방울은 정지하여 있게 된다. 이 때 그 책상은 반드시 반듯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명제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한한 관찰 경험에서 얻은 명제는 무한한 공간에서 참일 수 없다. 지구가 둥글므로, 물방울이 움직이지 않는 아주 큰 책상은 지구의 표면 모습과 같이 둥근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한한 관찰 경험에서 얻은 명제는 모두 이와 유사한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물도 불변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셨다. 이것이 제법무아요 제행무상이다. 이 원리는 하나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도 물론 성립하는 것이지만 전우주를 통시적으로 고찰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지며, 그 한 예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흐름 즉 유전의 경우에서도 역시 성립한다. 콩 심은 데 콩난다는 관찰에 의하면 콩의 속성은 하나의 개체가 죽더라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시야를 확대하여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진화론은 보여 준다. 생명을 시간의 영역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관찰한다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겨 나고 유기물에서 원시적인 생명이 생겨나며 이 원시생명에서 무수히 다양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에 어떤 자성이 있어서 하나의 개체가 죽더라도 그 속성은 영원히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창조론은 사물에 자성이 있는 줄 알고 그에 집착하는 데서 생기는 그릇된 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2천만에 깨달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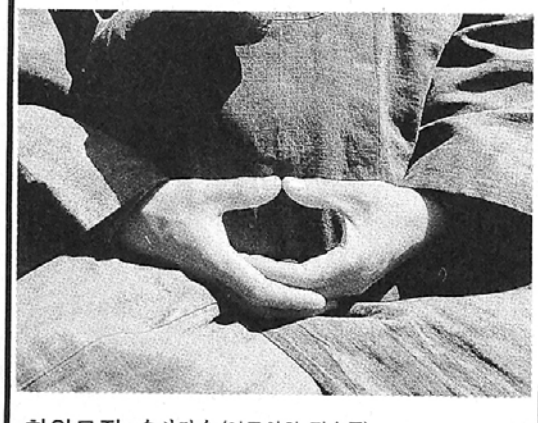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전화 0416-55-0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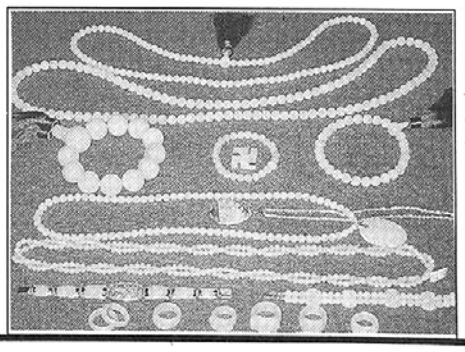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 (02) 735-6795 · 6796 / FAX (02) 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춘천백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신경통 고혈압 당뇨 심장병 불면증 등 난치병을 치유
머리는 맑아지며 의식 집중력과 판단력 증대, 피로감 감소 놀라운 컨디션으로
釋과 기도에 좋습니다
眞氣



* 氣방석 등 생활용품 다양
* 眞玉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보도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100%,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8.8%,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백옥제품을 작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혈변지 84%, 혈뇨 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강원타도 두통 · 불면에 「효험」
반지 84% 목걸이 88% 치료효과
세계서 유일하게 채취 · 2년 저장기 간직
春川産 白玉성인병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뿌렁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고은 불교 대하소설

산중 타령

"어디서 오는 객승이시오"
"그저 일만이천봉에 들어 오는 길입니다"
"일만이천봉 다 만져보려고?"
"한두개 만져보면 되겠습니다"
"잔소리 작작하고 어서 이리로 들어와
하룻밤을 청하시지…
간드러진 계집이 없는 대신 관세음보살이
수청을 들어 주실터인즉"
표훈사 누각에 올라앉은
보임승의 말에는 뼈가 들어 있었다



〈 53 〉

그들은 더이상 입을 놀려 말잔치이나 할 노릇이 아니라고 서로 내통이라도 한 것처럼 다시 만나자마자 바빠졌던 입을 꾹 다물었다.

그들의 입이 다물어지자 사위가 새삼 적요하였다. 이왕 큰 물소리를 건넌 뒤여서도 더욱 그런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조금 뒤의 쥐어지른 직각의 바위 너설을 감돌아가자 거기에 마치 별건곤(別乾坤)이라도 펼쳐진 듯이 깊숙히 내려앉은 저자거리와도 같은 천연의 공간이 있었다. 거기에 한 고을을 차려도 되겠다.

아니 내금강 일대의 크고 작은 사암들이 있건만 어찌 이런 좋은 공간을 그대로 폐허처럼 방치하고 있는지 몰랐다.

폐허라고 하지만 어찌 그런 곳이 폐허이겠는가. 정작 동쪽으로 솟아오른 대세지봉과 그 한쪽 문수봉 사이에는 마치 선녀가 우의(羽衣)를 너울거리며 날아가는 형국의 우아한 능선이 걸려있었다.

산세도 이런 정감(情感)을 불러 일으키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짐작할 만한 눈에는 그저 지나치지 않게 되었다.

과현이 큰스레 힘을 얻어 한마디 꺼냈다.

"여기다 큰 도량을 짓고 한 세상 사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때였다. 곰보처사가 꾸짖듯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다. "여보 화상! 이미 도량을 마음에 갖춘 이곳에 무슨 도량을 덧씌운다 그 말이오?"

거간이 필요하였던가. 수월이 나서야 하였다. "도량이야 단층보다 층층으로 오르고 올라 층층으로 하늘에 닿아 정녕 수미산도 넘어야 하겠지요."

곰보가 큰 키를 우쭐대며 대꾸를 이었다. "허어 어디 이 세상 허공계에 수미산이 있고 8한8열지옥이 있다는 말이오. 이제 보니 선방에서 졸다가 온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소승(小乘)의 동화(童話)나 중얼거리는 것으로 차 있으니 돼지의 창자에 돼지똥이 차 있음과 무엇이 다르리."

"허허 역시 오늘 나는 금강산 입구에서 도인을 만난 것인지 돼지를 만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부처의 눈을 아직 지니지 못했으니 보이는 부처도 돼지로 보이는 것인가!"

수월의 이 말에 곰보가 더이상 대들지 않았다.

"한번 이겼으면 한번 지는 것이 괄씨를 관에서도 법(法)이지"라는 알쏭달쏭한 푸념 끝에 한 퇴락한 3칸짜리 암자에 이르렀다.

"여기가 내 금강산 토굴이올시다. 찬밥은 수북히 있으니 찬밥으로 먹을까요? 불기운을 넣어 더운 밥으로 먹을까요?"

"화두(話頭)입니까?"

과현이 물었다.

"이미 화두야 개에게나 물려준 터이고 나에게는 화두 하나도 없는 가난뱅이입니다. 그냥 찬밥으로 배를 채우시지요."

말하자면 손님 대접에서 푸대접쪽이 찬밥일 터이다. 곰보는 수월과 과현을 푸대접으로 작정한 것인지 모른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드나들어야하는 후원에서 꺼내온 밥 함지박에 대고 나무수저 셋으로 퍼먹기 시작하였다.

반찬은 단한가지였다. 묵은 백갑치였다. 소금에 숨 죽인 것 말고는 어떤 양념도 치지 않은 것이었다.

"진수성찬입니다."

"그 말씀이 진정이라면 고맙습니다."

"진정이다마다요."

라고 수월이 이제는 곰보에 대한 경계를 풀어버린 채 범상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다.

오후에 접어들어서 먹은 늦은 점심이었다.

"자아 이제 졸음이 올 때인데 졸음대신 걸음을 놓아보시기 바라오."라고 곰보처사가 두사람을 년즈시 떠날 것을 권하였다.

"그렇지요. 이곳이야 찬 밥덩어리 한술이면 되지 낮잠까지 잘 곳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그럼."

"나 돌아서지 않겠소이다. 돌아서면 도인께서는 또 그 싱거운 자취를 감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

수월과 과현은 그 길로 내금강에서 외금강의 가파로운 길을 넘어야 하였다.

그들이 넘은 삼방협(三防峽)이나 철령은 차라리 완만한 곳이었다. 금강산은 어디를 가나 광지보다 다급한 경사나 수직의 곳이 많았다.

벌써부터 목구멍은 더운 단내로 가득해서 서로 말 한마디 나눌 겨를이 없어졌다. 이런 때는 도리어 등에 진 걸망의 무게라도 있어야 오르는 일에 안정감을 주는데 두사람의 괴나리봇짐이야 하잘 나위 없이 가벼이였다.

그들은 표훈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곳 누각에 올라앉은 한가한 보임승(保任僧)이 함끗 이쪽 행색을 눈여겨보는 것이었다.

거리로 보아서는 소리가 매섭게 큰 소리였다. "어디서 오는 객승이시오?"

수월이 의젓하게 대답하였다.

"어디다 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저 일만이천봉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일만이천봉 다 만져보려고?"하고 대번에 반말이었다.

"한두개 만져보면 되겠습니다."

"잔소리 작작하고 어서 이리로 들어와 하룻밤을 청하시지… 여기야 간드러진 계집이 없는 대신 관세음보살이 수청을 들어 주실 터인즉."

말에 뼈가 세워져 들어있었다. 이로부터 두사람은 상대방과 비기거나 겨루는 따위의 수작을 구럭 속에 채운 토끼처럼 가두어 버렸다.

"저 아랫녘 충청도 서산땅에서 오는 길입니다."

도대체 이 노래는 어느 놈이 계워낸 소리인가. 그 노래가 수월의 헐떡이는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었다가 느닷없이 튀어나왔다. 그야말로 그것은 뜻밖의 구토와 다름 없었다.

그의 입에 나온 지광이 운운에 마음이 탁 걸렸다. 꼭 굶은 생선가시가 목구멍에 걸린 것 같았다.

지광이를 저 아래 메마른 폭포의 한 군데에 던져버렸다. 지광이가 사뭇 날개가 돋아나 낮게 날아앉는 것 같았다.

가비야웠다.

과현은 본디 물길에 익숙한 몸이어서인지 이런 가파로운 산길에는 안색이 달라져 있었다. 입은 벌어져 있으나 그 입에서는 거친 숨결만이 바빴다.

이렇게해서 그들이 외금강 표훈사에 이른 것이다. 남이 저무니 끼마귀떼가 몇천 만리로 한 군단(軍團)을 이루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힘차게 건너가는 것이었다.

도중에 공왕 섬기지 말고
지광이 짚고 본고향으로 가거라
(勿於中路空王
策杖還須達本鄕)

노승도 그 말은 눈빛을 쏘아대지 않았다.

"돼 두 다리를 썼겠네 그려. 나도 하도 걸어다녀서 요새는 두 다리를 잘 못쓰는 형편이지… 더구나 방구석에 앉아서 몇10철을 보낸 터라 숫제 앉은뱅이 노릇에 정이 들었어."

"…"

"가서 저쪽 요사채 뒤에 목욕하는데가 있으니 가서 물 데워 때끕재기나 좀 벗기시게."

표훈사 당우는 하나하나가 위풍당당한 것 뿐 아니라 첫째 30여채나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불에 탄 것은 아직 복구되지 않은채인데도 그 정도였던 것이다.

실로 나그네에게는 목욕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었다. 큰 가마솥에 물을 가득히 담고 장작불을 실컷 땐 뒤 그 더운 물에서 피지는 증기로 차츰 열사람도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바가지씩 끼얹는 일이란 여간 아니었다.

보라 그물 뚫고 나온 고기
도리어 물에 잠기는데
길 돌아온 뜻말은
비단굴레 벗어났음이여
(透網金鱗還帶水
回途石馬出新韉)

수월이 짙은 증기 속에서 그 증기에 풋젖은 소리로 맞미디 노래를 흥겹게 불렀다.

이런 수월에게 처음으로 과현이 농을 청하였다. 함께 발가숭이로 녹아들어서 였는지 모른다.

"무욕도에서도 이런 목욕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강을 하는 마당에 무엇때문에 본래면목만 찾으십니까?"

"본래면목이라."

"그냥 좋다! 좋다! 아이구 좋구나! 하는 것이 더 본래면목이 아닙니까?"

"본래면목이라."

"수월스님! 무욕도의 인담스님께서 왜 그렇게 공부가 더딘 줄 아셨나요?"

"무슨 소리인가?"

"그분이 한갓 문자승(文字僧)이고 시를 풀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하(西河)의 시를 금씩하게시리 받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가지… 언제나 아래는 모르고 위만 아는 소승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더러도 아래로 내려오라는 말인가?"

"내려올 아래가 있다면 한번 내려오시지요. 금강산 오르기보다 내려가기가 더 어려운 경계 아니겠습니까?"

"과현수좌! 자네가 오늘 따라 제법 아라한과(阿羅漢果)를 터득한 소리를 하는군. 어찌 반가운 노릇이 아닌가."

"아닙니다. 소승은 우리를 받아들인 그 노승이 아무래도 신계사 회월당이라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그런 사람을 감당할 공부가 새삼 간절한 따름입니다."

"정녕!"

수월이 벌거숭이 알몸을 번쩍 일으켜 세워 한동안 서 있었다. 더운 물에 익은 몸이고 증기 속의 몸이건만 서있는 동안 식기 마련이었다.

그러자 과현이 그런 수월의 서 있는 알몸에 더운 물을 끼얹었다. 한두번이 아니라 몇번이고 되풀이 끼얹는 것이었다.

"지금 과현수좌가 나를 어린 아이로 삼아 목욕시키고 있는가?"

"굳이 어린 아이라면 간난 실달다(悉達多)를 목욕시키는 관불(灌佛)이 옳겠습니다."

"자네 장난이 괜찮네."

이때부터 두사람은 서로 동등한 처지로 되어 그동안 과현이 수월을 섬기며 따르던 사이가 아니게 되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은 몸의 때도 몸의 일부분인지라 다 벗겨내지 않고 남겨둔채 욕실을 나왔다. 수월에게 산중 찬 기운이 베푸는 감기에 걸려 당장 기침이 나오는 것이었다.

노승의 방으로 갔다. 수월이 다짜고짜 물었다. "회월당 도인이십니까?"

노승은 퉁명스러웠다.

"이 사람들아 회월당의 턱주가리에는 다섯치 수염이 있어. 내 턱에 어디 그런 요망한 터럭이 있단말가."



그림 · 조향숙

"회월당 도인이십니까" 목욕을 마친 수월이 다짜고짜 물으니…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간

祈禱 기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I. 나와 가족 · 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VI. 기도안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알려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 · 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해두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쓰여진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I. 큰스님 주변 이야기 / II.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III.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윤회담 / IV.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V.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 49재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신국판 / 4,5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법공양문

72년 초판 발행 이후 수많은 불자들에게 선택되어 읽혀온 책.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하고 정확한 번역으로 새롭게 중보 발간하여 다시 선보였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깊은 맛이 우러나는 책으로 마음의 평화와 공요로움을 안겨다 줄 것이다.

값 5,0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 법문 테이프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법문 !

·큰스님 살아오신 이야기 (테이프 1 · 2)
·마음 · 마음 · 마음 (테이프 3)
·오분향을 이루는 공부 (테이프 4)
·참된 회향 (테이프 5)

5개 1세트 값 10,000원

봄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쉬운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값 5,000원

아운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스님이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발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3 팩스 : (02) 586~9078

병원 법당

'약손' 갈수록 부족



◇병원포교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서는 병실방문과 보시행 등 외에도 다양한 포교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형편이다.

서울대병원등 10여곳 운영
국립재활원 상주스님도 없어

재정·관리체계·인력부족
'아픔나누기' 주력 진정한 전법

병원법당이 제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문제등 보다 구조적인 체계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병원내에 법당이 마련된 곳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모두 10여군데. 그러나 병원법당의 역사가 10여년에 불과하고 병원포교에 나서는 스님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상태다.

법당이 있는 병원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삼성의료원, 중앙병원등의 개인병원과 국립경찰병원, 국립보훈병원, 국립재활원등 특수병원, 서울대병원, 동대경주병원등 일반병원으로 분류된다.

이중 개인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포교의 한계성과 재정문제를 들 수 있다. 단기치료환자가 많아 스님들의 포교를 귀찮게 여기는 환자가 많고, 그러다보니 보시에 의존하는 재정형편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중앙병원의 경우 불광사와 칠보사가, 삼성의료원은 능인선원이 관리 및 지원을 맡고 있으나 이는 자칫 법당 상주스님의 적극적인 활동을 저해할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특수병원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올3월 법당을 개원한 국립재활원은 상주스님마저 없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한달에 두번 법사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여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자나 원생을 위한 포교활동조차 제한을 받고 있을 정도. 더욱이 재정형편은 최악의 상태로 법사스님의 보시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부분이 공무원이나 국가유공자로 장기환자가 많은 국립보훈병원과 국립경찰병원 역시 7평 남짓한 법당과 적은 인력으로 환자들에 대한 포교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다.

또 타종교인이 80%이상인 점과 병원장의 종교적성향 역시 단발적인 시도로 포교효과를 거두기에는 커다란 장애로 꼽히고 있다.

일반병원의 사정은 이보다는 나은 편이나 이들 병원 역시 인력부족으로 포교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 또 적십자 봉사단의 도움을 받고는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비효율적 운영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병원법당 관계자들은 87년 법당문을 연 서울대 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병원법당이 1년에서 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다보니 전문성 결여 및 운영미숙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런 재정적, 구조적 문제점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오히려 불교계 전반에 깔린 병원포교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어느정도 시행착오를 거친만큼 병원포교가 활성화되고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병원포교 협의회구성등 제반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것이 스님들의 주장이다.

병원법당 포교의 선두주자인 은진스님(서울대병원)은 "우선 병원포교에 대한 스님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병원포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보면 큰 사찰과의 연계등 재정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병원법당 상주스님들은 종단의 일정한 지원 및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보훈병원에서 간병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박환희행보살은 '여덟 복전(福田)중에서도 간병의 복전이 으뜸'이라는 범망경의 예를 들며 "환자의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돌보는 보살행이 이루어질 때 참다운 포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스님과 불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이근후 건강칼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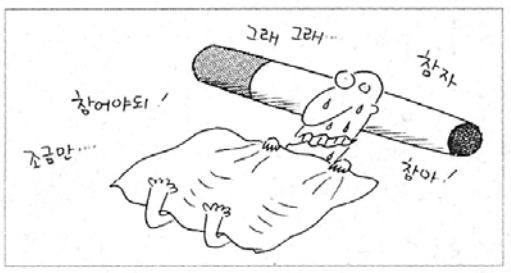
흡연

니코틴 건강 치명적 영향…심리적 의존도 문제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담배갑에 앞뒤로 경고문을 써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담배갑에 경고문이 들어있었으나 그것으로는 흡연인구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더 강력한 경고문을 써넣기로 했다 보다.

내용을 보면 앞면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글귀를 적어야 하고, 뒷면에는 4가지 문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써넣게 하고 있다. '흡연은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흡연은 중풍과 심장병도 일으킵니다'는 등의 문구가 바로 그것이다.

어쨌든 이런 일을 하게 된 목적은 담배의 피해를 줄여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그만큼 담배의 매력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학설이 어떻게 말을 하든간에 담배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사의 정열입니다. 담배없이 살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볼리에르가 했다는 예찬론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의 혐오론을 이렇게 표현한다. "흡연자와의 키스는 재떨이를 핥는 것과 같다."



예찬론이나 혐오론이나 모두 듣기에 따라서는 일리가 있게 들리지만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담배는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니코틴이 우리들의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한동안 정신과에서는 흡연자를 병적상태로 진단하는 기준으로 혈중 니코틴의 양을 가지고 정한적이 있다. 그때의 니코틴 양을 환산해 보면 대개 담배 10개피 정도를 완전히 태우면 발생하는 니코틴의 양이었다. 담배는 니코틴의 양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편처럼 신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의존성이 문제가 된다.

담배를 끊게 되면 담배에 대한 심리적인 갈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난다. 오늘날에 와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 특히 골초들에게는 병이라고 이름 붙는 '질병단위'로서의 고유한 이름이 붙게 된다. '니코틴 관련 장애'란 큰 테두리 안에 '니코틴 의존'과 '니코틴 금단'이란 이름의 진단명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진단이 붙자면 적어도 몇주일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으로 담배를 갑작스럽게 끊었을 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일어난다. 기분이 불쾌해지고 우울해진다. 잠을 못잔다. 자극에 아주 예민하고 쉽게 화를 낸다. 불안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안절부절 못한다. 심박동수가 떨어지고 식욕이 증가하여 체중이 늘게 된다. 이 가운데 4가지 증상만 있어도 당신은 니코틴 금단이란 병명이 붙는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안락의 장 *
즐거움을 먹으면서 살자

이 향 원



화제의 신간
《보문품》의 가르침을 우리의 언어로 새롭게 쓴 생명 법문
관세음보살
보문품강화
普文品講話
법령스님 지음

건강 때문에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여 투병해 온 한 출가인의 수행기

고통스럽고 외롭고 잠시 즐거울 때도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여 자신을 가늠하면서 살아온 수행인의 관세음보살의 영험과 체험을 통해 얻은 신앙의 결정체

신국판/값 8,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옛날과 지금 부적의 결정판!!!
김백만 편저/값 35,000원

관음독송경 시리즈
1. 우리말 금강경(심재열/값 2,000원)
2. 한문 금강반야바라밀경(심재열/값 2,000원)
3. 우리말 불설아미타경(심재열/값 2,000원)
4. 한문 불설아미타경(심재열/값 2,000원)
5. 우리말 천지팔양심주경(이청범/값 2,000원)
6. 한문 불설천지팔양심주경(이청범/값 2,000원)
7. 우리말 예불대참회문(심재열/값 2,000원)
8. 지장보살본원경(동봉/값 6,000원)
9. 원각경 보안보살장·팔양경(경흥/값 2,500원)
10. 천수경(근간)
11. 부모은중경(근간)
12. 관음경(근간)
※법보시물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전화 : 02) 921-8434, 929-3470 팩스 : 02) 929-3470
관음출판사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고형곤 박사의 역작!!
增補版
선의 세계
高亨坤 著
제1권
서양철학과 禪
제2권
한국의 禪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 선교일치의 전통을 밝히고 동양문화의 특색을 이룬 선불교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제3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저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선(禪)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드디어 현대어로 완역
摩訶止觀
大止觀坐禪法
대지관좌선법
전5권
〈마하지관〉은 천태대사가 선수행의 방편을 자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다. 지관법(止觀法)은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편인 동시에 석가세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풍부하게 된 수행방법이다.
天台智者 大師 述
空綠 金無得 註釋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경주 고속철 사상최대 佛寶 훼손 '大法亂'

'남산은 종로통' 천년고도 사라져… 건교 · 문체부안 모두 불교유적 45점

경주는 노천박물관이다. 곳곳에 천년고도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화유적지에 고속철도를 세우려고 한다. 과연 어떤 불교관련 문화재가 피해를 입게되는지 1993년 영남대 박물관이 지표조사한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건교부안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고속철도 경주노선 인근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는 총 1백29점이며 불교관련 문화재는 45점이다. 이가운데 지정문화재는 보물 8, 유형문화재 2, 사적 2곳이 있다.

보물로는 성건동삼광사지 당간지주(127호) 서악동마애석불상(62호) 서악동3층석탑(65호) 효현동 3층석탑(67호) 탑동남윤사지 당간지주(909호) 용장사곡3층석탑(186호) 용장사 석불좌상(187호) 마애여래좌상(913호)이며 유형문화재는 노곡리침식곡석불좌상(112호) 노곡리열암곡석불좌상(113호)이 있다. 또한 사정동흥륜사지(사적15호) 용장리 남산일원(사적311~4호)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고속철에 인접한 불교문화재 가운데 불상, 석탑, 비석, 당간지주등은 진동, 소음, 교통공해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게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노선은 건교부안과 인접하는 구간이 있어 19건의 불교문화재가 중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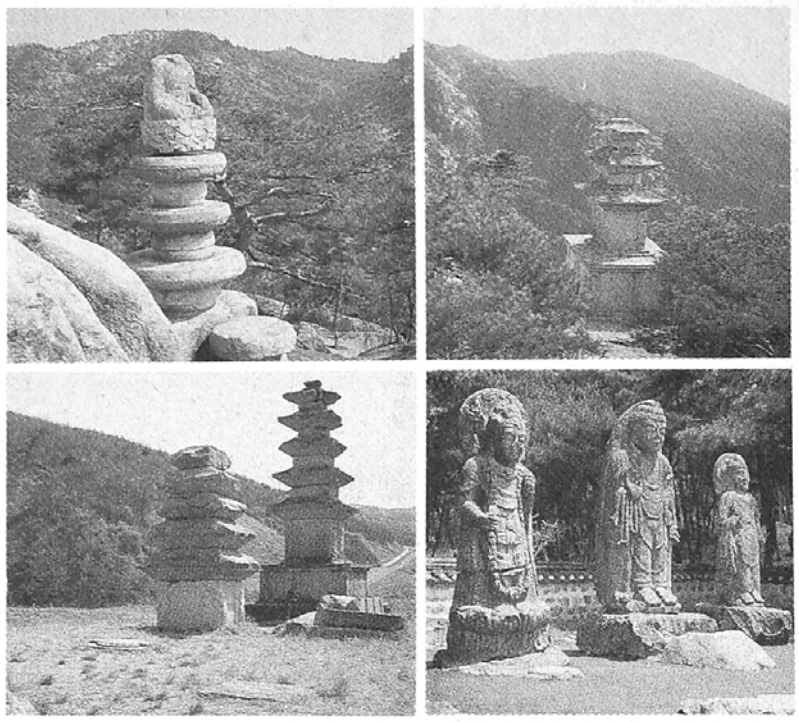
문체부안

한편 건교부가 경주일부구간을 조정하여 내놓은 검토노선은 신라의 성산이라 할 선도산과 남산을 바짝 근접하여 지나가게 되어있어 경주남산의 환경 및 불교문화재의 파괴가 예상된다.

총63건의 문화재 가운데 45건의 불교문화재가 산재해있는 이 노선은 3년전 건교부가 설계한 후 폐기한 것으로 문화계의 반발이 있자 궁여지책으로 문체부가 새로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대부분 불교문화재가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문화재로는 보물 63호인 배동석불입상과 유형문화재 7건이 있다. 송선암마애석불상군(유형문화재 20호) 용장리마애대불입상(〃114호) 백운대마애석불입상(〃206호) 배동마애관음보살상(〃19호) 배동계곡선각여래좌상(〃159호) 배동삼릉육존불상(〃21호) 배동입곡석불두(〃94호)등이 유형문화재이다.

이처럼 문체부가 내놓은 노선은 불교문화재 훼손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안한 문화재' 고속철도의 통과로 경주지역 불교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용장사지 삼륜대좌불상 · 3층석탑 · 선방골 삼존불· 장항리사지 5층석탑.

훼손 왜 불가피한가

고속철도가 문화재에 끼치는 것은 크게 진동과 환경피해다.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경주를 통과하는 차량은 하루 편도 218회, 총 436회가 된다. 이중 경주역에 정차하는 횟수는 60여회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시속 2백70~3백㎞로 경주를 통과 하게 된다.

기존의 국철은 바퀴소음이 주 소음원이나 고속철도는 고속으로인한 속도파가 가장큰 피해를 준다.속도파는 곧 진동과 연결되는 것으로 인접문화재 피해의 주원인이라 할수 있다.

전철 하루 4백36회 진동… 진도 2 해당

역세권 형성땐 성보도시 공해 시달려

특히 고속으로 운행될때 제기되는 공력소음(차체 표면에서 공기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기 동력학적 소음)이 문제다.

국내에서 운행될 프랑스의 TGV고속철이 시속 150㎞로 달릴때 200m밖까지도 70dB의 소음 진동을 준다.(방음벽설치 후 61db).

이것은 지진으로 볼때 진도2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이 200m 밖에서도 몸으로 진동을 느낄수 있고 깜짝놀라게 되며, 창문이 덜컥거리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격기도 했다. 프랑스는 설계 단계에서 주위에 500m이내에는 시설물이 없는 곳으로 TGV노선을 세웠다.

한국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일본은 1964년 신간선 개통이후 소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마련을 강구, 무려 20년만에 해결을 보았다.

고속철로 인한 환경과 경관훼손도 만만치 않다. 장기적으로 볼때, 도시팽창으로 인한 인구과밀로 파생되는 인위적인 문화재 훼손이 더 클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선도산과 남산사이에 역사가 지어질때 연간 6백만명의 관광객과 3백만명의 울산 포항등 주민이 환승하는 역세권이 형성되고 신시가지도 생기게 된다. 이때 국내최대의 불교성지 남산과 신라의 성산인 선도산의 황폐는 명약관화하다. 환승차량의 집결, 오염, 행락객의 쓰레기 공해로 삼존불, 배동석불등 22점의 남산성보가 시장한복판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15m의 고가철도가 경주도심을 끼고 선도산과 남산사이로 지나가게 되면 그자체가 세계 10대문화유적인 경주의 경관 훼손이된다.

佛 문화재 전문가 피샤르 · 포티에씨 견해

"고속철도 경주우회해야 마땅"

"정차땐 기존철도로 도심연결" 권고



◇ 피샤르씨



◇ 포티에씨

"경주와 같은 훌륭한 역사도시에 고속철도를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주 경유가 부득이 하다면 도시에서 거리를 두고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기 위해 방한한 9명의 프랑스국립극동 연구원(EFEO)소속 학자중 세계적인 문화재 복원 전문가인 피에르 피샤르씨(59)와 크리스토퍼 포티에씨(30)는 고속철도의 경주 우회통과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프랑스의 TGV는 기본적으로 도시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차하는 열차는 도시 외곽 10㎞ 정도에서 고속선을 벗어나 도심을 통과하는 일반 열차의 기존선로를 이용해 정차합니다."

피샤르씨와 포티에씨는 고속열차가 도시를 우회하도록 하고 정차시에는 기존의 일반 철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프랑스 기술자들이 도심통과시는 기존철로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한국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피싸르씨와 포티에씨는 유네스코의 위촉을 받아 아시아의 고도(古都) 복원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피사르씨는 75년 대지진으로 많은 유적이 훼손된 미얀마의 옛 수도 파간유적등의 복원에 참여했었다. 불탑유적만도 3천여개에 달하는 파간유적의 복원을 위해 유네스코등은 지난 20여년동안 기술지원과 전문가 양성등에 노력해 왔다.

포티에씨는 92년 캄보디아에서 지난 75년 공산화이래 폐지됐던 EFEO의 연구소를 재개하면서 앙코르의 복원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인터뷰

●고속철 제3수정노선 제안 강 태 호 교 수●



"경주 건천읍에서 화천리를 지나 내남면 아래로 빠지는 경주 서남쪽노선이 문화유적의 보존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동국대 강태호교수(조경학과)는 지난 2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주경실련(창립준비위원장 임배근 동국대교수) 주최 '고속철도 경주통과에 대한 공청회'에 경주경실련 정책위원으로 참석, 도심통과노선과 외곽노선

"공사비덜고 문화유적 보호 유리"

도시 장기발전에도 도움… "적극 홍보 할 터"

대신 새로운 경주노선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었다.

강교수는 "노선의 타당성 · 교통 · 환경 · 기반시설 · 용지보상 · 국철노선이설 및 역사통합문제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3의 노선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교수는 "제3의 노선이 동국대~충효동~북녘들~울산을 지나는 건교부노선(48.5㎞)보다 노선의 총길이가 10.5㎞쯤 짧아 공사비가 경감되고 공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주 신라왕경지역과 선도산 · 남산 · 망산지역을 훨씬 벗어나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가장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역사(驛舍)의 입지도 건천읍이 건교부가 주장하는 북녘들이나 이조리보다도 적합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 이유로 건교부안과는 달리 △건천지역은 평지여서 토공비가 저렴하게 들어가며 △개발가능지역이 5백만평규모로 북녘들(2백50만평)이나 이조리 (1백50만평)보다 넓어 장기적으로 도시확장에 대비하는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건교부의 도심통과노선의 경우 도심에 산재한 문화유적 경관과 땅속 문화재를 크게 해치고 문체부의 외곽노선도 세계최대의 석불보고인 남산자락에 바짝 붙어 통과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강교수는 "경주시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작업을 펴 도심통과노선 철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도심노선 주요 불교문화재

문 화 재 이 름	사 적 유 형
성건동삼광사지당간지주	보물 127호
서악동마애석불상	보물 62호
서악동 3층석탑	보물 65호
효현동 3층석탑	보물 67호
남윤사지 당간지주	보물 909호
용장사곡 3층석탑	보물 186호
용장사 석불좌상	보물 187호
용장리 마애여래좌상	보물 913호
배동 석불입상	보물 63호
석조석가여래좌상	보물 245호
사정동 흥륜사지	사적 15호
용장리 남산일원	사적 311~4호
노곡리 석불좌상	유형문화재 112호
노곡리 열암곡석불좌상	유형문화재 113호
마애석불상군	유형문화재 20호
용장리 마애대불입상	유형문화재 114호
백운대마애석불입상	유형문화재 206호
배동 마애관음보살상	유형문화재 19호
배동 여래좌상	유형문화재 159호
배동 육존불상	유형문화재 21호
배동 입곡석불두	유형문화재 94호
석조관음보살입상	유형문화재 205호

정성으로 올린 한잔의 차,
기쁨과 여유를 함께 마십니다

▶ 녹수청산은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성어린 손길에서 맛있는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

다원 녹수청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 736-3782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특집 —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③

민족문화 말살하는 문맹정책 "바로 잡자"

서명자 명단

31,514명 서명 (1995년 11월 15일 현재)

대전법동종합사회복지관

황의태 채종훈 황석민 서현민 김종서 김기은 방동우
박인식 강현석 최명옥 안동화 김재수 유문희 김덕수
심규숙 이명자 한상수 김옥달 이현주 박진형 송용분
김태석 최우석 김종성 지희용 서기영 이문자 리일성
임정순 선희찬 노미진 최병용 최은옥 류지현 이승주
임종낙 김해위 나현진 김태욱 이진영 임유슈 이우원
김순환 김영미 김원정 유길영 하욱단 조인현 유선욱
정성룡 박단주 이은정 강현성 김희진 박영식 박갑서
이재우 염영호 이민숙 김지현 김원희 이현주
권미선 박진형 박팥순 김천지 신효순 김은식 엄상용
김진아 박경원 조성우 주근희 김성민 이설덕 윤민복
권영빈 이병일 권순철 이인홍 라경숙 이오향 신문철
정철수 정만규 정미정 송혁수 임상용 오이무 최문화
김순경 정낙애 정경순 이창석 이지영 임연수 김무정
조한신 김영선 박효식 김문태 박정수 이광열 박정수
이양엽 김선관 정은택 박정신 박노찬 이효숙 김진선
김기운 원인자 박운성 정은아 박미란 문나연 조영순
고재술 우은자 송영자 김유진 임범진 노은정 김동호
박선희 복혜선 원선화 김문배 박종선 장실순 전은하
이종환 김소연 김성태 이혜수 박연진 김말현 김영규
박용성 김곰희 신영희 단봉한 김해룡 현은수 박복심
강덕효 김영호 윤영일 성현경 한경훈 홍명희 박순태
정일규 노재학 최선숙 지경숙 임의승 이충구 이준우
최형일 송영아 김선영 조해영 전덕자 김경구 김병근
김기열 고효석 고승연 유충식 이희숙 조세연 이희균
박순상 김정자 짝승철 한민희 김기태 김말분 민인숙
손광식 김두환 임옥복 이선욱 조현희 김미현 이혜정
성근영 박순금 김면호 조현숙 권조현 최효순 이영주
이윤세 윤병권 이정숙 명노후 김현숙 최의열 임영희
황경순 윤재숙 김기석 이경자 박진형 이혜경 박정희
작경희 주미정 박정아 박성식 명화순 이은주 조순영
이창진 장윤상 주홍경 조연택 서현익 김길연 오창선
박보영 김정진 하정미 임인숙 연 희 박현호 정상근
박한웅 전옥분 김계선 김현오 이지영 김재철 장현길
김미경 김형중 엄선희 이명재 광주봉 김방경 송경자
오미경 권정인 한재환 최유아 박은식 성락철 한대근
최수용 윤연례 정요식 송용호 이찬용 오한숙 석연숙
김정녕 박종문 박성자 이동준 정은철 이현아 류길관
김옥중 손순애 이재선 오정애 임홍수 박정자 정찬길
김복남 이재영 염영호 김철수 박정희 김종길 손금누
박승희 이 식 안효상 주태연 오상근 장인길 한만주
박충균 정경선 김영호 장현숙 안영민 노문구 이재만
오무로 이숙경 박은화 안정훈 이성연 유창식 김정철
이경찬 유희영 오병문 윤정미 이화신 서준영 김홍병
이종순 장영미 강창미 김순환 정경래 박선영 김기희
정현영 임경배 정연복 최제연 이순희 이경숙 채혜정
박두악 전일문 김정숙 함초주 송혜자 전영자 이민자
김사재 김승택 김희열 윤상진 이춘근 서영분 김미아
정순자 박옥순 박유심 조정순 강숙희 최장운 강석연
최성자 김제입 윤정배 심재웅 정명자 양태선 김현숙
김덕순 박종란 김수연 이정식 문창숙 윤의영 김순옥
최산하 방경옥 허경숙 이정복 원제금 김만선 류희숙
안정순 권영숙 강영진 임숙현 허이순 김옥섭 최명분
이덕우 정만녀 김근숙 최현식 이순분 권복순 김근숙
조상순 황의란 임옥분 이춘경 진자경 박정순 원부순
정경희 원화녀 한정민 양이순 조난식 정자행 유명한
이종춘 이경희 이복순 최금숙 박태숙 신영금 손남순
황복금 황덕인 장점선 김병령 장희선 안병수 손순자
조영운 최보래 이형섭 전진숙 이재준 이재분 신미숙
이성민 민경현 이경미 민지홍 이순희 이춘희 정화자
김정애 조순예 지봉례 전계화 박순옥 지만문 김재희
김창수 한은분 정인희 이월육 배명옥 박민자 송정순
김향숙 한미정 이승구 강남미 최영옥 이종필 박준갑
안창승 이창우 허영숙 조길원 전언기 고현돈 심효섭
오성현 이영자 이철영 염지훈 손경숙 양승철 광 산
오하준 이형주 오병대 안광준 송대호 정이준 윤덕환
구윤모 김순옥 최인수 박호일 신장우 김점석 오수정
김현주 홍동진 송태범 이미현 최화용 박세두 심재현
류덕현 김현경 박신영 김운기 성종연 김양은 백태권
김동현 김권식 고수진 고혜영 이근철 최영섭 김기영
이인호 권수근 장주홍 오영준 최봉기 구은경 권성복
우종웅 신성범 손용호 오석근 임은정 양태영 곽호성
안정현 이석규 김철호 백순자 남옥란 정진호 김태복
김준호 양효례 박승준 이종희 박미숙 신지원 강신옥
한복기 김진숙 유성대 임경열 김형성 한세헌 노영경
이언미 김상기 이나래 안신동 정서행 이순영 송희택
조선열 설유석 김영규 김원국 최장옥 조현주 조남훈
이상태 김익겸 염정탁 박영예 홍동기 김기행 강지혜
임영희 이종을 이희종 고영철 황재국 김태수 이경수
김주혁 현정녀 김형년 김광원 장문수 조은례 강향남
임재중 김영만 이정순 이세화 장수연 김종호 김영인
정귀남 김승택 이진수 오석민 정성원 남일분 이수경
이미경 박정순 이병서 이은미 김선자 박경묵 박경철
이종하 서상우 김옥련 김정운 최성연 장석준 신경순
김은경 박상애 안미경 안종훈 조은정 최효선 김정일
정화영 김상국 신지은 박진수 김광천 박종찬 유광준
정경규 임덕규 장정화 박완국 박종오 이홍열 차준호
신광근 류종현 김영식 오인근 김영식 이범숙 최일섭
김종탁 전도광 진철민 최원철 만강남 유재옥 송길영
손종길 장미순 홍건홍 윤석한 강세서 홍근경 이숙경
한명순 우길식 허영수 오 월 이종현 장경팀 박상금
김영철 박정희 김천희 류제홍 홍종선 이정화 강진기
오동일 이종식 한규섭 기미정 노현정 조명희 이경숙
한달수 류재훈 송용방 손영래 오세남 손선미 유은미
김동예 박종호 이원우 조대성 최정희 도승환 강대석
이영숙 권혁영 이선실 류강현 마홍범 박인영 김진해
오일섭 민병인 최선영 이은호 신용주 홍정현 가인숙
김지성 남정철 김영운 유영희 류미나 전순덕 김성연
윤현진 조상조 변철인 조성호 류재훈 김태숙 민아리
이준희 유진숙 박승호 김영완 박미숙 우희영
최능수 윤미정 신근영 신규명 박종석 이동욱 최미순
이원규 한승우 남성훈 김기현 박완진 하병철 김형진
장염석 김기현 이강원 이상기 김학렬 조창희 조영철

한선육 박원식 박정화 박 용 허성불화 양기열 안나경
정만기 고일영 환진택 박정미 김은애 이수복 박찬선
박정미 오수미 안경자 한길수 이권주 허보남 이광범성
고희영 정영복 조삼례 김경옥 이명숙 병광환 이재일
이병철 백찬신 은위소 이기만 김영휘 조성환 송상예
임석빈 이학분 기송구 이영옥 현태희 권재인 김창련
김병선 구현정 민문갑 신경희 배동희 김학식 김춘희
김주희 원학석 곽재창 김재경 김두환 황종옥 이희면
박승희 이 식 안효상 주태연 오상근 장인길 한만주
박충균 정경선 김영호 장현숙 안영민 노문구 이재만
오무로 이숙경 박은화 안정훈 이성연 유창식 김정철
이경찬 유희영 오병문 윤정미 이화신 서준영 김홍병
이종순 장영미 강창미 김순환 정경래 박선영 김기희
정현영 임경배 정연복 최제연 이순희 이경숙 채혜정
박두악 전일문 김정숙 함초주 송혜자 전영자 이민자
김사재 김승택 김희열 윤상진 이춘근 서영분 김미아
정순자 박옥순 박유심 조정순 강숙희 최장운 강석연
최성자 김제입 윤정배 심재웅 정명자 양태선 김현숙
김덕순 박종란 김수연 이정식 문창숙 윤의영 김순옥
최산하 방경옥 허경숙 이정복 원제금 김만선 류희숙
안정순 권영숙 강영진 임숙현 허이순 김옥섭 최명분
이덕우 정만녀 김근숙 최현식 이순분 권복순 김근숙
조상순 황의란 임옥분 이춘경 진자경 박정순 원부순
정경희 원화녀 한정민 양이순 조난식 정자행 유명한
이종춘 이경희 이복순 최금숙 박태숙 신영금 손남순
황복금 황덕인 장점선 김병령 장희선 안병수 손순자
조영운 최보래 이형섭 전진숙 이재준 이재분 신미숙
이성민 민경현 이경미 민지홍 이순희 이춘희 정화자
김정애 조순예 지봉례 전계화 박순옥 지만문 김재희
김창수 한은분 정인희 이월육 배명옥 박민자 송정순
김향숙 한미정 이승구 강남미 최영옥 이종필 박준갑
안창승 이창우 허영숙 조길원 전언기 고현돈 심효섭
오성현 이영자 이철영 염지훈 손경숙 양승철 광 산
오하준 이형주 오병대 안광준 송대호 정이준 윤덕환
구윤모 김순옥 최인수 박호일 신장우 김점석 오수정
김현주 홍동진 송태범 이미현 최화용 박세두 심재현
류덕현 김현경 박신영 김운기 성종연 김양은 백태권
김동현 김권식 고수진 고혜영 이근철 최영섭 김기영
이인호 권수근 장주홍 오영준 최봉기 구은경 권성복
우종웅 신성범 손용호 오석근 임은정 양태영 곽호성
안정현 이석규 김철호 백순자 남옥란 정진호 김태복
김준호 양효례 박승준 이종희 박미숙 신지원 강신옥
한복기 김진숙 유성대 임경열 김형성 한세헌 노영경
이언미 김상기 이나래 안신동 정서행 이순영 송희택
조선열 설유석 김영규 김원국 최장옥 조현주 조남훈
이상태 김익겸 염정탁 박영예 홍동기 김기행 강지혜
임영희 이종을 이희종 고영철 황재국 김태수 이경수
김주혁 현정녀 김형년 김광원 장문수 조은례 강향남
임재중 김영만 이정순 이세화 장수연 김종호 김영인
정귀남 김승택 이진수 오석민 정성원 남일분 이수경
이미경 박정순 이병서 이은미 김선자 박경묵 박경철
이종하 서상우 김옥련 김정운 최성연 장석준 신경순
김은경 박상애 안미경 안종훈 조은정 최효선 김정일
정화영 김상국 신지은 박진수 김광천 박종찬 유광준
정경규 임덕규 장정화 박완국 박종오 이홍열 차준호
신광근 류종현 김영식 오인근 김영식 이범숙 최일섭
김종탁 전도광 진철민 최원철 만강남 유재옥 송길영
손종길 장미순 홍건홍 윤석한 강세서 홍근경 이숙경
한명순 우길식 허영수 오 월 이종현 장경팀 박상금
김영철 박정희 김천희 류제홍 홍종선 이정화 강진기
오동일 이종식 한규섭 기미정 노현정 조명희 이경숙
한달수 류재훈 송용방 손영래 오세남 손선미 유은미
김동예 박종호 이원우 조대성 최정희 도승환 강대석
이영숙 권혁영 이선실 류강현 마홍범 박인영 김진해
오일섭 민병인 최선영 이은호 신용주 홍정현 가인숙
김지성 남정철 김영운 유영희 류미나 전순덕 김성연
윤현진 조상조 변철인 조성호 류재훈 김태숙 민아리
이준희 유진숙 박승호 김영완 박미숙 우희영
최능수 윤미정 신근영 신규명 박종석 이동욱 최미순
이원규 한승우 남성훈 김기현 박완진 하병철 김형진
장염석 김기현 이강원 이상기 김학렬 조창희 조영철

박난숙 우복순 서석호 최명구 박래형 조은환 김종섭
윤양은 이성민 이미영 안옥제 박의경 김영완 이영자
김용만 유영민 안승미 이상환 전양희 오수현 서경자
전해경 임민지 이명숙 김윤태 최은정 소민호 강동기
손영식 최은식 이신화 이배규 박성민 남창호 김상준
조익표 정선균 배문호 장혜지 손병섭 이설우 백경옥
홍성휘 이기영 장만화 박경자 김용문 김성민 손기영
방난석 이은자 추여성 방순연 김영숙 이종혁 남연우
김상희 류하나 이미화 비현화 홍한석 김기덕 김문정
이범구 이경분 장성자 남석우 박민호 최덕환 변은영
고정희 고동희 이진영 최우진 송혜란 이애경 신현정
정태문 김금덕 이경숙 김호문 김춘식 고규식 김기열
박정옥 엄재열 박 연 김안석 김진억 양천모 이설희
안병기 오요순 김홍렬 최종복 백미라 윤영철 최정호
허은이 유정현 김현철 신용웅 임영욱 박승진 김태호
김광수 전혜인 김진호 듄은순 임미정 오상주 박덕배
김만호 이용필 김미혜 조권재 유현숙 양인석 유상곤
삼수진 안상찬 서우일 이강문 문현진 신영희 김준식
김종린 허남인 강명제 이만욱 유영빈 이창규 강현준
김성태 김영광 김정화 김대원 최수범 김지은 송태순
장성신 노희연 가영미 배동예 이인우 허영선 김기환
장경화 최재우 김성천 부명남 김문호 류서현 권택환
하경희 조준형 정희선 이현정 박윤규 이철원 현정아
이범세 김나래 유영자 이용희 박홍선 이연재 구국섭
유정희 김선욱 이갑식 주점옥 김양숙 조종복 남일현
주경순 윤일순 신동철 방미영 이주희 위영식 최영란
경연희 조은지 오유경 윤영진 이정인 문지예 이영남
오동관 장인상 조동호 부병열 이삼문 안원병 이인목
이인철 정연화 남순자 안신해 박상순 임순덕 전세희
장석종 최현정 조은희 이재원 육종민 정소연 서동환
장인호 최용범 이재원 이종열 이상근 정은희 이현우
손승식 김기남 이승중 이수진 최상익 조은상 한상식
김세환 한혜진 최원식 조영민 이종건 김정수 강준흥
이수일 정성숙 홍수정 김상근 이미림 금명호 이지형
이재익 정재민 서미옥 권형주 한기향 이상근 김병균
이형우 김선우 최시월 홍상옥 정지수 권진혁 이대연
강대종 강경수 김정식 김인환 서기철 박진일 홍승민
최석현 박승철 오태영 송선호 이태경 임상수 윤과호
이동하 신은철 서영호 박승희 박용식 김진국 이승환
김홍기 전영옥 박상국 우남길 문래동 유연경 조재천
양용석 장지광 이용승 승재 정갑성 송혁중 김창호
정우진 정상규 이대일 오동훈 이석재 이상민 이현수
조동현 나병길 이주헌 윤만우 박준현 홍동기 민정국
김준영 김범섭 김일영 김창은 우제근 박진섭 이성자
은진은 이미혜 이옥순 신정인 임선우 김대열 이경희
우현석 정종숙 백민정 임고은 채고영 이지현 김미영
이수연 이민영 김용예 조희경 주동은 오인환 김승립
이인희 조태환 정갑영 이준희 신상영 신태식 오봉식
이용복 박주영 박남희 박경은 김태연 김형일 서은영
김민진 이광재 유형석 김병만 박순주 김영완 유수미
박세정 김현진 송무송 노영란 나신호 김성재 박희권
박정범 김정하 정성원 유호선 김영주 임경애 안진남
유석용 양준석 김창준 이 근수 임도완 김진숙 정지성
정혜진 정애희 이정민 윤유정 김진중 황준선 이종명
이동민 황용익 박상현 임화수 임우규 태영지 남진민
강영재 유현주 유석상 이 지혜 고주은 김보경 김바른
이진호 김동원 김근영 고홍조 차선희 김성근 김문학
심상수 김세광 염기범 이 기혁 권태운 강영석 진영호
김명식 조기환 김지수 복완일 김은현 박태영 문 준
오정근 명 성 우현주 김대현 곽은영 오창현 김병안
정창국 오승태 오승희 최 웅 심재훈 김경진 민경자
김경림 예철수 표진수 신기선 송주연 김 민 이록균
김상훈 신승환 제영희 초재균 김동학 양주현 이상헌
김성룡 송윤형 이재은 초원숙 심우관 권선영 이후성
차완식 이정원 권은경 김주숙 김민정 정태근 송기룡
최환근 박정호 최 훈 김윤재 조혜원 허선혜 이혜영
정한상 노의성 임상석 이은정 김대훈 신정규 김영한
김지태 정두희 김무경 임상우 박인호 박정섭 문병남
노용필 조인재 김은규 박미자 임병철 이진옥 최은희
구혜민 양은숙 박우용 윤희탁 정선희 김남숙 홍복순
임성빈 안병일 김은주 유현정 전선희 김영호 윤지형
김지희 길희성 류제동 김재웅 강경문 박태식 정유식
이찬수 최태혁 이완옥 한정호 최한빈 박영기 이한늘
이선숙 허정환 최동연 이소현 조문환 김경정 김지수
송현찬 정지성 김효우 최위원 이희운 송수미 정재섭
이율희 김현철 김정곤 안지영 장혜원 조경아 이동우
이석호 이우석 이연미 차옥숙 손숙경 신숙자 조희영
배승일 김지희 안홍철 이익진 백지연 이양렬 김아림
박지웅 류효정 노승균 유형연 이호선 유병권 양신혜
이재환 노주환 조재범 최은경 이상문 윤 희 김재준
김태현 김상규 조지혜 김성진 최대관 이상훈 곽 환
신경수 황철기 이상규 신현주 기문도 유원중 임성간
박미숙 임도경 박순실 최문석 김득섭 김봉주 차유진
양영자 김은진 한병희 안상진 정현도 박홍완 전명환
김연창 김경자 김재도 이장석 신일선 하태우 노명재
박남일 박남기 조규란 강도원 송지순 임광현 조중연
김경민 전효철 이명재 박갑규 김태열 박중식 이남덕
박주영 배조정 진명대 김준성 김민애 김민영 김신재
조오순 김정열 김승숙 유승규 강은경 백동희 김미영
이승재 초덕한 김영화 홍승의 정선희 이민진 김승호
장복례 서태덕 이정림 김순복 이인섭 은서식 최석현
신동찬 박홍순 김병재 우계향 김명섭 김정섭 김미경
김상섭 김태연 김동우 이환재 유길영 김진목 김충재
김태우 김정숙 김일환 강나숙 강명숙 강혜숙 이강대
김학권 양경연 홍태화 환지연 안시숙 오세광 황지민
최이영 이주환 박운기 장인섭 박정호 손창우 황지민
정국수 이일희 이규남 박경희 김영호 김종식 박희권
김용규 안여자 배창진 서국희 국정순 정호경 배문환
손미연 고명기 손기자 이자희 최점연 황지민 유재숙
황인석 정은주 정인경 한동주 심영섭 최점석 임정옥
허순녀 김정연 박 준 김순례 권종우 이정은 김미현
현대순 백정임 김순분 백명현 김형오 이지현 이종훈
이석현 윤희정 황병기 이장휴 유우열 강충남 정병택

한성대

조성호 김 민 김성길 황인태 윤무흠 이재성 이관섭
유경미 천현주 황미경 주영길 김민중 권혁준 서상서
심신아 윤동욱 이은지 김희진 신성영 양소익 백진영
서금애 황선미 류덕희 장수주 장인태 김은우 한충섭
김수현 임선주 이주혜 송정수 이세인 이정욱 권연수
신효정 강철구 이길선 박연경 박 인 김혜진 지현진
이경아 고현선 최세경 정선진 신주애 노경아 정 선
김세남 채대범 정성우 장우석 장민정 위상숙 정민희
이희숙 강대송 김정아 이지영 정재도 김은영 김현정
장정호 유홍석 김승호 서연주 변태선 김성일 이병윤
김 은 정재석 윤영환 김경란 이주현 김은희 손영애
이지혜 윤영일 조수진 금영지 이은미 김병수 화수희
라숙경 조영미 이미나 변애경 정숙영 김경록 강성준
유홍식 양형수 도종숙 배현숙 한병오 구성식 강주희
박가희 김현선 양혜미 최종욱 이지영 한진영 나형진
박승호 임도아 정철민 김정훈 임채윤 구문정 양진숙
최민이 임유택 정도홍 고승희 이현주 강유진 김세영
서지원 안소정 이주영 윤미숙 황아름 이인경 김석호
윤미란 한숙영 방혜진 이선화 김주혁 이영림
이선영 최효정 정덕호 김명자 송인경 백은선 한미나
이혜진 황현근 성유성 양희경 박혜란 채진범 오정혜
장성숙 임정선 김은숙 전현미 조수안 최은정 임소영
김나현 김길자 이은주 정현정 김명희 명은선 박민경
송지현 천주리 김영미 서재희 박선미 박현주 이상욱
김종욱 김방우 김호진 정지욱 김경례 김재광 임조수
안소영 이방우 이재길 최종근 고현선 이홍식 강병주

양한우 오정희 김태균 강병택 양한우 윤정민 유형욱
조진호 오문식 박재륜 박호민 조현아 차원일 고택균
오형식 송창환 이홍기 김승현 임국빈 오영석 남상대
임재성 김준규 홍상혁 이지연 이인택 남은미 홍은주
안태오 박홍열 송재헌 부선화 이재일 한세원 차준규
김일남 배지원 양상윤 이충열 전동혁 이준우 신현진
김정선 유영민 안승미 이상환 전양희 오수현 서경자
전해경 임민지 이명숙 김윤태 최은정 소민호 강동기
손영식 최은식 이신화 이배규 박성민 남창호 김상준
조익표 정선균 배문호 장혜지 손병섭 이설우 백경옥
홍성휘 이기영 장만화 박경자 김용문 김성민 손기영
방난석 이은자 추여성 방순연 김영숙 이종혁 남연우
김상희 류하나 이미화 비현화 홍한석 김기덕 김문정
이범구 이경분 장성자 남석우 박민호 최덕환 변은영
고정희 고동희 이진영 최우진 송혜란 이애경 신현정
정태문 김금덕 이경숙 김호문 김춘식 고규식 김기열
박정옥 엄재열 박 연 김안석 김진억 양천모 이설희
안병기 오요순 김홍렬 최종복 백미라 윤영철 최정호
허은이 유정현 김현철 신용웅 임영욱 박승진 김태호
김광수 전혜인 김진호 듄은순 임미정 오상주 박덕배
김만호 이용필 김미혜 조권재 유현숙 양인석 유상곤
삼수진 안상찬 서우일 이강문 문현진 신영희 김준식
김종린 허남인 강명제 이만욱 유영빈 이창규 강현준
김성태 김영광 김정화 김대원 최수범 김지은 송태순
장성신 노희연 가영미 배동예 이인우 허영선 김기환
장경화 최재우 김성천 부명남 김문호 류서현 권택환
하경희 조준형 정희선 이현정 박윤규 이철원 현정아
이범세 김나래 유영자 이용희 박홍선 이연재 구국섭
유정희 김선욱 이갑식 주점옥 김양숙 조종복 남일현
주경순 윤일순 신동철 방미영 이주희 위영식 최영란
경연희 조은지 오유경 윤영진 이정인 문지예 이영남
오동관 장인상 조동호 부병열 이삼문 안원병 이인목
이인철 정연화 남순자 안신해 박상순 임순덕 전세희
장석종 최현정 조은희 이재원 육종민 정소연 서동환
장인호 최용범 이재원 이종열 이상근 정은희 이현우
손승식 김기남 이승중 이수진 최상익 조은상 한상식
김세환 한혜진 최원식 조영민 이종건 김정수 강준흥
이수일 정성숙 홍수정 김상근 이미림 금명호 이지형
이재익 정재민 서미옥 권형주 한기향 이상근 김병균
이형우 김선우 최시월 홍상옥 정지수 권진혁 이대연
강대종 강경수 김정식 김인환 서기철 박진일 홍승민
최석현 박승철 오태영 송선호 이태경 임상수 윤과호
이동하 신은철 서영호 박승희 박용식 김진국 이승환
김홍기 전영옥 박상국 우남길 문래동 유연경 조재천
양용석 장지광 이용승 승재 정갑성 송혁중 김창호
정우진 정상규 이대일 오동훈 이석재 이상민 이현수
조동현 나병길 이주헌 윤만우 박준현 홍동기 민정국
김준영 김범섭 김일영 김창은 우제근 박진섭 이성자
은진은 이미혜 이옥순 신정인 임선우 김대열 이경희
우현석 정종숙 백민정 임고은 채고영 이지현 김미영
이수연 이민영 김용예 조희경 주동은 오인환 김승립
이인희 조태환 정갑영 이준희 신상영 신태식 오봉식
이용복 박주영 박남희 박경은 김태연 김형일 서은영
김민진 이광재 유형석 김병만 박순주 김영완 유수미
박세정 김현진 송무송 노영란 나신호 김성재 박희권
박정범 김정하 정성원 유호선 김영주 임경애 안진남
유석용 양준석 김창준 이 근수 임도완 김진숙 정지성
정혜진 정애희 이정민 윤유정 김진중 황준선 이종명
이동민 황용익 박상현 임화수 임우규 태영지 남진민
강영재 유현주 유석상 이 지혜 고주은 김보경 김바른
이진호 김동원 김근영 고홍조 차선희 김성근 김문학
심상수 김세광 염기범 이 기혁 권태운 강영석 진영호
김명식 조기환 김지수 복완일 김은현 박태영 문 준
오정근 명 성 우현주 김대현 곽은영 오창현 김병안
정창국 오승태 오승희 최 웅 심재훈 김경진 민경자
김경림 예철수 표진수 신기선 송주연 김 민 이록균
김상훈 신승환 제영희 초재균 김동학 양주현 이상헌
김성룡 송윤형 이재은 초원숙 심우관 권선영 이후성
차완식 이정원 권은경 김주숙 김민정 정태근 송기룡
최환근 박정호 최 훈 김윤재 조혜원 허선혜 이혜영
정한상 노의성 임상석 이은정 김대훈 신정규 김영한
김지태 정두희 김무경 임상우 박인호 박정섭 문병남
노용필 조인재 김은규 박미자 임병철 이진옥 최은희
구혜민 양은숙 박우용 윤희탁 정선희 김남숙 홍복순
임성빈 안병일 김은주 유현정 전선희 김영호 윤지형
김지희 길희성 류제동 김재웅 강경문 박태식 정유식
이찬수 최태혁 이완옥 한정호 최한빈 박영기 이한늘
이선숙 허정환 최동연 이소현 조문환 김경정 김지수
송현찬 정지성 김효우 최위원 이희운 송수미 정재섭
이율희 김현철 김정곤 안지영 장혜원 조경아 이동우
이석호 이우석 이연미 차옥숙 손숙경 신숙자 조희영
배승일 김지희 안홍철 이익진 백지연 이양렬 김아림
박지웅 류효정 노승균 유형연 이호선 유병권 양신혜
이재환 노주환 조재범 최은경 이상문 윤 희 김재준
김태현 김상규 조지혜 김성진 최대관 이상훈 곽 환
신경수 황철기 이상규 신현주 기문도 유원중 임성간
박미숙 임도경 박순실 최문석 김득섭 김봉주 차유진
양영자 김은진 한병희 안상진 정현도 박홍완 전명환
김연창 김경자 김재도 이장석 신일선 하태우 노명재
박남일 박남기 조규란 강도원 송지순 임광현 조중연
김경민 전효철 이명재 박갑규 김태열 박중식 이남덕
박주영 배조정 진명대 김준성 김민애 김민영 김신재
조오순 김정열 김승숙 유승규 강은경 백동희 김미영
이승재 초덕한 김영화 홍승의 정선희 이민진 김승호
장복례 서태덕 이정림 김순복 이인섭 은서식 최석현
신동찬 박홍순 김병재 우계향 김명섭 김정섭 김미경
김상섭 김태연 김동우 이환재 유길영 김진목 김충재
김태우 김정숙 김일환 강나숙 강명숙 강혜숙 이강대
김학권 양경연 홍태화 환지연 안시숙 오세광 황지민
최이영 이주환 박운기 장인섭 박정호 손창우 황지민
정국수 이일희 이규남 박경희 김영호 김종식 박희권
김용규 안여자 배창진 서국희 국정순 정호경 배문환
손미연 고명기 손기자 이자희 최점연 황지민 유재숙
황인석 정은주 정인경 한동주 심영섭 최점석 임정옥
허순녀 김정연 박 준 김순례 권종우 이정은 김미현
현대순 백정임 김순분 백명현 김형오 이지현 이종훈
이석현 윤희정 황병기 이장휴 유우열 강충남 정병택
박진현 이인숙 윤숙영 유지호 유현주

삼화불교대학

조광희 이은아 최은정 김희은 이소진 송현주 성수연
김선화 조은경 박진영 정금옥 방 미 최학기 조 일
심원일 박성희 김정은 김정희 강진이 최효진

연세대

이병호 김상순 정민경 김응창 강수화 예혜진 류원진
김경순 정민규 정상훈 정달산 민민수 김성수 윤희연
이충희 강민석 김서희 강은호 유성은 박형준 박경원
조동진 황미연 고국산 김영수 김현승 최경희 원경희
이재근 김현수 이정희 김경희 이은미 김혜자 전윤희
정광락 권혜진 강서영 이동원 전영훈 김재관 박상원
조영준 최민영

한국차생활문화원

서향희 이정아 유성호 송경숙 전명순 이미나 류인숙
장혜숙 조미숙 이정임 정연옥 장화숙 김정현 김영석

삼보회

이창화 고생순 권혁순 이동암 조인행 권성준 원종태
김현일 장인자 홍복덕 유순옥 안은영 지태호 이원자
유원상 박지순 천영숙 차세남 유복술 윤민례 김도영
이희정 방지선 박선미 방승준 권경숙 김분수 박승효
김미경 김도현 손상근 박미옥 김태준 이정화 강우경
박혜빈 하승희 유영임 김보라 김진주 우희현 최희은

현대불교신문사

원 담 오안자 이준미 김영자
홍정희 유정숙 신재엽 박태옥
유재춘 이정순 홍화자 홍화숙 박선희 김지희 박혜숙
서금자 공정자 임수정 허영진 홍종숙 박오선 양태희
이정례 신상례 이순선 성정선 이상준 이종숙 허효순
권입순 서순례 이양희 김명숙 안준식 송지순 박봉순
박후순 김수자 이상희 김민수 이규현 윤명분 문명식
정세환 김경자 박행순 정유순 윤요진 조난수 신재욱

삼화불교대학

조광희 이은아 최은정 김희은 이소진 송현주 성수연
김선화 조은경 박진영 정금옥 방 미 최학기 조 일
심원일 박성희 김정은 김정희 강진이 최효진

연세대

이병호 김상순 정민경 김응창 강수화 예혜진 류원진
김경순 정민규 정상훈 정달산 민민수 김성수 윤희연
이충희 강민석 김서희 강은호 유성은 박형준 박경원
조동진 황미연 고국산 김영수 김현승 최경희 원경희
이재근 김현수 이정희 김경희 이은미 김혜자 전윤희
정광락 권혜진 강서영 이동원 전영훈 김재관 박상원
조영준 최민영

한국차생활문화원

서향희 이정아 유성호 송경숙 전명순 이미나 류인숙
장혜숙 조미숙 이정임 정연옥 장화숙 김정현 김영석

삼보회

이창화 고생순 권혁순 이동암 조인행 권성준 원종태
김현일 장인자 홍복덕 유순옥 안은영 지태호 이원자
유원상 박지순 천영숙 차세남 유복술 윤민례 김도영
이희정 방지선 박선미 방승준 권경숙 김분수 박승효
김미경 김도현 손상근 박미옥 김태준 이정화 강우경
박혜빈 하승희 유영임 김보라 김진주 우희현 최희은

현대불교신문사

특집 —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③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古都 산업화정책 '세계가 반발·국가적 수치'

김주환 유재관 강성화 엄주민 김택일 강헌구 오창덕 최승오 배일남 정창기 김양수 문경용 문길선 김영숙 김동헌 이연경 최광순 문행남 정정웅 김미순 이원숙 양명호 이송환 유순희 황이숙 이철승 이난희 이창근 손정숙 박은영 구본상 김미화 최 린 이용기 박정숙 장혜자 이도은 신영철 강찬수 박진건 김능혜 김동수 박재흥 이승호 오상현 정관수 송상민 김만원 손경희 윤상헌 김정현 김승남 이정철 김용갑 윤대규 박정욱 천병룡 이종섭 윤태희 윤지영 김병기 이동격 봉선희 박혜종 이병관 주흥규 임원섭 박강지 김병로 노은섭 권일권 변주길 하재표 박동원 김준섭 곽화진 전창옥 정진전 정호연 정복선 정점명 김문조 양현수 김영빈 이형기 박영재 정찬기 류인탁 원호섭 최인영 이나은 박문수 김종호 홍호순 김경숙 강춘식 윤재한 허남엽 류지영 이종수 권처문 이용만 홍병숙 이대희 박승대 박창호 김승섭 장두호 권순남 강 영 윤영희 김양식 변두용 김해봉 정희구 배성철 유재선 오지나 김승하 이미호 전영태 강한순 김창태 신동중 이문성 문희욱 최원용 정광량 이인배 김종립 이현숙 전만로 유동식 업규연 오해근 박경숙 황옥희 정영자 현대건 이종하 서영석 임소연 김성수 김옥희 류승수 김병석 이재규 이천부 송명자 김영성 김경미 하태숙 이승훈 이의선 안병용 김임순 양행자 김용호 이순택 정선휘 정하민 정하중 장인수 김준희 하수화 정도준 박강훈 유정현 박기성 송의진 윤석훈 황신하 이송기 신인수 이수일 조상순 양동욱 유청환 김춘길 이경호 권순자 김도원 정상덕 유청환 김미자 이원철 홍동순 장민영 김진형 송용만 최지현 이현아 김진형 서희정

이은규 심규상

해인사

김오종 김경호 유지원 신동은 이필분 윤정호 유득현 양경남 이미자 김광지 탁명이 신성심 배태복 서언련 박주석 박정심 민병화 배석화 김정배 이철우 송현주 박노희 전용은 박상욱 유영숙 박상곤 오유진 김진상 고현석 남수성 임웅식 김수아 안상영 배선환 한문수 신철섭 김지은 도상화 강영모 김정철 김은하 김영진 김영주 박재민 도이환 고재명 최지영 양은정 박순용 최동년 권은경 이말숙 신경식 구태균 문형권 홍종희 박정언 이선희 김희영 윤문희 전용균 이경수 박문호 배숙미 정은경 김현정 최수용 표인식 최인홍 권중재 최성태 조은숙 이무용 박태갑 유성배 정상부 황동서 이창배 강병한 고애영 정기혁 박은주 신영철 전필이 강양훈 이종선 이명숙 김성숙 박지현 송지영 송방간 김을자 최우석 노일환 이근우 김미정 배전숙 공종도 유이근 김미숙 조은선 이정희 구병판 이현주 류병호 김영이 조재건 정희철 김정일 김박생 유유길 이만수 홍희경 도태용 오선숙 김선경 이재규 박진애 박병이 최재훈 이상유 김성숙 이재은 박은숙 김경호 홍호순 김경숙 강춘식 윤재한 이유영 이종수 권처문 이용만 홍병숙 이대희 백유신 이주영 이태윤 백민아 김이호 김대원 김진영 김병호 이원희 김경일 박종석 김종철 이미자 한미라 김정자 박종석 김경일 이복자 유경숙 박경희 이세철 박성희 김인기 문재화 김희정 박기열 이상철 서혜숙 김경식 이정옥 정남숙 박현정 임명애 이장섭 이석영 조은숙 최보필 윤지환 추현정 강명주 배동한 최창수 김현옥 김정옥 홍태구 박성금 이상만 한혜진 이혜성 김경호 박종양 김동원 박지원 홍상돈 정효례 홍은표 이재규 김병섭 박지훈 김미경 김태기 김홍영 서경자 김철민 김철원 양계남 한오득 최수지 김재선 이종식 배달남 김병도 박연규 김영순 조은자 박미경 강임순 이종희 김성선 김현숙 김정수 박미아 김현자 안용덕 이미옥 최진아 이상렬 최소혜 권종렬 권나영 권혁민 김귀남 노연규 김영재 이승호 김춘수 이정민 신명선 정미애 최유식 김성미 정부식 윤준원 윤경숙 김광숙 김남진 김연희 홍원숙 서용필 윤은숙 김제영 이덕희 염진옥 심현식 이수길 강태안 허 영 김태현 이상복 서입숙 도경호 허용한 이성우 이부동 김경미 서은정 문형진 정종화 왕경범 김영환 정현춘 조희자 장수호 은한옥 신용석 원창희 김영희 조대현 양성숙 정규수 이상복 황성재 박정복 김재정 박호룡 송 사 유희재 박영숙 문영식 윤영식 한복만 이재형 정진수 박은권 성명희 강동주 황재우 Sergio A.chacdi Jose Madveisa.M. Abraham Madero C. 유기종 정대일 이정희 정두교 박경화 이병화 남동효 은종민 김경일 최정국 류재남 Marlin Rivera Lomero Jbec Jamoizs 전병화 이정상 손희정 배춘식 신용화 김민성 박지현 Edvardo Gaxioiz Galvez 전미영 한현정 서미숙 정진순 장명숙 김경일 최남숙 이상원 김용운 김인호 김은아 김학기 남효선 정우진 성순갑 정수명 금선자 박종탁 Francisco Garcia B. Almario Marinez 김종식 최재훈 정미나 정원태 장도식 이준구 김양이 정미경 김형준 심영미 강경희 신성찬 정문수 이준우 정운표 박진수 허재훈 서경숙 장태현 김영희 민창완 정재원 이상모 이보경 황종열 이난영 김경열 이난영 장선영 정미경 이세은 이경순 박경석 김정희 이경숙 최정훈 김민수 박정희 김정숙 이재규 이경숙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특집 — 겨레의 얼.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③

선도산 성지·남산 성보 치명적 손상 '불보듯'

이주영 이희철 진미영 서정식 홍성민 김현정 신석빈
조원희 황혜미 김 산 이나영 박교순 나용기 김미영
정은희 문주영 박경임 함창수 김종하 이희제 주경희
허 욱 최우경 김대호 남궁강 최광수 이 영 정유숙
강등순 김영만 박유영 박형진 안수연 고주희 허상만
홍우식 김진희 이지선 노현숙 김원수 조홍진 황인규
장근애 김 욱 홍준용 김태홍 박 봉 하현정 이원섭
정기환 홍원표 구분정 배진성 김태호 송도혜 김대윤
문상욱 강진구 손일경 황하나 송영남 김선혜 최석진
박성환 홍승욱 유택준 박재우 김나경 신혜진 김욱수
서정현 정영완 김소공 박대근 송혁규 정자영 백선민
채연정 김희경 김주영 김남수 최정혜 김태우 이봉진
이기영 김은표 이화연 이여진 김승석 최효경 손성욱
정우철 이재형 박태형 김지훈 정지윤 오사라 지성진
김주원 지영근 노은여 유성은 김상고 김형석 박상희
안동훈 박수일 송 욱 김지방 최유경 홍보근석 강순제
김응일 김명수 이경애 심종섭 김광기 김수현 변성식
이희영 조빛나 장경국 이유진 이인숙 이시용 안 천
오혜경 공현욱 이은주 문필성 김미란 신성현 황재우
양형석 박민경 황호흥 최동룡 심석일 차재호 정현응
이승혁 장영자 이준수 김은주 한승영 조준우 이혁주
문현식 유정주 주재만 백 현 최기홍 박 창 황정하
조민철 호 현 이일규 이태희 김동우 이 호 김지연
김지혜 정은영 최정민 이주영 배지연 강호석 이지현
장중환 정현면 권영환 유재욱 김주희 안현정 이성미
김은경 양지연 신종환 송일선 전동일 안다솔 최진영
김명식 강대우 강영삼 임호준 윤영모 최선경 차혜진
이세호 양원모 현만섭 이혜원 최혜진 정현주 김지호
권백범 박수진 김경수 윤지호 이수정 공영수 이용준
강태균 송종호 최익창 문경희 전경화 천사익 신동우
송문호 장창용 이윤순 최창희 류경필 오화진 김재숙
송원진 최성운 백호기 하경화 유호정 김영석 김광운
윤영관 최상종 김상욱 김호진 정의수 이광현 금동현
윤선중 박병호 김신제 현상혁 공조훈 전이영 한자은
김근형 전은주 조한식 김병수 김영준 송애경 유석상
오수진 하현욱 강형규 신수현 전희숙 송경준 이정훈
임인미 박경순 장철기 김성호 고병운 김규연 이학인
공혜영 박삼묵 김용호 이용각 박장호 박세연 여호동
안병직 김정환 장재영 김덕환 박세연 여호동 민병직
김정환 장재영 김덕원 안 훈 우현욱 이상철 허 준
정성욱 박순홍 신 혜 이재은 주은정 이혜선 이승민
김정환 김성준 이만우 최정현 이승섭 우승학 장종근
이대원 황석구 이재국 신광균 박성호 최정식 김종규
신일권 김병철 김종민 김진영 김성희 이경로 정성훈
장현석 류황우

불입회

장연수 고병란 조규영 김의선 윤근민
박요안 송성식 최봉호 김선욱 남상록
정점순 이용재 환정애 이성원 지자야 이미숙 이성태
이성우 박미영 이성진 정봉화 김성만 박정임 이달희
이재중 이재훈 박재관 조원원 강병태 유대심희 강정희
강연희 김창기 허현애 이재경 이상임 최정숙 김영애
조의순 윤보지성 장재순 신현우 강은숙 김세현 김규민
김병민 김영희 김양희 정영민 일보광명 이영희 김성묵

최연숙 김성남 강금자 최승훈 배인기 박행숙 배정희
변상언 백인섭 우숙자 신미자 김정헌 박영애 최정헌
최한우 최은영 명정순 홍준석 백인분 김세진 김소현
김홍철 김장길 최영수 김세화 김지영 오경순 홍영인
이명희 윤석팔 윤유경 이원봉 이철남 김옥화 박정남
황미순 전진순 우영환 이미자 김형식 신춘강 김창수
김나연 김대식 임 명 김승수 김정수 강종호 한은경
강아영 강지영 김종대 이재훈 이광호 이은희 김연수
김은주 박경필 정선순 김순희 한진순 이영주 정미영
이윤주 강종하 강윤기 이명숙 강한수 강영림 강현수
강희림 김영선 전광순 정선영 김영순 이광근 이승신
이호열 이부송 이정숙 이하영 이대영 하명철 박소령
장인자 이미현 이진규 류종섭 류정수 류정화 안형주
최한규 조현주 김경희 김연희 이인석 강인규 박경석
손남희 김종현 이한기 조두현 박영심 박정주 강인자
원경자 이경숙 강우석 박병천 최연경 김영득 정종근
김권주 임재충 강백현 박봉균 나희옥 오재철 김근태
이관철 김세영 정은선 김숙경 이창석 윤완순 전승정
이준환 변임석 만용기 김미숙 여금희 송교주 남영신
양홍영 신근수 이남경 박재균 표병식 최상호 양해봉
정무호 김정순 이유덕 문태환 송혜종 김정주 강형렬
이선란 이화진 이순희 이후실 김선희 곽현정 김형권
김덕희 강희수 박두성 이하나 양미애 서희원 김우용
김형숙 김주리 장정은 이정호 서순자 이현미 이은정
임남규 김만희 김진택 김진곤 김희영 임민혁 여수정
장유춘 정상철 최완식 석광운 하정희 김복성 김옥자
강옥경 남기영 김정예 엄지훈 장영득 고형석 최정희
전일배 장미진 안신자 염은식 김현수 유정자 양순광
표기옥 이은난 이은정 하귀영 이현주 이승필 문인수
김옥희 장혁남 이창효 박미경 김희진 양경화 신명식
유정전 이희숙 김경중 김경숙 임인도 전진수 김남규
김대영 조지훈 은세린 박문호 만배진 이규태 서이선
김갑현 이남이 김영순 이영식 류광훈 박은정 김순한
박정영 장종식 박유곤 오만숙 손명곤 이승영 서영남
김옥이 김나중 이 팃 박경미 김현숙 김광두 장슬남
강종석 김범수 한휘우 서홍석 송학남 정혜정 이화규
최성렬 정효주 이계표 장연수 유희조 안영복 신태선
김선중 유순임 서만숙 신해순 박혜경 최정영 이상현
이왕재 안진오 박봉환 박지용 한금룡 최마란 신민숙
김동순 박용하 정성모 김민정 손형락 이호웅 김상영
강부식 이무성 박은숙 김기순 이순이 전광명 김상실
서병숙 임명진 김미란 최성길 SteveDk 홍선영 곽명원
최락진 이준호 인광한 박일수 정동섭 박형숙 이재현
정영복 정창곤 이남은 길국한 박미자 김여택 박혜숙
한기순 박명희 김주완 박미숙 김정규 이태우 한순진
김현조 곽염심 김태원 강대철 박미숙 이강자 서정자
한동규 장훈남 김용강 노정숙 신재호 최은근 김정희
박치원 전태수 묘 산 강정신 한상환 신지승 신태진
김경희 장서원 이승재 정증녀 조승자 박은영 최학술
이상철 김민철 손용호 류승석 조복순 최종남 이동환
이철우 이명남 이복금 이미자 강정희 이대용 이양숙
박영복 함영옥 임주빈 길재원 석부현 석승현 신한구

김복순 정미자 이광규 김영선 오진경 정경희 윤남지
김현주 정월주 강묘심 송혜승 나유경 류재일 김희승
한성호 김명옥 이병우 이순용 전영숙 정증묘 이애자
박진아 송남철 한미순 한미근 최미혜 장영희 전정효
신상귀 박채영 명호남 이재경 박세근 김복희 김은미
김태수 김기조 오영아 윤영기 김초호 김인기 이옥명
김혜란 이홍상 김영미 김병식 김태준 최혜경 김형민
김주리 박미경 박은신 김경식 이옥란 김지혜 박미라
박인철 이오남 정종구 박재록 이정미 강창호 이복임
김덕례 권미경 김영수 김복희 배경인 송순복 박민석
이상준 정한조 박순덕 장현준 장미례 김종영 김명주
신소연 김병률 김미란 박재육 심인호 안정열 신선용
김창남 감승봉 변창균 김만주 김재용 임명숙 김준호
임성실 심범린 김미정 최진국 최진규 박종석 조민희
김은동 김진디 윤은경 기안순 이준우 안숙희 정빈배
박경복 정종옥 장희은 김현순 최현주 이세은 임경욱
김정희 김순옥 권은희 김난이 조경언 함아철 김용주
오현진 이인순 박권복 이후상 백팔수 이정순 유지연
김봉호 신금호 장지국 정세연 유주현 신동용 황인천
정강호 황혜숙 안정남 김종임 탁유진 이상용 탁유미
윤형열 박창우 박종지 최춘금 최지마 강혜용 이사영
한윤선 차동철 강만호 기천석 이영주 강종원 염경배
염지원 엽지바 류진영 최기혁 이정주 김진곤 노재용
유근수 강재호 김정숙 김주영 정승혜 김만자 김갑선
임삼규 이일천 전경련 고은미 허금례 정영호 신영숙
정진애 윤제숙 배재성 문채진 김옥희 강만찬 박형자
강희포 문화숙 김신자 김혜경 노림전 박노훈 김수현
장덕순 최소연 서은경 안경화 손병규 이동선 최광덕
허은주 송심섭 류애자 노경순 이길자 박순일 이정육
허종범 이근숙 김종례 김규철 박귀현 김달윤 김학수
장효석 서민노 최숙향 김유정 문지영 남선영 김홍석
이덕진 박오숙 김순원 오춘자 김유지 장정식 최미선
강봉숙 정 현 김범률 김원혜 송양희 이원화 강시라
김재경 김학태 김승준 서지운 심원호 정남희 문영만
문선미 김경윤 박은선 조수정 김은경 신종익 신용호
전광토 조재현 김미자 권순주 전재현 박 섭 백광식
공형국 강용호 오숙현 강종국 김형국 장수진 김은진
송민섭 박동철 박동배 강세문 이순구 허 성 이용자
주경숙 김정아 이창언 정은주 배연이 강경봉 박우선
심인호 류은경 조종익 장유신 이천신 윤 신 곽종현
박용배 오은선 권순이 이준우 강연숙 박재신 남한순
노재형 유완준 양동렬 안영숙 정기성 이철형 이미경
김승원 문창식 육꽁진 배문태 김연주 선금규 김보현
선종학 선종인 허갑순 김성희 진 경 서은경 김경화
김효준 정현정 노형재 이영순 정인선 고광석 문정선
양승철 박성희 강신철 김준성 한순자 이영수 이재흥
김성근 이변자 허규오 김봉문 하재님 김미정 나영선
최규오 조상수 이미숙 정해연 이진선 정다은 정재운
강추석 하경철 박명은 박순지 김영락 최재인 이효재
신행만 박기덕 남석심 박오남 김순희 송홍훈 정태영
한병호 위미자 김은희 유미진 조용학 박영선 차영희
곽윤수 허정필 박진수 송호찬 조안나 김창식 김 민
조원억 이우태 이상수 한서희 장학식 송담숙 김선미

정경욱 이은선 황주미 김정만 최희선 김선화 소양재
박창훈 최 찬 양동준 김연진 박명자 정현식 이종만
장선훈 김동일 채근식 윤정남 김주경 정순구 김경자
조 진 김재규 윤현경 박명일 김미자 박정균 배명은
이종월 정정호 임정욱 강치장 강명금 김현성 김욱연
박덕희 김성봉 이정숙 김금환 서미경 이정화 허 환
유인만 김기선 배경희 전정숙 김연필 이기덕 양소정
임규찬 이정종 김지영 마 훈 박혜경 이선희 성정민
임상규 김미신 주성환 주미경 신대경 신정아 황진호
강미경 진홍규 김운주 문용선 오명주 심정숙 김경일
백지환 김효숙 정진희 김인태 김 수 허남권 박학영
박정오 최연경 주종섭 주남철 최봉인 박홍필 안현자
강신경 전정식 이수일 성신경 김정식 이수일 박나미
창상만 신재훈 김윤빈 김창동 이일청 우상완 이유영
나영주 김주미 서은향 지승아 박재선 서광수 김승정
김시원 박대훈 신양수 빈미라 김기남 안숙연 강승아
박선영 허효영 김증환 염리호 서미영 탁원구 임찬수
이미형 김선웅 서여자 김세환 이미재 정증효 김명숙
김필순 김명숙 이종석 장종호 이지연 이소정 이 슌
이웅원 이정훈 장필상 남상우 김수경 김은숙 정승희
김석환 허세경 이은미 이주영 문애라 정황남 김이숙
최성금 이용일 이태철 윤기권 최상묵 이선재 한유정
황묘관 김선희 정명모 우건국 황선미 하경섭 김은정
서병조 조병용 김부도 이종문 이미경 이경원 임홍재
임태순 이효순 이재원 고미숙 김진숙 박미령 정기자
김형남 이길영 김아영 이민영 김혜선 김용주 조우탑
염화선 이은희 정지은 배화미 함두희 정지은 이경민
배화기 함두희 김영호 이경화 이 철 윤종분 송인선
김경희 최은화 이상미 김경화 공나기 배형화 김미영
정명성 하태구 권언숙 남선희 정유리 안혜경 조봉호
염진숙 정혜선 이태령 문영숙 심선미 김정화 허진희
김민지 정주희 오정미 김나승 문연숙 이지영 이미묘
조경희 강여진 양정은 이현주 류선인 김민정 김현주
안미영 김찬희 김유희 박정란 김애숙 김효진 최은주
김지영 김상희 조연희 차은자 김효진 박제희 김민경
김세정 장설화 주귀화 조미영 윤유선 이은영 주희춘
심광미 유진경 박은주 박인재 김소영 강양희 서순하
배은진 이 정 임여린 박은주 김혜성 전지영 오유경
김선요 이인숙 김수연 한희진 김한나 최수진 김스에
유은지 김유리 한정화 김한나 정유미 길지선 빛정은
오정희 이정아 김은희 문선미 최인혜 이건숙 박현숙
김선영 이지은 이희선 강혜영 박새로나 안순희 김인경
강민화 김신숙 신은경 전선하 송영미 송수빈 조상미
김세경 전선하 송영미 송수빈 조상미 길세경 정주희
홍여주 이다이 이진아 오정신 유미진 이지숙 변지은
이은미 남지혜 김여진 신지혜 신현경 김진경 조경아
전정아 정수란 서혜영 박조선 김현정 나미영 김지원
김지연 정효정 정현진 은인희 정유진 박은정 김행장
김수연 임주현 김희경 박혜련 박지영 송 영 박지애
신주희 민진영 김지영 박혜진 문지은 김정은 곽연심
최점순 박병석 손재옥 오남심 최봉남 김석인 김영순
정숙자 이은자 김난이 김경순 손시례 신일섭 김정란
이재남 이주선 정은덕 한희정 김지현 김태정 오윤희

최지현 이경아 김수연 김경원 신효경 양선화 조지현
장지영 김지은 김수정 김희선 김유진 김민호 이병순
진송자 이금덕 최경자 송영미 김서영 김형곤 김신자
김덕분 정정수 신순자 박영희 김신아 고영선 민잔국
김현순 장복실 안연선 이진경 김미정 김경희 조민호
서훈영 정동균 유연용 박현동 백효선 강효정 음재도
나인숙 천효원 장규채 신태성 이순준 김학국 김규만
정기섭 김복규 김희선 김상훈 선종철 정종렬 김광재
양성종 오광영 최 탑 김길환 김양배 최영희 정경향
정용규 조정원 이우송 오중효 서동은 김영석 박진효
박윤미 김지영 한승희 한은아 임은정 박진경 임은주
서은경 김민정 한승미 최현주 이미자 이상희 박미란
김정은 김성미 김시진 최미연 한나리 이민희 권순원
박유진 문 진 정수경 김은정 김영지 정수정 이일순
송현근 신진영 긴화영 김민정 오화영 김정희 오지영
차지혜 나지인 김은정 박은정 송현주 김지혜 정신애
손자흠 기효정 정미니 김하연 고경한 김민영 정미선
김혜원 이현주 최세영 박미연 서혜진 박 승 신수진
김유진 조성연 김지연 안혜원 김유리 김명숙 현세원
박인숙 이현정 박미진 김현숙 이경미 우선하 장혜정
신혜성 최 영 김민정 조우리 박영옥 함지연 천경미
정미경 안수연 안희선 김지수 김유지 이순영 박영란
김선경 임양희 임민선 박순미 김효정 강영희 류아진
이서연 노정화 김민수 박지혜 김상복 김진영 정정숙
손지연 오현정 정승은 강세연 김선아 정설희 이영임
김선화 김소리 위소연 박민영 김승욱 윤인정 임은정
분성덕 백미라 김미선 안수중 박수희 배은아 최현숙
최영민 이은혜 이성남 김주현 김혜진 김혜선 최주현
박미선 위 진 김미주 정유진 송민정 정희은 김은정
이정선 조은진 강순영 정서희 박소연 김경진 주진희
고선희 윤현숙 김지선 김유형 한 송 김은경 장성화
정난희 문진희 이세나 김채현 허지연 김진화 박정아
김경희 윤영미 허선희 김지연 전영신 김언순 이현정
이수연 정미정 김혜진 문현정 윤미현 김은민 강숙희
선주옥 범희선 최우희 김혜진 이은영 심숙희 한혜선
노은혜 이지선 정경희 심자현 강여정 박찜마 채송화
이형란 김순덕 김소형 방 울 임성지 정수연 고현경
김정은 이동영 서옥현 박 정 민유경 손은정 성명숙
문지희 임지연 최승희 노희정 정경아 전수미 박희경
정선경 고은미 정미라 김유진 장소영 이지현 홍효연
이경주 김지영 이미연 염미래 종영례 정해림 이지혜
신채영 탁나영 정요인 강지영 강소영 이영숙 김선화
이다혜 강성희 최지선 정민희 이정임 이은영 최유미
황정혜 박진옥 김보영 최지혜 김윤희 김새본 백주영
심진희 김경희 정명지 김진숙 이정혜 정은영 김백기
안광휘 손호선 이필용 방인철 이희연 최금옥 이경학
임혜숙 박미라 추종희 박정희 임재근 이남우 윤성현
박장훈 문명윤 김순임 최형희 이성윤 송호수 이미경
홍영미 김미숙 박재경 정복경 신금자 이성재 윤유덕
이옥남 유영경 신미경 김치호 김순덕 김화수 홍원전
이명순 김지명 정현순 이명례 박옥선 구정례 김각중
박광호 박종하 본 일 심명국 이봉수 송연승 황유진
이은정 김경순 문순임 김동희 백문자 이유신 양영진

스즈끼모또아스 강영남 신향자 김순선 은남숙 백혜순
이정순 강신석 배동률 전행숙 이창훈 고희경 김정희
김정순 이용한 차용백 이기환 김창균 고천옥 오수영
이영수 송희근 송연호 송연선 박정훈 선환수 정혜란
송인경 이애익 이충효 김진석 최윤상 박이자 남숙현
정복규 이태구 최주석 남경희 남경하 육태숙 이경진
김연미 서수정 김수정 박세정 문선영 박지혜 김수연
박경미 손지혜 김경희 박혜정 김현주 유영거 오금연
곽윤석 홍지우 고현옥 배태복 한원구 송복근 김미숙
오재락 손상구 박숙이 박영식 송부흥 천기옥 이성력
안금순 강영실 김은경 홍종호 정재현 김재익 이연숙
양미순 이연웹심 박경수 강인수 김해순 오대석 손현주
이영자 강정애 김창복 문종열 하정자 신영순 구성재
호이문규 김순호 허익선 강상원 권태원 손경인 명정자
조경승 양영순 최상란 노복남 정순자 최여자 정혜영
박선욱 유현숙 이위신 한상신 정복순 박갑선 강효성
김관선 김정선 이종현 송현경 강영원 조영환 김애숙
김난율 김유숙 송상만 장재영 김진태 윤철근 이승희
남규락 박홍규 이은덕 이경희 신춘화 성존명 박현규
윤은희 위봉석 문성화 조숙희 강지혜 임병탁 강지연
김혜주 이경재 김현희 송병호 최윤섭 박문길 전재중
허일랑 김재열 김석남 김병희 조명순 이재용 이종순
김재혁 정혜숙 임재춘 임영준 최영준 김근영 김경건
안중섭 권석권 이태균 김종원 이상백 오용세 김정규
이진호 심충남 정예용 김옥자 김강심 최정례 반중현
반성현 윤태근 김경배 이종량 박점순 강차섭 한영숙
전상필 김호진 김상용 오관혜 박공기 유미령 김진석
안규희 공지준 윤정미 심 행 운 공 한호상 남기수
심완수 이팔철 이대길 이정하 문병선 유영호 백애숙
박위수 진영복 김구건 이미화 박재동 전계필 현혜영
오현숙 박종호 채남희 송필의 김체헌 김수복 박정진
엽유정 최창현 최용조 정효익 최수복 이명옥 박선현
정홍기 백옥자 건지태 김정순 김봉현 김두한 이성숙
성현일 탁인석 나건수 유동상 김상근 박형규 선희규
김희원 김십진 이웅균 김나례 이승진 김극영 김정자
이수립 김성백 이상준 박이용 추영보 은현옥 신효식
정영봉 김히갑 송호림 김수동 이동규 손유탁 강영구
구자광 김치곤 고의정 송수섭 김정환 김형관 하승현
전영호 박원병 오천한 범희숙 손태홍 이대형 이근완
이영호 치혜준 송은종 성병오 이병권 문종규 강상권
김재용 이정자 강영태 김효경 박성진 김화진 성유경
황현경 이주익 이종남 최남순 최준영 문보영 유현구
박태규 김두희 김요민 김동석 갈대희 이강욱 최승철
박대현 정선일 김현복 강선아 박홍남 강은정 김성수
치미경 김정하 이정호 강동호 최영숙 은혜경 백세정
은영희 박용규 박은경 이병덕 김석곤 홍석희 주영구
김홍식 김우정 이상현 이상호 장재후 이은환 이정태
박창헌 이희배 이은광 정기복 정순영 김유성 나은규
이상귀 이장열 임정아 이대현 박정환 안순희 권혁두
이현화 장효식 장혜숙 문현경 이순자 김춘근 김 영
서인진 김만아 오년호 이종하 박보경 윤전무 김금숙

서명자 명단 다음호에 계속

禪學辭典

8년만에 편찬작업 회향··· 선어·공안·지명·서명·사원등 9,000여 표제어 수록

祖師의 바다를 건너려면 튼튼한 뗏목이 필요합니다

편찬 내용

1. **용어**는 각종 선문헌에 실려있는 선어, 청규, 성구, 구어, 속어 등 5,156 항목을 선정하여 내용과 용법을 상세히 풀이하였습니다.
2. **인명**은 선종의 어록과 전기 관계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중에서 수행 교화 저술등에 큰 공적을 남긴 1994년까지의 인물 2,253명을 선정해, 생몰년·소속종파·속성·법호·출신지·사승·수행경력·가풍·저술·시호·관계자료의 순으로 기술하였습니다.
3. **지명**은 저명한 선승들의 활동 지역과 사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132항목을 골라 옛지명과 현대의 지명을 함께 밝혀 놓았습니다.
4. **서명**은 선에 관한 간본·사본·돈황문헌을 중심으로 705항목을 선정해 그 문헌이 실려있는 총서 내의 권차와 편차를 해설문의 끝에 밝혀 놓았습니다.
5. **사원명**은 저명한 선승이 주석했던 사원과 유형 무형의 선문화 유산이 있는 사원 157항목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6. **공안**의 명칭은 중복과 혼용을 가려 695항목으로 정리해 문답하는 인물과 내용을 출전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명칭은 공안집의 예를 따랐습니다.
7. **편찬 자료**로는 그동안 정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국내 선불교 관련 자료를 널리 수집하고, 중국 대만 일본에서 발행된 선종관련 문헌과 사전을 참조하였습니다.

특 징

1. 선종 관련 용어 인물 서명 사찰등 총 9,100여 항목을 엄선하여 해설함으로써 편찬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2. 기존의 사전에서는 볼수 없는 한국 선종과 관련된 용어 인물 서명 사찰등을 표제어로 발굴해 수록 해설한 우리의 선종사전입니다.



신국판 / 1,000쪽 /
고급 양장케이스 / 값 45,000원



3. 각 항목마다 해설의 말미에 출전과 예문을 소개해 상세한 주석적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선어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당·송대의 구어와 속어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등 풍부한 어문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방대한 선학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편찬한 ▲선종사연표 ▲선종법계도 ▲선서목록 ▲선학참고문헌일람 ▲선종사지도 등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부록으로 엮었습니다.

부 록

1. **선종사연표** : 국내, 국외(인도 중국 일본)순으로 선기의 주요 사실들을 B.C. 544년부터 A.D. 1994년까지 정리해 수록하였습니다.
2. **선종법계도** : 선종의 법맥계승을 인도 중국 한국의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선종의 법계도는 태고 보우 이래 청허 휴정의 법계를 주안으로 삼아 수록하였습니다.
3. **선종사지도** : 불교가 전개된 주요 지역의 산이름과 사원 명칭을 인도 중국 한국의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4. **선서목록** : 선종과 관련된 경·율·론의 주요 전적과 선종 문헌을 나라·종파·시대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선학참고문헌일람** : 국내외의 선학사전및 일반 불교사전·연표·인명사전·목록 등 각종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감 수

월 운 스님 봉선사 회주 / 현 동국대 역경원 원장

"곁에 두고 살펴보니, 낱말의 선정 연대 출처 고증 내지 범어표기와 한글맞춤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절하게 손질되어 있어 실로 주옥같다는 말로 표현함이 과하지 않을 것 같다."
('감수의 말' 중에서)

편 찬

이철교 /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 동국대 중앙도서관 사서과장
일 지 / 해인사 강원및 율원 졸업 • 수국사
신규탁 / 일본 동경대 문학박사 중국불교사 연구 • 연세대 철학과 교수

本社로 다량주문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은행지로 : 3034426 (시중은행 및 농협, 축협 이용시)
우 체 국 : 010231-0028977-12 (예금주 : 김형균)
문 의 : 277-2676

佛地社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8-6 뉴장충빌딩
전화 277-2676 팩스 278-9118

전국 대형서점과 사찰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사장 태응스님과 외환신용카드 남영진사장이 조인식에서 서명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불자편익사업 활발

btn

BBS

비자카드 제휴 이익 공익자금 활용

'FAX 서비스' 실시 교계정보 제공

btn과 BBS가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사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btn은 지난 15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외환신용카드사와 'btn 비자카드' 제휴 발행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btn 외환비자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의 0.1%가 불교 공익자금으로 활용 된다. btn은 불자기업인과도 협의를 거쳐 각종 물품구입시에 할인혜택을 받도록하는 불자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btn은 'TV 불교통신대학' 개설을 동국대 21세기 발전위원회와 협의중이다. 동국대학이 교육과 학적을 관리하고 btn이 운영과 방송을 맡게 될 불교통신대학은 실무작업이 이미 마무리된 단계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

BBS는 교계내외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케하는 'BBS FAX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FAX 서비스는 보도국에서 매초마다 흘러나오는 국내외 모든 정보들을 정리하여 서비스하고 제작국의 프로그램 정보도 곁들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교계단체및 불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btn은 영상사업부를 통해 영상물을 BBS는 사업부를 두고 오디오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의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두 방송사는 성지순례와 대규모 공연행사지원등 다양한 이벤트 사업으로 시·청취자에게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

"정법으로 온 인류에 이익을…"

6차 세계불교승가대회 말聯서 12일성료

19개국 6백여 지도자 선언문채택

현대 사회에 있어 승가집단은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

세계 19개국의 불교지도자 6백여명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틀을 짜기 위한 제6차 세계불교승가회(WBSC 회장 오명스님) 대회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말레지아 페낭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현대에 있어 승가의 책임'이란 주제에 대한 분과토론이 활발히 진행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 선언문이 채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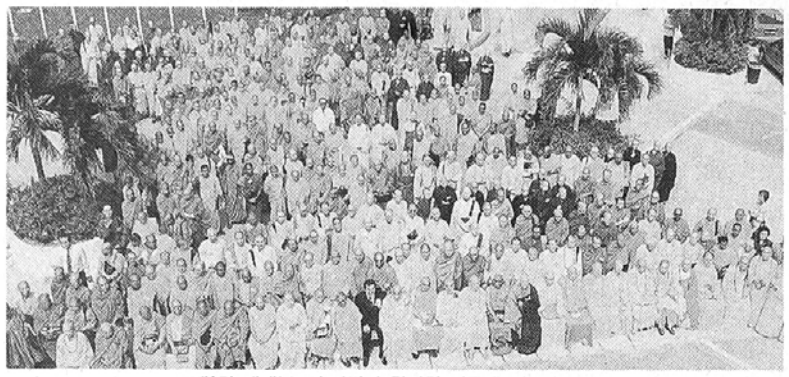
참가한 각국의 불교지도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 사상의 바탕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넓게 수용되고 있는 싯점에서 변화해 가는 사회에 바르게 적응 하는 것이 세계 승가의 공동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선언문을 통해 불교지도자들은 "계행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처님의 원융을 연구하여 자기화 시키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입수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불교를 이끌어 가자"고 다짐했다.

각국에 만연된 사이비 불교에 대한 책임은 정통 승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참가자들은 끊없는 자기 수행과 폭넓은 포교사업이 현대와 미래의 불교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세계불교승가회는 이번 대회에서 논의 된 문제점들을 함께 극복 하기 위해 내부 조직으로 결성된 세계불교청년승가회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청년승가대회를 내년 11월에 대만에서 갖기로 결의했으며 관련 조직도 정비키로 했다.

이번 대회에 한국측에서는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일공(원융종총무원장) 법종(보운종 부원장) 법기(WBSC 연락위원) 석보리 스님(원각사 주지) 등이 참여했다.

임연태 기자



◇제6차 세계불교승가회에 참여한 각국의 불교지도자들.

28·29일 정기종회

태고종, 예산안등 심의

태고종 제9대 중앙종회 개원및 제71회 정기중앙종회가 오는 28·29일 양일간에 걸쳐 총무원 설법전에서 열린다.

지난 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확정한 53명의 종회의원이 개원하는 이번 정기중앙종회에서는 △95년도 종단사업계획안 △96년도 종단 세입·세출 예산안 △증헌종법개정안 △기타 종단현안등이 논의된다.

특히 이날 종회는 종헌종법 개정위원회가 지난 8일 법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총무원법,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승니법의 개정안 및 감사원법, 사회복지원법, 교육원법, 분담금징수원법, 특별위원회법, 사찰법 제정안등 종헌종법개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선교종 창종3년 법회

선교종 창종3주년 기념 및 제2세종정추대법회가 지난 9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제2세종정으로 추대된 동호스님은 법어를 통해 "동쪽에 해뜨니 생기절절하구나 만공에 달뜨니 평평절수로다 허공에 새 날아간 발자국을 찾으니 항하사 모래 한알에 우주가 있도다. 그 속에서 나를 찾으리라 불은 불을끄고 물은 물을 씻으리라"는 법어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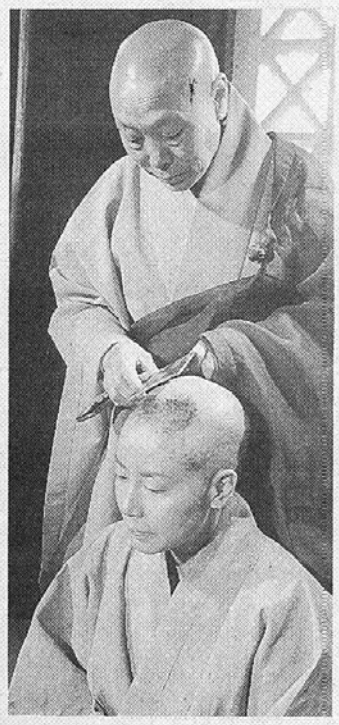
통일예술전등 논의

태고종 한불청 총회

태고종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스님)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웃산 불광사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현집행부의 임기가 오는 12월로 만료됨에따라 개최되는 이번총회에서는 96년도 사업, 통일문화예술대전개최, 조직강화의 건등이 논의된다.

옥이 이모 스님 되다



통일영화 '카루나'에 출연중인 옥소리가 지난 10일 진관사에서 삭발식을 가져 화제.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진관사 법당에서 1시간 10분간 촬영한 삭발식에는 진관사 주지 진관스님과 총무 두진스님이 출연했다.

〈고영배 기자〉

방송가소식

광주 BBS 프로개편

포교·생활정보 강화

불교광주방송은 지난 1일 지역프로그램에 포교·생활정보를 강화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매일 아침 8시30분부터 30분간 방송되는 '무등의 아침'은 풍자적인 멘트를 가미하여 지역소식을 전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나도 한마디' 코너를 통해 그 주간의 초점을 점검한다. 또 '오후의 오솔길(14:10~15:50)'은 불교광주방송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디지털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한 고품질의 음악프로그램으로 전남대 성악과 이어진교수가 진행한다. 이와함께 '지금은 불교시대(오후 4시10분~4시40분)'는 불교계 주변의 이야기를 모아서 민족종교로서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며 '불교문화재 산책' '우리는 불자' '잊을 수 없는 스님'등의 다양한 코너가 마련된다.

印 비스와스박사 초청

불교문화 강연회

불교방송은 세계불교문화전 행사의 일환으로 인도의 S.S. 비스와스박사(고고학자, 켈커타박물관장)를 초청하여 '인도의 불교미술과 건축문화'를 주제로 오는 22일 오후 1시 중앙승가대학 정진관 대강당에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자원봉사단 첫 법회

불교TV 자원봉사단(단장 강국서)은 지난 10일 오후 2시 마포 석불사에서 1백6명의 봉사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법회를 봉행했다.

지구촌 불교

英서 '어린이 불교' 비디오 인기

부처님·진리·스님·명상 주제로 구성

크리어비젼사가 제작한 〈어린이 불교〉(Buddhism for Key Stage) 비디오가 영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종교교육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어린이 불교〉 비디오는 부처님, 진리, 승려, 신앙 등의 네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60여장에 이르는 교습용 안내서를 비롯 피교육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토론주제 등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영국의 종교 교육담당자들은 "지금까지 불교는 어린이에게 교육하기 힘든 종교였으나, 이 비디오를 통해 기존의 통념이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어린이 불교〉 비디오를 사용해서 교육에 참여한 바 있는 에쉬라 아놀드(9세) 역시 "종교수업을 교육받은 이래 불교야 말로 최대의 관심사다"라고 말해 〈어린이 불교〉 비디오의 인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불교의 진리를 어린 학생의 마음에 심어준다면 멀지않아 미래사회로 확산 될 것이라는 믿음을 지닌 크리어비젼사는 현재 미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불교 2〉, 11세부터 14세가 볼 수 있는 〈어린이 불교 3〉, 유아용 교육 비디오 등을 계속 제작할 계획이다. 〈욱〉

日종교법인법 개정 탄원서등 반대여론

일본의 '종교법인법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임시국회에 제출됨으로 일본각계의 비판, 고발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옴진리교 사건으로 개정논의가 본격화되어 문부장관 자문기관인 '종교법인 심의회'가 미련한 이번 개정안은 △광역종교법인의 관할청을 문부성으로 이관 △재무회계를 관할청에 제출 △법인의 활동내용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재산회계를 공개하는 내용에는 경내지나 보시금수입에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여당은 창가학회의 세력을 약화시켜 창가학회가 지원하고 있는 야당인 신진당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교법인 심의회' 내부에서도 종교법인법 개정안에 반대, 심의회의 재개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일본의 카톨릭협의회에서도 법개정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종교학비판' 발표 화제

일본종교학회 학술대회

일본 종교학회(회장 타마루)의 제54회 학술대회가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오키나와 국제대학에서 열렸다.

종교학회는 종교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민속학 심리학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학회인 만큼 연구발표 건수도 280여건에 달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옴진리교사건을 계기로 종교학 의미가 일본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종교학의 모순, 비판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어 화제가 됐다.

또한 중국 와덕충 동대명예교수의 '중국문화와 오키나와'를 주제로 한 특별공개강연이 있었다. 〈미〉

역경진흥회와 역경(逆境)

목탁소리

정 성 운 〈취재2부 기자〉

역경(譯經)은 역경(逆境)의 악순환인가. 또다시 역경이 문제되고 있다. 지난 3일 개원한 조계종 제119회 중앙종회가 '재단법인 동국역경사업진흥회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채택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동국역경원에서 펴낸 〈우리말 팔만대장경〉 판매수익으로 모아진 3억1천만원을 종자돈으로 지난 84년 설립한 재단법인 동국역경사업진흥회가 정작 역경진흥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역경사업진흥회의 재산규모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울 방배동에 대지 150평, 지하1·지상4층 규모, 시가 45억원 상당의 동국한방병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임대료 수입만도 매월 1천5백만원이다. 역경사업진흥회 정관에 따르면 이 법인의 설립 목적을 "역경사업을 진흥시켜 불교의 포교를 진작하고 불교문화와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역경사업을 진흥하자면 역경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동국역경원을 지원함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역경사업진흥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넘도록 역경사업이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은 역경사업진흥회가 설립목적에 충분히 부응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진흥회는 92년부터 95년까지의 임대료 수입만도 어림잡아 4억여원에 이르는데, 1억9백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이에따라 중앙종회는 지난 15일 역경사업진흥회가 고유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동국대 또는 종단에 환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추진할 위원회를 '조계종산하 법인대책특위'에 설치했다.

종회의 이같은 결의에 대해, 지금까지는 무관심하더니 돈이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 기금을 마련해 법인화 해놨으니 이만큼의 재산이 모인 것이지 종단에 넘겼으면 어찌 되었겠느냐는 반문이다.

향후 역경사업진흥회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종도들의 관심이 높다. 일부에서 우려하듯 이권쟁기기식이 아니라, 조계종단이 도제양성 포교와 함께 3대사업으로 천명한 역경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생활속의 불교 ⑤⓪

배불리 먹고 배설하기를 거부한 그 사람



제 법무아(諸法無我). 이 세상의 온갖 살림살이 속에서 '나' '나의 것'이라고 집착할 게 본래 없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새겨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그리고 흘려듣는 사람은 결코 진리의 편에 설 수 없게 된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세속의 편에 서서 아웅다웅하며 살다가 끝내는 허망하게 생을 마칠 각오를 해야 한다. 아니, 각오 이전에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삶은 유한하고 욕망은 무한하다. 고로 욕망의 충족이란 사실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 신기루를 쫓아간다. 나만은 그래도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듯이.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자신의 욕망에 제갈을 물리는 길이다. 흔히 말하듯 자신의 분수를 알고, 현실에 만족할 줄 알라는 것이다. 제물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만인을 호령할 만하다 해도 그런 삶이 반드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불안도 증폭되기 마련이다.

또 하나의 길은 스스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와지는 것이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실은 나의 몫,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에게 잠시 맡겨진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다만 나는 관리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부터 누구나 자유로와질 수 있다. 그것은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소 유란 집착이다. 나요, 내 것이요, 하며 붙잡아 두려는 마음—애착과 소유는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 하지만 애착이 떨어져 나가면 소유는 그냥 소유로 남는다. 소유하되 소유하지 않는 마음—바로 무소유인 것이다. 굳이 나물 먹고 물 마시는 삶이어야만 무소유가 아니라 다만 관리자로 남는 삶도 무소유의 실천이 되는 것이다. 무아의 삶인 까닭이다.

제 법무아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 버리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래 나, 내 것이 없다는 가르침은 '황금을 보기를 돌 같이 하라'는 마음으로의 방하착을 이름이지 먹지도 입지도 말라는 가르침은 아닌 것이다.

재 물을 쓰는 사람과 재물에 의해 쓰이는 사람은 분명 다르다. 재물이 수단인 사람과 재물이 목적인 사람, 나아가 재물을 단지 관리하는 사람과 재물의 노예로 사는 사람의 삶은 판이하다. 비유하자면 전자는 흐름을 따르는 삶이요 후자는 흐름을 막는 삶이다.

세상만사 중에 고정불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돈은 들어오면 나가게 되어 있고 권력은 잡으면 놓게 되어 있다. 올라 가면 내려 와야 하고 내리막 길엔 오르막이 있다. 주먹 쥐면 펴야 하고 폈으면 또 쥐는 도리가 있다. 모든 것은 흐름이다.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다.

흐 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호수의 물이 넘쳐 흐르지 않는다면 끝내는 썩어 악취가 나고 물고기도 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흐름을 막아보려고 무진 애를 쓴다. 돈의 흐름을 막고 권력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애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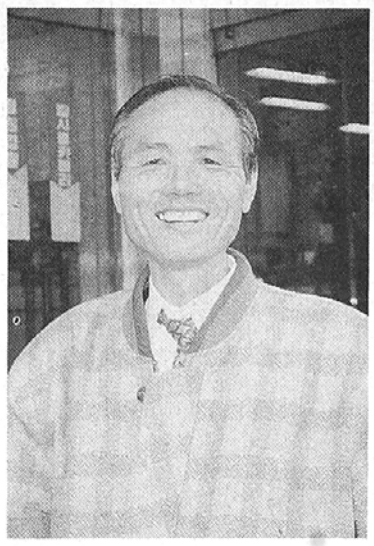
그 흐름에 '나'라는 이름의 제방을 쌓으려고 피 땀을 쏟는다. 하지만 아무도 이 일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 일시적으로 성공한 듯이 보인 경우는 있었겠지만 그것은 배불리 먹고 잠시 배설하지 않는 경우와 같을 뿐이다. 제법무아의 진리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아무도 배설을 거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배불리 먹고 배설을 거부한 사람. 그는 지금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외면한 삶의 뒤끝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협찬 : 주 인 공

"부모님께 문안 올리듯 매일 천원씩 양로원에"

대전우체국 조환진 거사 보시행



노태우 전 대통령의 5천억 비자금 조성 사건은 우리사회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 사건이었다. 뇌물로 인한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돈가치에 크게 혼돈을 가져 왔다. 매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오는 지도층의 수백억, 수천억의 검은 돈은 일반 보통사람들에게까지 1억, 2억은 우습게 아는 어처구니없는 사회괴리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1억원의 가치가 길거리에 나뒹구는 낙엽보다도 못하게 느껴지는 요즘 '보통사람' 조환진거사(57, 대전우체국 근무)의 '매일 1천원 보시행'은 오히려 고귀하고 신선한 충격을 준다.

"돈 1천원 보내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단지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한 것뿐입니다."

대단한 일도 아니라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는 조거사는 쑥스러운 듯 유난히 쾌청한 창밖 하늘로 시선을 돌린다.

매일 오전 9시면 어김없이 대전우체국 우편 집배부에 출근, 온라인을 통해 1천원을 송금하는 일로 조환진 거사의 하루는 시작된다. 11살때 6·25로 부모님을 여의고 외롭게 자랐다는 조거사는 "하루 한번 부모님께 문안인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매일 1천원을 연꽃마을 노인들을 위해 송금한다"며 이 일을 시작하게된 동기를 설명했다.

조거사의 이러한 '작은보시 큰 기쁨' 인연은 이미 5년전부터 지어졌다. 매달 월급을 타면 맨 먼저 연꽃마을에 1만원의 후원금을 따로 보낸다. 당시 1구좌 1천원인 연꽃마을 후원회원에 3구좌를 가입한 조거사는 그후 5구좌, 10구좌로 후원계좌를 늘여왔던 것.

이렇게 매월 1만원씩 보내다 3년전부터 매일 1천원씩 더 보내고 있다. 일요일·공휴일이면 미리 전날 보낸다.

"불우노인 전생 부모일수도"…3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송금

이런 조거사의 보시행은 온라인 담당 직장동료까지 연꽃마을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주위까지 맑히고 있다.

매일 1천원 보내는 것이 귀찮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실 1천원이 뭐 그리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쉽게 송금할 수 있는 위치여서 지금껏 계속 해오고 있을 따름입니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남보다 조금더 일하는 것, 남보다 조금더 참는 것이 바로 남을 돕는 일'이라는 것이 그의 생활신조다.

"내년이 정년이지요. 하지만 공무원법에 건강한 사람은 3년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어 계속 이 일을 할 생각입니다. 한번도 큰 병 치르지 않고 여태껏 살아온 것도 다 부처님 은덕 아니겠습니까."

조환진거사는 환갑을 요란한 잔치 대신에 연꽃마을 용인양로원을 찾아 노인들과 점심공양을 하며 함께 보낼 계획을 벌써부터 세워놓고 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양로원의 모든 노인들은 어쩌면 전생의 제 부모님일 수도 있지요. 단돈 1천원으로 할 수 있는 효도, 이것말고 또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조환진 거사.

그는 땀흘려 번 돈의 소중한 가치와 마땅히 써야 할 곳을 아는 '진짜 보통사람'이다.

대전=이은자 기자

15일 열반한 서운스님

"삼독으로 화탕지옥서 한평생 이제 몸버리고 고향 돌아가니"



지난 15일 직지사에서 향년 92세 법랍 45세로 입적한 조계종 원로회의 명예의원인 전등사 조실 서운스님은 3차례에 걸쳐 총무원장을 역임하는등 종단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섰다.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서운스님은 일제시대에 공무원생활을 시작, 전매서장을 역임하면서 독립운동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노장사상과 칸트 헤겔등 근대 서양철학을 두루 섭렵한 스님은 "내가 갈곳은 부처님 경전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평소생활의 절반을 절에서 보냈다.

총무원장 3차례 역임 조계종 기틀 다져

50년 마곡사에서 제산화상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52년 파계사 수선 안거이래 전국의 유명선방을 찾아 30안거를 마쳤다.

60년 조계종총무원장을 역임한 스님은 62년 비상종단에 총무원장 직무대리, 83년 총무원장취임등 3차례에 걸쳐 종단의 중책을 맡아 한국불교의 중흥과 조계종의 기틀을 세우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

80년 강화 전등사 조실로 추대된 스님은 줄곧 전등사에 주석하면서 선지를 폈다. 스님은 열반에 앞서 "오늘 가버릴까"며 입적의 여유를 보이다가 15일 직지사 서별당에서 상좌들에게 다음과 같은 임종게를 남기고 입적했다.

서운스님 열반송

無形扣地卽有靈 (무형고지즉유령)
형상이 없지만 두드리면 곧 신령스러움이 있고
三毒火湯過平生 (삼독화탕과평생)
삼독의 화탕지옥에서 한평생을 지냈다
脫却體路還本鄕 (탈각체로환본향)
이제 몸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寒月空山屬眞人 (한월공산속진인)
차가운 달 빈산이 진리의 몸이로다

능인사회복지관 24일 개관

착공 4년만에 회향…노인병원등 각종 편의시설 갖춰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를 담당하게될 동양 최대의 복지시설을 불교계가 건립했다.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원장 지광스님)은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지하5층 지상3층 연건평 3천6백평규모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오는 24일 개관법회를 봉행한다. <관련인터뷰 7면>

3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쌍계사주지 고산스님을 비롯 대덕스님과 지역기관장 사회복지관계자 재가신도들이 참석하며 인간문화재 동희스님 일행의 범패가 펼쳐진다.

능인복지관불사를 진두지휘한 지광스님은 개관에 앞서 "불교의 자비행을 사회복지로 연결시켜 깨달음의 사회화를 이루고자 복지관을 건립하게 됐다"며 "7만명의 능인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혼신의 힘으로 마침내 복지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92년 착공이래 4년만에 완공되는 능인복지관은 지상 1층에 유치원 탁아실 노인병원, 2층 문화교양교실, 3층 독서실 선방등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지하 1층은 상담실 방송실 사무실 2층은 동시에 3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교육실로 꾸며져있다.

능인복지관은 앞으로 법회는 물론 가정·어린이·청소년·부녀·노인·장애인·지역사회 복지를 펼친다.

또한 능인복지관은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시설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능인복지관에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불교학교졸업자 가운데 1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8개부서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성철스님 2주기 추모재 봉행

12일 해인사, 사리탑건립 개토재도

퇴옹당 성철스님 2주기 추모제 및 사리탑 건립 개토제가 지난 12일 해인사 대적광전과 백련암에서 각각 봉행됐다.

성철스님 문도회가 주관한 이날 추모법회는 혜암스님(해인사 방장)과 월주스님(총무원장)등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님의 행장소개, 육성법문 청취, 분향,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혜암스님은 "나고 나도 나지 않음이요, 죽고 죽어도 죽지 않음이니 생사가 일여(一如)"라고 법문했다.

이어 월주스님은 추모사에서 "스님의 올곧은 수행정신과 무소유의 청빈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지표가 되고 있다"며 "사부대중의 의식개혁으로 새로운 한국불교를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추모제에 앞서 해인사 백련암은 '성철스님 추모 참회법회' 회향식을 갖고 스님의 사리 1백여과를 모실 사리탑 건립 개토제를 봉행했다.

성철스님 문도회는 사리탑 건립외에도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시민선방 운영, 이웃돕기 자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준비위 결성

신도·직능대표등 7백명 참석…위원장에 한상범교수

조계종 중앙신도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지난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기인대회에는 조계종 25개 교구별 신도대표와 각 신행단체, 직능대표 7백여명이 참석했다. 발기인으로 참석한 신도 대표들은 신도회의 빠른 창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실무를 담당하게 될 준비위원장으로 한상범교수(동국대)를 선출했다. <관련인터뷰 4면>

준비위원회 규약통과와 함께 결성된 중앙신도회 준비위원회는 부위원장단으로 교구본사, 법조, 여성, 의료, 경제계로 나뉘어 구성하고 상임위원으로 29명을 선임했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16일 현재 교구본사 5백8명 신행단체·개별인사 3백43명등 총 8백51명이 발기인으로 등록했다.

정법회 거사림

창립 30년 기념법회

전국에서 처음으로 남자신도들로 조직된 정법 거사림회(회장 남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20일 대구 고려예식장에서 진제스님(동화사 조실)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전통사찰 종토세 삭감

黨政案 국회제출…교계 '비과세' 촉구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9일 용도에 따른 0.2~5%의 종합합산과세를 해 온 종교단체 소유의 비종교목적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택지세율을 0.3% 인하해 분리과세하며, 0.3~2%의 별도 합산과세를 해온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는 0.1%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조세감면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종토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등 현행 법규 취지에 큰 혼란이 생기며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토세는 과표현실화에 따라 세금액이 크게 늘었을뿐 아니라 누진세까지 적용돼 교계는 이에 크게 부담을 느껴왔다.

그러므로 내무부와 민자당의 이같은 조처는 교계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30년 이상 사찰토지 비과세 요구와는 거리가 있어 교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어머니의 마음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코끝에 다가오자 애타는 母心들은 초겨울 추위도 아랑곳 않고 사찰을 찾아 부처님께 자녀의 합격을 기원했다. 관음재일이자 시험 일주일전인 지난 16일 전국 사암에는 합격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이 법당가득 모여 들었다.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고영배 기자>

조계종 119회 종회

산중총회법 통과

종정감사 실시…법인관리·사면법등 차기로

본사 주지 및 총림방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이 제정됐다.

조계종 제 119회 정기중앙종회는 지난 17일 △비구계를 수지한 5년이상 경과 재적승 △교구관할 말사주지인 비구·비구니 등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회의 소집 본사주지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산중총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미의 관심을 모은 법인관리법 사면법 관람료관리법(안)은 차기종회로 이월됐다.

한편 지난 9~11일에 실시됐던 집행부 각 부서에 대한 종정감사보고가 13~14일에 각각 실시됐다.

특히 '96 예산편성을 위한 실태파악위원회' 위원장 정휴스님은 △사찰의 수입·지출증빙자료 미흡 △사찰마다 장부양식 통일화 시급 △특별회계 장부·임대료 수입장부 미비△종단 3대 사업에 대한 예산 저조 등의 감사현황을 보고하고 이번 감사가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종회는 지난 6월 실시한 사면·복권이 미흡하다고 판단, 참석 종회의원의 만장일치로 집행부에 대해 사면단행 권고를 결의했다.

한편 종회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포교원장 정락스님의 사표를 수리했다.

<11월17일 오전 현재>

'21세기 선우모임' 창립

부산신행단체 결속

부산 불교계 신행단체 관계자들과 교계언론 종사자 등 80여 실무자들의 모임인 '21세기를 위한 선우모임(회장 이기표)'이 지난 12일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날 현 부산불교계에 대한 진단과 불교계 전반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어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특정인의 노선이나 사적인 주장을 배제하고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불교계의 열려있는 대화마당이 될 것임을 천명했다.

윤이상씨 장례식

13일 獨기독병원서 엄수

지난 4일 타계한 故윤이상씨의 장례식이 지난 13일 독일 베를린 기독병원에서 엄수됐다.

인천 용화사 환산스님의 집전으로 엄수된 장례식에는 고인의 유족과 친분이 두터웠던 동료음악가들이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고인의 동생 윤동화보살에 의하면 독일의 풍습에 따라 다음달 26~27일경 화장의식을 갖고 유해의 일부는 고국으로 이송해 고향인 통영 앞바다에 뿌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양복지관 '행정 마비'

친인척 중심 파행운영…서울시, 새 법인 모집공고

교계에서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가양4 종합사회복지관이 파행운영과 서울시의 일방적인 운영권 회수 등으로 행정마비 상태에 빠졌다.

가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설웅스님)은 지난 13일 시청측에서 복지관 위탁운영자 교체를 들고 나서 일방적으로 국민일보(13일자18면)등에 복지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게재함으로써 복지관 행정이 마비상태에 봉착하게 됐다.

가양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6월 사단법인 불교사회복지회가 위탁받아 전 서울시 의회의 원인 김순애씨에게 재위탁 운영토록 했는데 김순애씨는 친인척들을 중심으로 파행운영을 계속해 갈씽을 빚어왔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사회복지회는 설웅스님을 관장으로 임명, 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5개월여의 행정공백끝에 지난 7일부터 정상업무에 들어갔으나 서울시가 사전통보도 없이 위탁운영 파기를 들고 나선 것.

시청측은 위탁운영체가 자율적으로 활동하지 못할 시에는 운영권을 해제할수 있다며 운영권박탈을 주장하며 타법인으로의 위탁을 유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불교사회복지회와 복지관 직원일동은 지난 14일 서울시청을 방문, 복지관의 정상운영을 촉구하는 동시에 위탁운영권 반납조치와 위탁법인 모집공고 취하 진정서를 민원실에 접수하고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불교사회복지회 한 관계자는 "시청측이 이미 천주교 단체를 위탁운영자로 내정해 놓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 복지관 위탁운영을 둘러싼 서울시의 행정집행 시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전화상담협 결성

상호교류·협력등 다짐

대구지역의 5개 전화상담기관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자비의 전화(대표 재원스님) 환경의 전화(대표 성타스님) 나눔의 전화(대표 최병용 신부) 생명의 전화(대표 정성덕) 여성의 전화(대표 조성희 장기순)등 5개 상담기관은 22일 오후 2시 대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대구지역 전화상담협의회 결성 창립기념식 및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지난 7월 첫모임을 가진후 그동안 여섯차례에 걸쳐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 끝에 결실을 보게된 협의회는 앞으로 연 1회이상 학술대회 개최 및 계몽활동, 유관단체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현대사회와 전화상담'의 기조발제에 이어 폭력, 종교, 환경문제등에 대한 각 단체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내달 9일 청소년 지도자대회

조계종, 포교현장 문제점·방향등 논의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청소년의 해' 사업 준비를 위해 '한국불교 청소년지도자 대회'를 12월9일, 10일 양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한다.

전국 각 사찰과 학교 학생법회 지도법사, 청소년 단체 지도자, 지도교사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이번 대회는 청소년 포교현장의 문제점과 방향, 전국규모의 청소년 조직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청소년지도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포교원 연수국장 화암스님은 "청소년 포교의 성공여부가 미래불교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전제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청소년지도자들의 모임에 많은 참여가 있기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이번 청소년지도자대회에 이어 전국규모의 청소년단체를 창립, 내년 청소년의해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일 불교인권위 창립 6주년

양심수 석방등 인권개선 노력 '평가'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범)가 창립 6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인권법당 길상사에서 외부인사 초청강연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90년 12월 창립된 불교인권위는 그동안 각종 사회문제를 비롯해 양심수 석방등 인권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성명서만 열심히 내는 단체'라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불교인권위는 부산불교인권위를 비롯해 승려인권위, 현대불교연구소등 4개 산하단체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 단체의 활동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인권위조차도 "인적구성과 사업성격 재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인권위가 교계내의 인권단체로서보다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성명만이 아닌 교계내외에서 효응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사업실천이 필요하다"며 다른 시민운동단체나 종단과의 연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

"컴퓨터이용 교학수업 흥미" 94%

해동중학교 교학연구발표회서 밝혀

종립 해동중학교(교장 황운호)는 지난 10일 부산 해동중학교에서 전국 불교종립학교 교장과 교법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교육연합회 지정 제25회 교학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컴퓨터와 교학수업의 접맥을 시도해 자칫 고루하게 인식될 수도 있는 교학수업에 흥미를 갖도록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교화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교학 연구수업과 '불교교과 체계에 대한 제문제'란 논문발표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연구수업안내서에 따르면 해동중학교의 매년 졸업생 가운데 약 70%가 수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학년 6반 51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실태 분석에 따르면 교학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흥미있다(47%)' '그저 그렇다(45%)' '흥미없다(8%)' 순으로 나타났으나, 컴퓨터를 이용한 교학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흥미있다(94%)' '그저그렇다(4%)' '흥미없다(2%)'로 나타나 컴퓨터를 이용한 교학수업이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밖에 학생의 종교실태는 불교(49%) 기독교(24%) 천주교(8%) 무교(19%)순으로 나타났고, 학부모의 종교는 불교(42%) 기독교(21%) 천주교(10%) 무교(27%)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년원생 35명

15일 통도사서 수계

교도소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 홍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가 거행됐다.

부산소년원에서 감화교육을 받고 있는 35명의 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수계법회는 목산스님(통도사 주지)을 전계사로 수계자 전원은 바른 깨달음을 향하여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수계법회는 통도사 자비원 사무국장 남명스님과 10여년전부터 교도소 포교에 힘써온 부산불교마야회(회장 최보림정) 회원들의 꾸준한 포교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세계를 네트웍으로 묶는 뉴프론티어 정신입니다.

세계가 이웃으로 좁아져 가는 지금,
기업은 두뇌와 혁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때입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 앨빈 토플러 -

한발 앞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
멀티미디어의 뉴프론티어,
현대전자입니다.

8개 현지법인으로 세계적 네트웍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매출의 70%이상을 해외에서 이룩하고 있는 현대전자는 미국, 유럽, 싱가폴 등 8개의 현지법인과 5개의 합작법인을 설립, 반도체 및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의 현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기술과 제품의 현지화를 이루고 있으며 세계적 기술의 연구개발기지로 적극 활용, 세계적 네트웍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전자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부문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인 Symbios Logic사를 비롯, 멀티미디어 분야의 독보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TV-COM사, 웍스테이션 제조회사 Axil사, 컴퓨터 보조기억장치인 HDD로 유명한 Maxtor사등 세계적인 첨단 전자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망 사업참여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지상 1400Km 상공의 48개 소형 인공위성으로 세계 어디서나 음성, 데이터, 무선호출, 위치확인등 개인휴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이동통신사업인 글로발 스타사업에 참여하는 현대전자는 미국의 로랄, 퀄컴사, 프랑스의 프랑스텔레콤사등 유수의 통신전문회사들과 함께 세계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우주항공관련 첨단산업에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의 뉴프론티어

현대전자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HYUNDAI